

KREI-KSP(지식공유사업) 시리즈 01 | 2010. 12.

농촌지도 및 보급체계 구축·운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김태훈 박사가
연구 과제의 기획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대학교
이성우 교수팀이 중심이 되어 작성하였습니다.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틀 4
3. 연구 추진방법 5

제2장 농촌지도의 개념과 한국 농촌의 변화

1. 농촌지도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6
2.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개괄적 특징 10
3. 한국 농촌의 여건 변화 15

제3장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

1. 검토방향 및 내용 27
2. 추진체계 및 지도방법 30
3. 주요 추진내용별 발달과정 50

제4장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과와 교훈

1. 성과 114
2. 성공의 핵심요인 134

제5장 종합 및 결론

1. 연구결과 종합 14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144

- 참고 문헌 146

표 차 례

제2장

<표 2- 1>	농촌지도의 배경 및 필요성	10
<표 2- 2>	농촌지도의 패러다임 변화	14
<표 2- 3>	한국의 인구 변화(1970~2005년)	15
<표 2- 4>	농촌과 도시 간 인구이동 변화(1965~2005년)	16
<표 2- 5>	농가구 및 농가의 인구 변화(1970~2005년)	17
<표 2- 6>	연령별 인구 구조변화(1970~2005년)	17
<표 2- 7>	국토면적의 이용변화(1970~2008년)	18
<표 2- 8>	농가구당 경작면적의 변화(1970~2005년)	20
<표 2- 9>	농가구당 경작면적 크기의 변화(1960~2005년)	20
<표 2-10>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1970~2005년)	21
<표 2-11>	도시 및 농촌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 (1970~2005년)	22
<표 2-12>	농가구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화(1975~2005년)	23
<표 2-13>	농가구 소득 중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의 변화 (1985~2005년)	23

제3장

<표 3- 1>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조정 내역(1986년 1월 현재)	36
<표 3- 2>	지방조직 개편 추진과정	39
<표 3- 3>	1·2차 지방 농촌지도조직 개편결과	39
<표 3- 4>	농촌지도인력 추세	44
<표 3- 5>	중앙과 지방의 농촌지도사업비 부담	48
<표 3- 6>	농산물 생산액 추이	62

<표 3- 7>	농업인 교육대상의 변천과정	93
<표 3- 8>	연도별 겨울농민 교육실적	94
<표 3- 9>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 교육실적	96
<표 3-10>	주력 농산물 품목별 상설교육 실적	96
<표 3-11>	농민후계자 교육 실적	97
<표 3-12>	연도별 전문농업인 교육실적	99
<표 3-13>	연도별 귀농인 교육실적	99
<표 3-14>	연도별 농협 영농지도원 교육실적	101
<표 3-15>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실적	103
<표 3-16>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103
<표 3-17>	한·영 농기계 기술협력사업에 의한 장비지원 내용	105
<표 3-18>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종사 현황	113

제4장

<표 4- 1>	쌀생산 추이	115
<표 4- 2>	시기별 통일형 품종 수량	116
<표 4- 3>	어린모 이앙 보급실적	117
<표 4- 4>	벼베기 기계화율	117
<표 4- 5>	응용영양개선사업 실적	120
<표 4- 6>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122
<표 4- 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실적	131
<표 4- 8>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132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수행체계	4
------------------------------	---

제2장

<그림 2-1> 농업기술보급에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12
<그림 2-2> 경작지의 변화(1995~2008년)	19
<그림 2-3> 농가구의 농가자산 중 부채비중 변화(1962~2008년)	24

제3장

<그림 3-1>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내용	29
<그림 3-2> 농촌진흥청의 구조와 조직체계(1962년)	32
<그림 3-3> 농촌지도의 추진체계	41

제5장

<그림 5-1> 연구결과 종합	143
------------------------	-----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의 농촌은 1950년 6·25전쟁 직후에는 극심한 빈곤을, 1970년대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이농현상으로 농촌의 경쟁력 약화 및 도농 간 격차 등을,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WTO 가입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생존 위협을 겪는 등 지난 60여 년간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그러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1975년을 기점으로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이루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을 이룩하고,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발 등을 통해 농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였음
- 한국 농촌의 이러한 성공에는 중앙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효과적인 정책들을 다양하게 발굴·추진하고 선진 농업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며, 농업 관련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행·재정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가장 주된 성공요인이었음
 - 아울러, 중앙정부와 함께 농촌지역을 혁신·발전시키고자 하는 농어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발적 노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의 핵심요인이었음
- 한국 농촌지역의 성장에는 ‘농촌지도’라는 교육적 노력 또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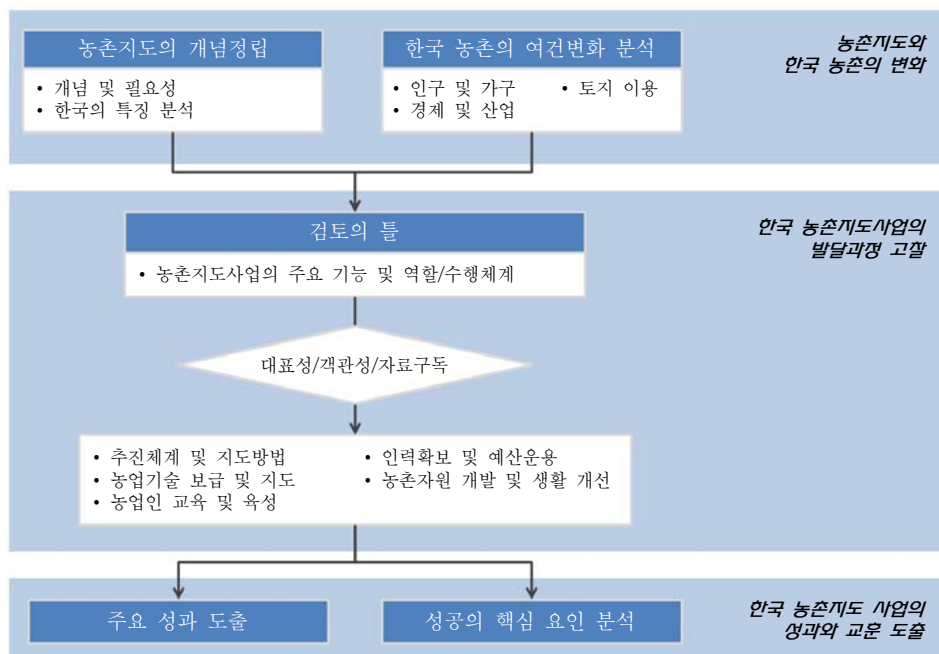
- 지난 60여 년 동안 농촌과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다양한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과 농업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비록 도시화의 진전으로 농촌인구 감소, 농업 후계자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그간 노정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감안할 때,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현실적이며 효과적인 전략이었음
-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총체적 위기 앞에서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농촌개발을 도모하며,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임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1957년 농촌진흥청의 전신인 ‘농사원’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새롭게 개발된 농사기술을 활발히 농촌에 보급하였음
 - 즉,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성과 확산, 기술개발에의 재투자로 선순환구조 구축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이라 할 수 있음
 - 1960년대부터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토대로 농촌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비록, 농촌지도사업이 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차원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과거 대비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며 그 성장세는 계속 되고 있음
 - 이러한 농촌지도사업은 단기간에 고도성장에 성공한 우리나라의 발전 사례 중 농촌과 관련된 중요한 자산이라 할 수 있음
- 2004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우리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경제발전 경험 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은 우리의 경제발전경험을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통해 개도국에 컨설팅해주는 사업임

-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성공사례를 개도국에 전파함으로써,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익 신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 사업은 2004년 시작 이래 2009년까지 15개국 134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수행한 바 있음
- 2010년부터는 과거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서술한 형태의 연구결과에서 탈피, 실질적으로 개도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사례를 선정하여 모듈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이는 사례별로 정책실시사유(why), 세부내용(what), 추진방법(how), 성과평가(evaluation), 시사점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는 것임
- 2010년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 농촌·농업 관련 주제는 농촌지도 및 보급 체계에 관한 내용임
 -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농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 바 있어, 이러한 발전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개도국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진국들과의 정책적 교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 아래, 연구의 목적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농촌지도사업과 기술보급, 이를 통한 농촌경쟁력 확보에 관한 발전적 경험을 모듈화에 준용, 종합적으로 정리, 평가하여 개도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틀

- 본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됨(<그림 1-1참조>)
- 먼저 농촌지도의 개념을 정립하고 한국농촌의 변화를 개괄함
 -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농촌지도의 개념을 고찰하는 한편, 농촌지도 사업의 한국적 특징과 변화양상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 아울러 1950년 이후, 한국 농촌의 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경제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한국 농촌의 변화상을 살펴봄
- 다음으로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을 살펴봄
 -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수행체계 등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내용을 유형화하고, 특정 시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함

<그림 1-1> 연구의 구성 및 수행체계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내용 중 검토대상은 대표성을 지니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하였으며, 관련자료의 구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체계 및 지도방법, 인력확보 및 예산운영,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 자원 개발 및 생활 개선, 농업인 교육 및 육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
- 마지막으로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의 핵심요인을 분석하여 개도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3. 연구 추진방법

- 광복 이후 약 60여 년의 광범위한 농촌지도와 보급체계 조사를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문헌조사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농촌지도개념 관련 국내외 관련연구 및 문헌조사
- 한국 농촌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각종 통계정리 및 분석
- 한국 농촌지도 관련 계획체계와 법제도 분석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 고찰을 위한 관련 연구,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한국 농촌지도의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통계분석

제2장

농촌지도의 개념과 한국 농촌의 변화

1. 농촌지도사업의 개념과 필요성

- 농촌지도사업(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은 그 어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장(Exten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활동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임
 - 교육확장이라는 용어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였으며, 일반시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대학에서 공개강좌를 실시한 것이 시초가 됨
 - 이러한 활동은 미국에 전파되어 미국 주립대학 단위에서 실시되었는데 주로 농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데서 농촌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었음(최민호, 1995)
 - 농촌지도사업의 개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여 왔으나, 큰 틀에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거나 농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를 선제적·종합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음
- 농촌지도사업의 개념은 사업영역이 광범위하고 국가적 여건 등에 따라 목적과 기능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농업경영, 가정생활,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 통칭되고 있음(박태식,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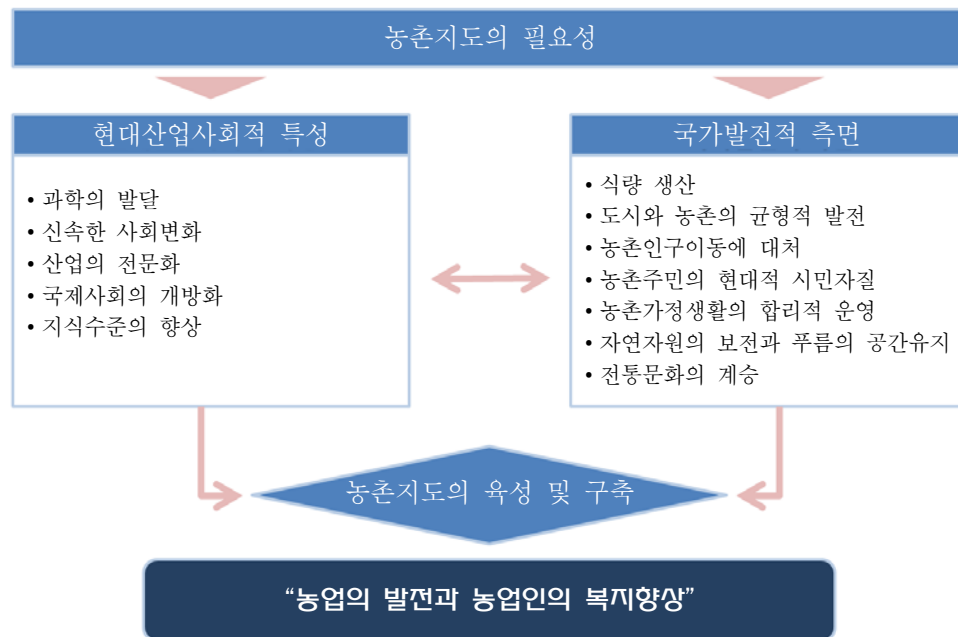
- 송기진(2003)은 농촌지도사업을 문화 변동과 그 원리에 입각하여 농촌 사람을 위한다기보다는 그들과 더불어 교육사업을 전개하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음
-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농촌지도사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의 또한 앞서 살펴본 개념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 맥을 같이 함
 - FAO and World Bank(2000)는 농촌지도사업을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 지식정보체제(Agri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s for Rural Development)’라는 개념으로, OECD에서는 ‘농업지식체제(Agricultural Knowledge System)’라는 개념으로 각각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지도사업을 광범위한 지식체제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연구, 지도, 교육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김진모·고순철 외 4인(2009)도 농촌지도사업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기능하기보다는 한 체제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투자관계이면서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계획되고 실천되는 것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에서 농촌지도사업의 개념은 1962년 공포된 농촌진흥법 중 농촌진흥청 설립 관련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농촌지역 개발에 필요한 실험 연구·계몽지도·기술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지도자 양성훈련을 통한 농업인의 복리증진이 주된 목적임(농촌진흥청, 2007)
 - 아울러,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것임(농촌진흥법)
 - 종합하면,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농업 관계자들에게 농산물 생산증대와 효율화를 도모하는 능력배양, 농산물의 시장·유통·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최민호(2005)는 농촌지도의 필요성에 대해 농촌지도의 개념과 관련해서 현대산업사회의 특성과 국가발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
- 현대산업사회의 특성으로 과학의 발달, 신속한 사회변화, 산업의 전문화, 국제사회의 개방화, 지식수준의 향상을 언급하고 있음
 - 과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영농기술, 신품종, 농업기구 및 자료 등이 급속히 개발·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사항들을 가급적 빨리 영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효과적임
 - 상호 긴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적 영농을 위해서는, 사회변동에 따른 농산물유통 및 가격변화, 농업에 대한 미래 예측능력, 국내외 농업변동에 대한 지식과 정보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산업의 전문화에 대응해서 농업분야도 농업생산이나 농산물유통에 대한 최신의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어야만 하며, 이 때문에 농촌사회 교육기관이나 농업관계 조직체와 밀접한 접촉을 유지해야 함
 - 국제개방화에 따라 국가 간 무역이 확대되어 농산물시장도 점차 개방되고 있다. 이러한 때 한 나라의 농업이 발전,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선진농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 확보가 관건임
 -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주민들도 지식이나 학력수준이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생활향상에 대한 의욕은 물론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 습득에 더욱 많은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농촌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농촌지도사업과 같은 사회교육의 기회가 보다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사회·농업·농촌가정의 발전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농촌주민들에게 배양하는 사업으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식량생산,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농촌인구이동에 대처, 농촌주민의 현대적 시민자질 함양, 농촌가정생활의 합리적 운영, 자연자원의 보전과 푸름의 공간유지, 전통문화의 계승의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식량 자급자족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국가사회의 안정적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 무공해 식품의 생산·공급을 위해서도 농촌지도사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현대도시에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큰 사회적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농촌지도는 농촌과 농업의 신속한 발전을 도모하여 도·농 간 격차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촌현상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생활에 대한 적응능력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국제화, 정보화 및 개방화에 맞서 농촌주민들도 능동적 생활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는 현대적 시민자질이 필요하며,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주민들의 현대적 시민자질 함양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농촌주민의 건전한 의식주생활, 합리적인 가정관리, 건강한 육아와 자녀교육 등은 농촌주민의 복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합리적 가정생활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자연자원의 보전은 생태계 보전뿐 아니라,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자연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국제화될수록 전통문화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과 생활관련 전통문화를 많이 계승시켜온 농촌지역은 독립적 지역사회로 유지·존속되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

<표 2-1> 농촌지도의 배경 및 필요성



주: 최민호, 1995, p. 27-30을 참조하여 작성

2.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개괄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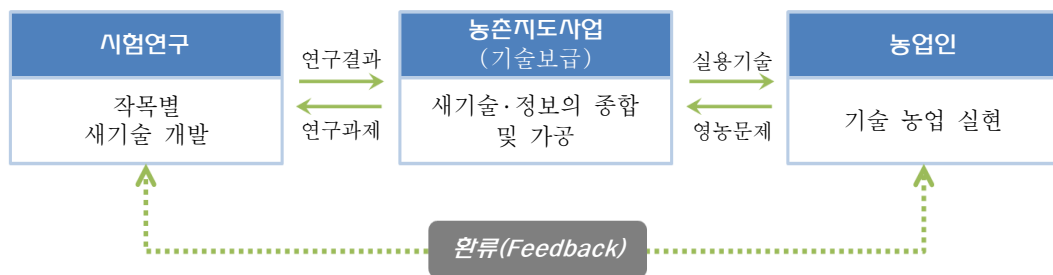
- 국가마다 농촌을 둘러싼 환경, 경제, 문화 등이 달라 농촌지도사업의 성격, 체계 등 또한 상이함
 - 세계화의 진전과 과학 및 정보발달 등으로 농업기술개발, 농업경영의 보급 등 농업부문의 치열한 경쟁과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운영,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은 자국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님
-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의 유형은 대학외연 교육형, 정부 조직형, 농민조직 기구형, 민간 주도형으로 구분함

- 대학외연 교육형: 농업발전을 위한 사회교육적 기능이 강조되며, 학교 교육 기능이 먼저 발전된 일부 선진국 유형임(미국, 스위스 등)
 - 정부조직형: 정부주도의 식량자급, 농촌개발 목적에서 출발했으며, 농림부 하부 조직형과 외청 조직형으로 구분됨(한국, 일본, 태국 등)
 - 농민조직 기구형: 농민의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하였으며, 농민조직이 전문지도원을 채용하여 지도하는 유형임(덴마크, 프랑스, 대만 등)
 - 민간주도형: 농촌지도 비용의 수혜자부담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시장지향적 컨설팅 및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 유형임(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전형적인 정부조직형에 속함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 단위에 농림부 소속의 독립적 외청인 농촌진흥청, 도 단위에 도시자 소속의 농업기술원, 시·군 단위에는 시장·군수 소속의 시군농업기술센터(읍면농업인상담소)가 구성된 체계이며, 이 체계는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고 농촌진흥청이 발족된 이래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¹⁾
 -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과 소득원을 지역 농업·농촌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가공·설계하여 보급하는 체계임
 - 또한 지역농업을 기술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등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원을 개발, 발굴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농업·농촌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농업기술 보급에 있음
- <그림 2-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농촌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시험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인 첨단화된 농업기술을 농촌지도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는 체계임

1) 세부적인 변화는 제3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임

- 시험연구, 농촌지도사업을 통한 기술보급, 농업인 소득증대의 세 가지 축이 서로 환류하면서 체계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이 농업기술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내용임
- 이러한 관점에서,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 결과인 자연과학적 지식을 농업인 지향 기술로 가공, 지도와 교육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김성일, 2007)

<그림 2-1> 농업기술보급에서 농촌지도사업의 역할



자료: 김진모·고순철 외 4인, 2009, p. 40

- 최근 우리나라 농촌지도사업은 전통개념과 기능에서 탈피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다양한 현시적 요구들을 수용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농촌지도사업의 개념과 기능도 시대적 여건에 부응하도록 변화할 필요가 있음²⁾
 - 다시 말하면, 전통적 기능 즉, 실용기술 연구 및 개발, 보급 기능은 지속할 필요가 있고, 농촌지역의 다원적 기능 확장 즉, 개발을 통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향상, 정주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역할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사업 방향도 이러한 여건변화를 고려

2) 전통적인 농촌지도사업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김태호(1996), 윤여학(1998), 김진균·박성준(2000), 조영철·송용섭(2003)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들 연구의 참조를 권함

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 더불어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 및 진전에 따른 지식정보기반에 적합한 농업을 실현하고, 소비자와 농업인들 간의 자발적인 관계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을 농업지식정보화에 적합한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러한 농촌지도사업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례로 2002년 발족된 ‘농촌지도사업발전기획단’은 ‘소비자·농업인과 함께 하는 농업지식정보사업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존 농촌지도사업의 개념과 명칭의 한계를 조명하고, 개념과 명칭을 새롭게 변경하려는 공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음
 - 이 같은 관점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은 전통적 개념의 기술보급 및 지도뿐 아니라 농업인 교육 및 인력육성, 농촌자원개발 및 생활개선 그리고 농업연구를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김진모·고순철 외 4인, 2009)
- 농촌지도사업의 개념 및 운영체계의 재정립에 대한 필요성은 농촌지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표 2-2> 참조)
- 과거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시범농가를 지정,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 내 농촌지도사가 중심이 되어 농업인에게 기술을 보급하고, 지도하거나, 대면상담으로 이뤄져 왔음
 - 하지만, 최근에는 농촌 여건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뿐아니라, 과거와 다른 차원 즉, 앞서 언급한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농촌지도사업 대상 확대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변화 대응 필요성 제기로 농촌지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
 - 최근에는 농촌지도사업의 대상이 소비자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기능 또한 농촌기술 보급 외에 기술·경영컨설팅, 소비자 농업육성이 추가되고 그 방법도 농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보화 시대에 용이한 사이버 상담 등의 활성화가 요구됨
 - 종합하면, 농촌진흥청(2005)이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은 새로운 기술교육과 보급에서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농업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산·연계하는 공공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음

<표 2-2> 농촌지도의 패러다임 변화

개념(정의)	○ 새로운 기술을 교육 또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보급하는 사업	⇒	○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분산·연계하는 공공서비스
대상	○ 농업인	⇒	○ 소비자 + 농업인
기능	○ 단순기술 보급 ○ 농촌생활 개선 ○ 학습단체 육성	⇒	○ 기술·경영 컨설팅 ○ 소비자 농업육성 ○ 품목별 농업인조직 육성
방법	○ 시범농가 전시 지도 ○ 대면 상담	⇒	○ 전업농가, 일반농가 차별화 접근 ○ 사이버 상담
자원	○ 지역 내 지도사 활용	⇒	○ 전국 기술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자료: 농촌진흥청, 2005, P. 7

○ 그간 한국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의 개념 변화에 따른 사업 명칭과 관련된 학술적인 논의도 있었음

- 조영철·송용섭(2003)은 농업환경의 지식정보화와 지방분권화 등 시대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기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인한 농촌지도사업의 부정적 시각을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농업지식정보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음
- 김진균·박성준(2000)은 21세기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의 일환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명칭을 특성화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보급사업’이라는 명칭을 제안한 바 있음
- 김진화(2007)는 미래의 농촌지도사업이 주 고객을 농업인뿐 아니라 소비자로 확대하고 있으며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농촌지도사업’이라는 명칭은 국가의 농업·농

촌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목적, 내용, 방법, 시기에 있어서 모두 부적 절함을 주장

- 2010년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이나 농촌지도사업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명칭의 변경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한국 농촌의 여건 변화

3.1. 인구 및 가구

- 많은 개발도상국이 겪었던 것처럼, 한국 또한 1970년대 부터 산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진전되면서 농촌지역의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도시지역의 인구는 급속히 팽창하였음
- <표 2-3>에 나타나 있듯이, 농촌지역의 인구는 1970년에 18.5백만 명에서 2005년에는 8.7백만 명으로 약 9.8백만 명이 줄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인구 대비 비중도 58.9%에서 18.5%로 약 40.4%가 감소하였음

<표 2-3> 한국의 인구 변화(1970~2005년)

단위: 백만 명, (%)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합계	31.4	34.7	37.4	40.4	43.4	44.6	46.0	47.0
도시지역	12.9 (41.1)	16.8 (48.4)	21.4 (57.2)	26.4 (65.4)	32.3 (74.4)	35.0 (78.5)	36.6 (79.7)	38.3 (81.5)
농촌지역	18.5 (58.9)	17.9 (51.6)	16.0 (42.8)	14.0 (34.6)	11.1 (25.6)	9.6 (21.5)	9.3 (20.3)	8.7 (18.5)

자료: 통계청

- 반면에 도시지역은 35년(1970~2005년) 동안 인구 수는 25.4백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인구 비중은 40.4%가 증가하였음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은 농촌과 도시의 소득 격차, 농업경영의 악화로 농촌지역 인구가 대규모로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결과임
 - 이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 인구 이동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표 2-4> 참조)
-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1980년까지 전체 이동인구 중 50%를 넘게 차지하였으며, 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0~2005년 사이에는 7.9%까지 떨어졌음
 - 최근 40년간 인구 수를 기준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가장 많은 인구가 이동한 기간은 1975~1980년이며 이 기간 동안 2,529명에 달하는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였음

<표 2-4> 농촌과 도시 간 인구 이동 변화(1965~2005년)

단위: 만 명, (%)

기간	1965~1970년	1975~1980년	1985~1990년	1995~2000년	2000~2005년
농촌 → 도시	1,844(57.8)	2,529(51.7)	2,329(33.4)	897(19.0)	308(7.9)
도시 → 도시	670(21.0)	1,412(28.9)	3,527(50.6)	2,861(60.3)	2,870(73.9)
도시 → 농촌	387(11.9)	679(13.9)	743(10.7)	929(19.6)	647(16.7)
농촌 → 농촌	297(9.3)	268(5.5)	368(5.3)	53(1.1)	60(1.6)
합계	3,198(100.0)	4,888(100.0)	6,967(100.0)	4,740(100.0)	3,885(100.0)

자료: 통계청

- 농가구 수와 농가인구 수 또한 197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임
 - 1970년도 농가구 수와 농가인구 수는 248만 가구, 1,442만 명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127만 가구, 343만 명으로 각각 121만 가구, 1,099만 명이 줄었음
 - 1970~2005년 사이에 전체 가구 중 농가구 수 비중은 34.4%, 농가인구 수의 비중은 37.6%나 감소하였음

<표 2-5> 농가구 및 농가의 인구 변화(1970~2005년)

단위: 만 가구, 만 명, (%)

년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농가구	248 (42.4)	238 (35.2)	216 (27.0)	193 (20.1)	177 (15.6)	150 (11.6)	138 (9.7)	127 (8.0)
농가인구	1,442 (44.7)	1,324 (37.5)	1,083 (28.4)	852 (20.9)	666 (15.5)	485 (10.9)	403 (8.6)	343 (7.1)

○ 1970년에서 2005년 동안 한국사회에 나타난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는 다음

<표 2-6>와 같음

<표 2-6> 연령별 인구 구조 변화(1970~2005년)

단위: 백만 명, (%)

구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합계	합계	31.4	34.7	37.4	40.4	43.4	44.6	46.0
	14세 이하	13.2 (42.1)	13.2 (38.1)	12.7 (33.8)	12.1 (29.9)	11.1 (25.7)	10.2 (23.0)	9.6 (21.0)
	15~64세	17.2 (54.6)	20.3 (58.4)	23.3 (62.3)	26.6 (65.7)	30.1 (69.4)	31.7 (71.1)	33.0 (71.7)
	65세 이상	1.0 (3.3)	1.2 (3.5)	1.4 (3.9)	1.7 (4.3)	2.2 (5.0)	2.6 (5.9)	3.4 (7.3)
도시 지역	합계	12.9	16.8	21.4	26.4	32.3	35.0	36.6
	14세 이하	4.9 (37.9)	5.9 (35.2)	6.9 (32.5)	7.8 (29.7)	8.5 (26.4)	8.3 (23.7)	7.9 (21.6)
	15~64세	7.8 (60.0)	10.5 (62.5)	13.9 (65.0)	17.8 (67.3)	22.6 (70.1)	25.2 (71.9)	26.7 (73.0)
	65세 이상	0.3 (2.1)	0.4 (2.3)	0.5 (2.6)	0.8 (3.0)	1.2 (3.6)	1.5 (4.3)	2.0 (5.5)
농촌 지역	합계	18.5	17.9	16.0	14.0	11.1	9.6	8.7
	14세 이하	8.3 (45.1)	7.3 (40.8)	5.7 (35.7)	4.3 (30.4)	2.6 (23.6)	1.9 (20.2)	1.7 (18.6)
	15~64세	9.4 (50.8)	9.8 (54.6)	9.4 (58.7)	8.8 (62.7)	7.5 (67.3)	6.5 (68.1)	6.2 (66.7)
	65세 이상	0.8 (4.2)	0.8 (4.6)	0.9 (5.6)	1.0 (6.8)	1.0 (9.0)	1.1 (11.8)	1.4 (14.7)

자료: 통계청

- 이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음
-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는 3.3%에 불과하던 반면, 2005년에는 9.3%까지 증가하였음
- 인구증가 추세에 따라 1995년까지는 15~64세의 인구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1995년 이후부터는 정체됨
- 농촌지역의 고령화 현상은 도시지역에 비해 두 배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
- 1970년부터 2005년까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도시지역의 경우 5.1%가 상승한데 반해, 농촌지역은 14.4%나 증가하였음

3.2. 토지이용

-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농경지의 비율은 <표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표 2-7> 국토면적의 이용변화(1970~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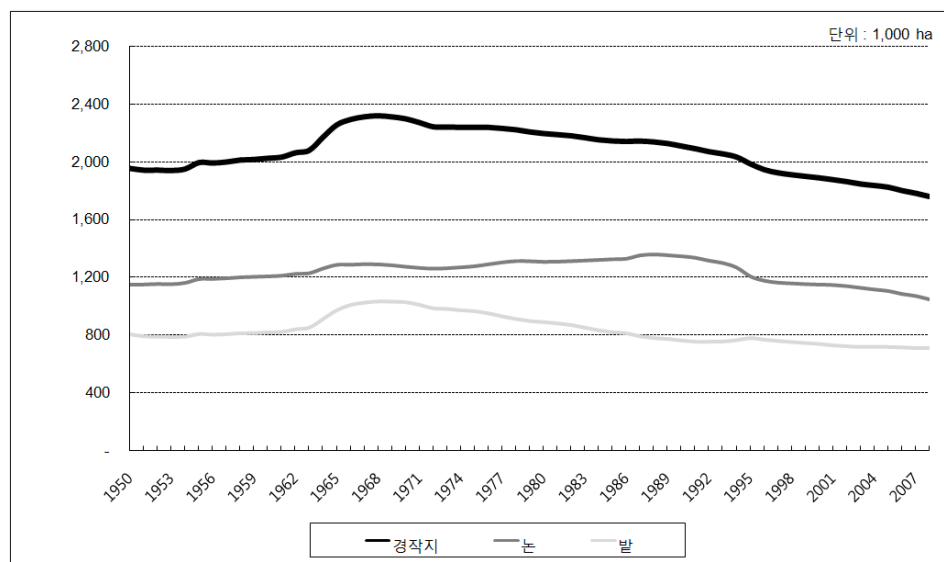
단위: 1,000 ha

년도	국토 면적	농경지		임야		기타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70	9,848	2,298	23.3	6,611	67.1	939	9.6
1975	9,881	2,240	22.7	6,635	67.1	1,006	10.2
1980	9,899	2,196	22.2	6,568	66.3	1,135	11.5
1985	9,914	2,144	21.6	6,531	65.9	1,239	12.5
1990	9,927	2,109	21.2	6,476	65.3	1,341	13.5
1995	9,927	1,985	20.0	6,452	65.0	1,490	15.0
2000	9,946	1,899	19.0	6,422	64.6	1,635	16.4
2005	9,965	1,824	18.3	6,394	64.2	1,747	17.5
2009	9,990	1,737	17.4	6,370	63.8	1,883	18.8

자료: 통계청, 행정안전부, 산림청

- 1970년 2,298천 ha에서 2009년에는 1,737천 ha로 561천 ha가 감소했으며, 비중으로는 약 5.9%나 감소하였음
 - 임야의 비율도 같은 기간에 약 3.3% 줄어들었으나, 농경지에 비하면 그 감소폭은 크지 않음
 - 농경지와 임야에 비해 기타의 면적은 1970년에 비해 2009년에는 9.2%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도시용도 즉,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농경지와 임야가 기타용도로 전용되었기 때문임
- 1950년 광복 이래 한국의 경작지는 1969년 약 2,400ha를 기점으로 점차 하락하여 2008년에는 1968년의 약 70% 수준인 1,700ha로 감소하였음
- 경작지 중 논은 1988년 약 1,400ha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조금씩 줄어들어 2008년에는 약 1,000ha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밭은 1968년이 약 1,000ha로 가장 높았으나,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현재에는 약 700ha 수준임

<그림 2-2> 경작지의 변화(1995~2008년)



자료: 한국은행

- 농가구당 경작면적은 1970년 이래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970년에 0.90ha에서 2005년에는 1.37ha로, 4.7ha가 증가하였음

<표 2-8> 농가구당 경작면적의 변화(1970~2005년)

년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면적(ha)	0.90	0.93	0.94	1.02	1.11	1.19	1.32	1.37

자료: 통계청

- 농가구당 경작면적의 크기는 1960년 이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960년에는 농가구당 0.5ha 미만을 경작하는 비율이 40%를 상회했지만, 2005년에는 30% 중반대로 떨어졌음
 - 이에 반해, 3.0ha 이상을 경작하는 비율은 1960년에는 0.3%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7.4%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비록 농가구당 경작면적의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2005년 현재에도 1.5ha 미만을 경작하는 농가구가 전체에서 76.7%나 차지하고 있어 농가구당 경작면적 규모의 대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표 2-9> 농가구당 경작면적 크기의 변화(1960~2005년)

단위: %							
년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0.5ha 미만	42.9	32.6	28.8	27.7	29.3	32.2	36.5
0.5 ~ 1.0ha	30.1	34.2	35.1	31.2	29.3	27.7	26.4
1.0 ~ 1.5ha	20.7	18.5	20.6	20.2	18.0	16.0	13.8
1.5 ~ 2.0ha		8.0	9.0	11.0	10.3	9.6	8.5
2.0 ~ 3.0ha	6.0	5.1	5.1	7.4	8.3	8.3	7.4
3.0ha 초과	0.3	1.5	1.5	2.5	4.8	6.2	7.4

자료: 통계청

3.3. 경제 및 산업

- 다음 <표 2-10>을 통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농업, 임업, 수산업의 종사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 기간 동안 농업, 임업, 수산업의 종사자 수는 무려 42%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 즉, 농업기반의 산업구조가 1970년대 이후의 고도의 경제발전기를 거쳐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된 결과임
 - 2005년 현재 농업, 임업, 수산업의 종사자 수는 1,815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중 8% 남짓한 반면, 서비스업 및 기타가 73%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음

<표 2-10>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1970~2005년)

단위: 천 명, (%)

구분	전체 인구	종사자 수	산업별 종사자 수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1970년	32,241	9,617	4,846(50)	1,377(14)	3,395(36)
1975년	35,281	11,691	5,339(46)	2,235(19)	4,118(35)
1980년	38,124	13,683	4,654(34)	3,079(23)	5,951(43)
1985년	40,806	14,970	3,733(25)	3,659(24)	7,578(51)
1990년	42,869	18,085	3,237(18)	4,990(27)	9,858(55)
1995년	45,093	20,414	2,403(11)	4,844(24)	13,168(65)
2000년	47,008	21,156	2,243(11)	4,310(20)	14,603(69)
2005년	48,138	22,856	1,815(8)	4,251(19)	16,789(73)

자료: 통계청

-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2-11>와 같음
- 도시지역에서는 1970년대에도 서비스업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 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농업, 임업, 수산업은 10% 미만이었음
- 2005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어 도시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에 지나지 않음
 - 농촌지역에서 농업, 임업,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이래 지속적으로 떨어졌으며, 그 하락폭은 34%에 달함

<표 2-11> 도시 및 농촌지역의 산업별 종사자 수의 변화(1970~2005년)

단위: 천 명, (%)

구분	년도	합계	산업별 종사자 수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도시	1970	3,742	278(7)	1,053(28)	2,412(65)
	1975	5,419	368(7)	1,759(32)	3,293(61)
	1980	6,416	280(4)	2,282(36)	3,855(60)
	1995	13,357	368(3)	3,637(27)	9,353(70)
	2000	13,979	325(2)	3,276(24)	10,377(74)
	2005	15,065	315(2)	3,159(21)	11,592(77)
농촌	1970	6,411	4,879(76)	495(8)	1,037(16)
	1975	7,533	5,840(78)	546(7)	1,147(15)
	1980	6,266	4,515(72)	606(10)	1,145(18)
	1995	4,631	2,487(54)	678(14)	1,466(32)
	2000	4,477	2,091(47)	672(15)	1,715(38)
	2005	4,212	1,785(42)	666(16)	1,761(42)

자료: 통계청

- 농촌가구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도시가구의 소득 증가폭이 농촌가구보다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1975년에는 농촌가구의 소득이 도시가구에 비해 11%가 많았으나, 1980년에는 그 양상이 역전되어 도시가구의 소득이 농촌가구를 앞질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2005년에는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농촌가구보다 22%를 상회하고 있음

<표 2-12> 농가구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 변화(1975~2005년)

단위: 천 원

년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도시가구 소득(A)	66	234	424	943	1,911	2,387	3,251
농촌가구 소득(B)	73	224	478	919	1,817	1,923	2,542
비율(B/A)	111%	96%	113%	97%	95%	81%	78%

자료: 통계청

○ 농가구 소득 중 농업인 소득과 비농업인 소득은 198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그 양상은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1985~1990년까지는 농업 소득이 비농업소득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역전되어 비농업소득이 농업소득을 앞지르기 시작함
- 이 같은 추세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비농업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6,863천 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2-13> 농가구 소득 중 농업소득과 비농업소득의 변화(1985~2005년)

단위: 천원

년도	1985	1990	1995	2000	2005
합계(A)	5,736	11,026	21,803	23,072	30,503
농업소득(B)	3,699	6,264	10,469	10,897	11,825
비농업소득(C)	2,037	4,762	11,334	12,175	18,688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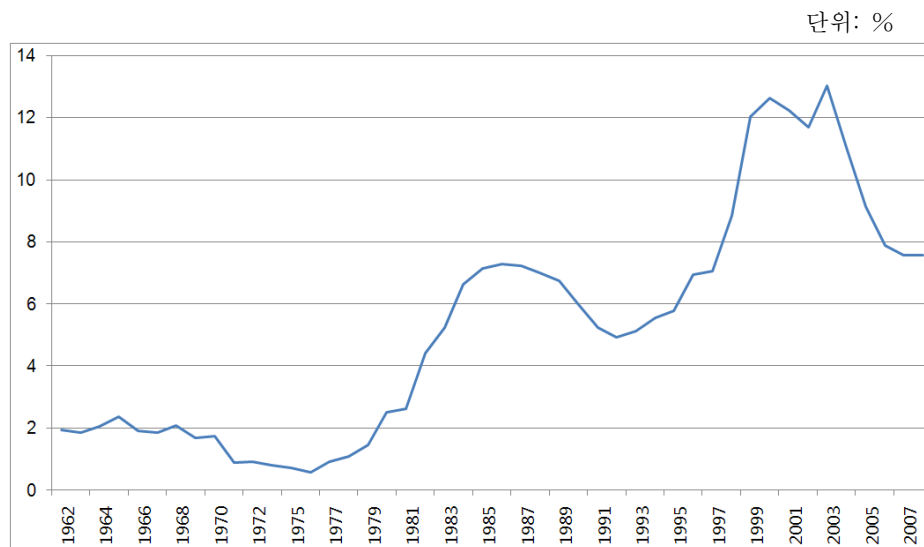
○ 농가구의 농가자산 중 부채의 비중 또한 196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많이 증가하였음

- 크게 보면, 두 차례에 걸친 급등기가 있었는데, 1차 급등기는 1980년대 중반, 2차 급등기는 국가적으로 금융위기가 몰아친 1997년 이후부터

2003년까지임

-2008년 현재는 농가구의 부채가 정점에 달했던 2003년에 비해 약 4%이상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농가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이상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그림 2-3> 농가구의 농가자산 중 부채비중 변화(1962~2008년)



자료: 한국은행

3.4. 종합

- 지금까지 1950년대 이후의 인구 및 가구, 토지이용,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 농촌의 변화에 대해 다양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20세기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농촌이 겪어온 변화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가장 먼저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이로 인한 농촌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들 수 있으며, 농촌의 인구감소는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것이 주

된 원인임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농가인구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농업생산, 농촌의 정주체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음은 주지의 사실임
-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은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보건환경의 질적 개선 등으로 인해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국토면적에서 농경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감소는 도시지역의 증가를 의미함
 - 과거에 비해 농가구당 경작면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기업 중심의 농업생산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경적면적의 대형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농업, 임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농촌가구와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득격차도 1980년대부터 심화되고 있음
 - 농가구의 부채도 과거에 비해서 높은 편이어서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임
- 거시적 관점에서 한국 농촌의 여건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농촌지도의 보급 및 운영체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선결과제임
 - 그 까닭은 농촌지도의 정책 추진방향 및 내용이 농촌의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며, 실제로 한국의 농촌지도 또한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음
 - 한국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인 농촌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 비록 한국의 주요산업이 농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재편되면서 농촌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업과 농촌경쟁력이 약화되어 왔지만,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방안이 농촌지도사업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임

- 다음 장에서는 한국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시기별 그리고 주요추진사업별로 어떤 문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이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업의 정주체계를 어떻게 개선시켜왔는지를 고찰함

제 3 장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

1. 검토방향 및 내용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1950년 이래로 한국에서의 농촌지도사업은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정책 및 농촌지도정책과의 정합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의 세부내용 또한 농업기술, 농촌사회지도, 교육훈련,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역사회개발 등을 망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포괄적인 사업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핵심 내용 중심으로 체계적인 고찰과 정리가 바람직함
 -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일환임을 상기할 때, 농촌지도사업 핵심내용 중심 전개가 개도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주요기능 및 역할은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자원 개발 및 생활개선, 농업인 교육 및 육성으로 압축할 수 있음
 - 이러한 분류체계는 농촌지도사업의 개념에 충실한 것으로 김진모·고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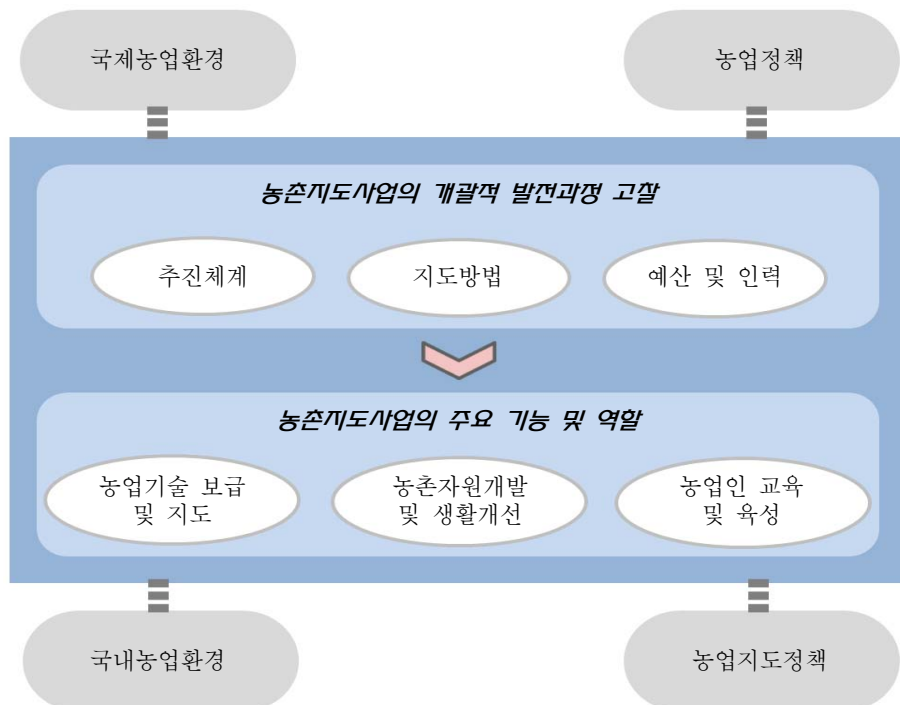
철(2009) 외의 선행연구를 참조한 것임

-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수행 체계는 추진체계, 지도방법, 조직 및 인력으로 유형화가 가능함
 - 이러한 유형화와 논리구조의 작성은 보다 체계적인 역사적 고찰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한국의 경험을 개발도상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내용별 고찰에 앞서 농촌지도사업의 종합적 발전과정을 고찰함
- 그 이유는 거시적 틀에서 한국 농촌지도사업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적 관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아울러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그리고 추진된 정책과 사업이 어떠한 경로, 즉 적합한 수행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은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규범적 관점에서 타당함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개괄적 발달과정은 추진체계, 지도방법, 조직 및 인력이 시대적 변화나 요구사항에 어떻게 대응, 발전해 왔는지를 주요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개괄적 발달과정 고찰 후, 주요 내용별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함³⁾
-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복 이후 최근까지 한국 농촌지도사업 발달과정의 특징과 정책의 주안점 및 효과 등에 대해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 자원개발 및 생활개선, 농업인 교육 및 육성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기능 및 역할별로 자세히 고찰함

3) 한국 농촌지도사업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검토한 선행연구는 농촌진흥청(2008), 농림부(1999)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 원고를 참고하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재정리하였음

- 주요 기능 및 역할별 특징의 일목요연한 정리를 위해 주요시기별로 구분하여 내용을 살펴봄
-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특징 및 발달과정을 고찰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함
 - 60년간 장기적으로 추진되었던 농촌지도사업을 주요 내용별로 구조화하여 고찰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나,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임
 - 따라서 보다 특정한 내용에 있어서는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미흡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축하여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역사적 고찰 혹은 재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내용



2. 추진체계 및 지도방법

2.1. 농촌지도사업의 태동

- 일제시대 청산 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시작된 시기는 1945년 광복 이후 민주적 농사교도사업이 도입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 해는 1947년으로 미국의 농촌지도사업을 본떠 농과대학, 농사시험장, 교도국을 ‘농사개량원’이라는 단일기구에 통합한 이후라고 할 수 있음
 - 농사개량원은 교육, 연구 및 지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이들 기관의 운영은 전적으로 국비에 의존하였음
 - 농사개량원은 1948년 1차 계획으로 시·군 농사교도소장급 150명에 대해서 교도이념과 방법에 관한 강습회를 실시하였으며, 2차 계획으로는 지방에서 교도원으로 활동할 민간지도자 2,400명을 선발하여 훈련하였다.
 - 하지만 농사개량원은 교육, 인력 부족, 국고예산 부족, 미국식 농촌지도이념과 기구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이 발족되었음
- 1949년 1월에는 농사개량원을 폐지하고 시험부와 교도부로 구성된 농업기술원을 새로이 발족시켰음
 - 1950년 6·25전쟁이 발발로 농촌지도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이후 1952년 농촌지도요원제도 구축, 1956년 중앙농업기술원 직제 마련, 1957년 농사교도법 제정 등으로 농촌지도사업은 다시 부활하게 됨
 - 이러한 제도와 조직을 통해 일반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개발위원회 및 수리조합, 협동조합 등에서 다양한 지도사업을 전개하였음

2.2. 시기별 지도사업의 추진체계 및 방법

2.2.1.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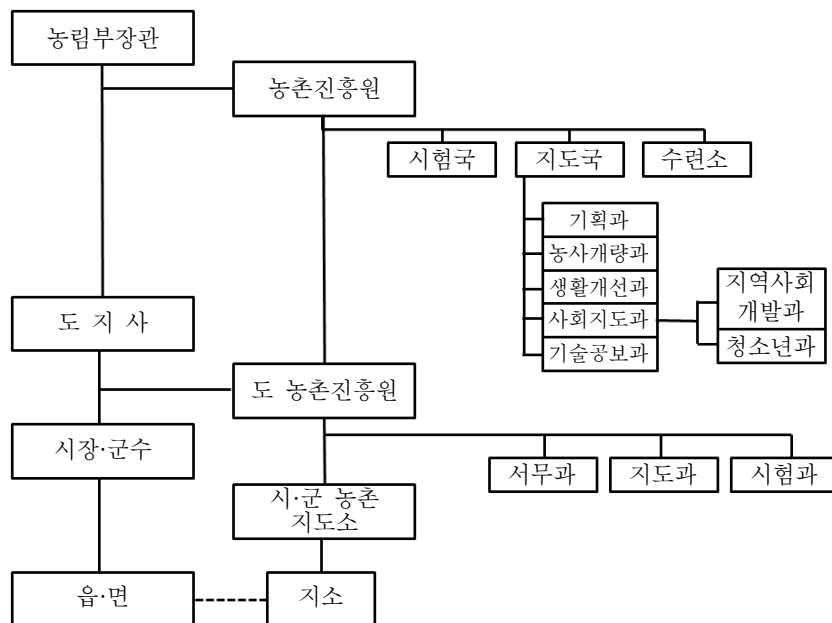
□ 추진체계

- 1962년은 한국 농촌지도사업이 체계를 갖춘 중요한 해이며, 농촌지도체계의 일원화가 이루어졌음
 - 1962년 농촌지도 기능을 일원화시키고 그 기구를 행정기구의 내국이 아닌 외청으로 한다는 최종안을 채택하여 1962년 3월에 농촌진흥법을 공포하였음
 - 농촌진흥법의 특징은 첫째, 농촌지도사업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을 위한 모든 교육사업으로 통칭하고 둘째, 타 기관에서는 지도사업을 할 수 없고, 필요시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셋째, 지방 농촌진흥청기관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외청으로 두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장이 가지는 것이었음
- 1962년 4월 농촌지도사업 전담기구로 농촌진흥청이 발족됨
 -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촌지도체계는 중앙의 농촌진흥청, 도 단위 농촌진흥원, 시단위의 농촌지도소 및 읍·면 단위의 지소 등 네 단계의 조직체계로 구축됨
- 농촌진흥청의 주된 사업은 시험연구사업, 지도사업, 수련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기의 사업에서 담당하는 세부 사업은 다음과 같음
 - 시험사업으로는 농업과 생활 개선을 위한 시험연구, 우량작물 및 종자의 생산, 농업경영 및 농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등임
 - 지도사업은 농업과 생활개선에 관한 과학적 지식 및 기술의 보급, 농촌부업에 관한 기술 및 지식의 보급, 농민교육, 농민조직육성, 시범농촌 건설사업의 조성 등임
 - 수련사업은 연구 및 지도기술업 종사자의 수련, 농림부 산하단체 간부

및 직원의 훈련, 농촌자원지도자의 훈련 등임

- 농촌진흥청의 발족과 더불어 농촌지도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의 지도사업 제한 및 협조체계의 구축을 제도화함
 - 연구·지도공무원의 인사권은 농촌진흥청장에 주어 전문인력 관리와 일관된 사업감독 체계를 확립하였음

<그림 3-2> 농촌진흥청의 구조와 조직체계(1962년)



자료: 농촌진흥청 관련 법률 제1039호

- 1962년 7월에는 도·시·군에 각기 농촌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이는 농촌진흥청 운영에서 각 시·군의 연구 및 지도공무원의 독립성 보장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농촌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촌지도사항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
 - 그러나 지방에 따라 일부 당연직 위원의 참여저조와 운영상황 미비로 1971년 10월에 농업산학협동위원회로 대체됨
- 농협중앙회와의 협조강화를 위한 전략은 1962년부터 시작되었음

- 마을단위에서 학습단체와 이·동조합의 보완적 기능이 정착될 수 있도록 1962년 3월 농협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음
- 협약의 골자는 이·동조합의 영농부와 생활개선부의 간부를 농사개량구락부와 생활개선구락부의 대표 중에서 호선 임명하여 조직상 마찰을 최소화 하였으며, 군지도소와 농협은 주 단위로, 도진흥원과 농협도지부는 월 단위 협의회를 개최하여 일선 기술지도와 생산신용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였음
- 1963년 10월 직제개정으로 시·군 농촌지도소 밑에 3~4개 읍·면 단위로 410개의 지소를 설치하였음
 - 이어서 1964년 3월, 식량자급 생산을 위해 두 개의 지역 작물시험장이 설립되고 지도공무원을 증원함
- 1968년 7월부터 농촌지도사업 쇄신책이 강구되었음
 -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불어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음
 - 이를 위해 주재 지도사와 정착 지도사 제도에 역점을 두고 개별 기술보급에서 복합 기술보급으로, 개별 농가지도에서 주산단지 또는 단위지역 집중지도로 지도방법을 전환하였음

□ 지도방법

- 1960년대 초창기에는 농사원 때부터의 주된 지도방법이었던 각종 전시사업이 주로 시행되었음
 - 농사개량구락부·생활개선구락부·4-H구락부 등 농업인 학습단체를 통한 집단적 접근이 활발하였음
 - 아울러 수도 우량품종전시포에 대한 평가와 담당지도사의 현지연찬회, 사료작물 전시, 생활개선 전시농가 설치와 방문지도 등 시범사업과 각종 강습회 및 연찬회 등의 지도방법이 주종을 이루었음
- 1962년의 농촌지도사업 강화시책에서도 학습단체 조직강화, 농촌진흥시범지역의 설치, 공보활동 등이 강화되었음

- 1963년에는 각종 전시포를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였으며, 중점지도 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 1965년은 식량증산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1,743명의 신규 지도원을 증원하고, 190개 지소를 증설하였음
- 1967년에는 그 동안의 시험성적을 집대성한 <농업기술지도요강> 3종 27만부를 발간, 배부하였고, 1968년에 벼의 집단재배방식을 도입하여 증산요인을 집중 투입하였음
 - 1968년, 지도사업 채신방안의 일환으로 개발 순회지도에서 주재 정착지도로 전환, 주재지도사 247명, 정착지도사(농업인) 432명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음
- 1969년에는 겨울농민교육을 국가계획사업으로 채택하여 발전시켰으며, 1970년에는 ‘전국농촌자원지도자중앙회’의 발족을 계기로 농민회관 건립에 착수하였음

2.2.2. 1970년대

□ 추진체계

- 1970년 4월, 지도국 농사개량과를 기술진흥관실로 승격, 응용영양담당관을 신설하였음
 - 1970년 12월, 직제개정으로 도농촌진흥원의 시험과와 지도과를 시험국, 지도국으로 각각 승격시키고 지도국에는 지도과·기술보급과·농촌사회과를 두었음
- 1971년 12월, 농업계 학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산학협동심의규정을 제정하고 농사연구지도위원회 규정은 폐지하였음
 - 이어서 농고와 농촌지도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 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음
- 1974년 9월, 농업인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농기술훈련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1975년 1월에는 전국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 지소를 설치하였음

- 1976년 12월, 각 도의 농촌진흥원장 및 군 농촌지도소장의 직급 격상과 기술담당관 제도를 신설하였음
- 1977년 4월, 일선지도사의 전문특기화를 촉진함으로써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도능률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촌지도인력 전문특기화규정을 제정하였음
 - 이 규정은 2차에 걸친 개정을 거치면서 1989년 1월 폐지하기 전까지 지도인력의 자질향상과 인력관리에 큰 영향을 주었음
- 1978년 9월에는 일선에서 근무하는 지도사들이 문서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현장의 대농업인 접촉지도가 소홀히 되고 있어 농촌지도소 지소 문서간 소화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음
 - 이 지침으로 문서업무를 최소화하고 지소 본래의 취지에 맞는 농업인 지도에만 전념토록 하였음

□ 지도방법

- 1973년부터는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통일벼 확대보급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역량을 총동원한 시기임
 - 1974년 작목별 표준영농교본 12종 191천 부를 발간·배부하였으며, 1979년부터는 영농상 문제해결을 신속히 하기 위해 영농질의 회신카드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음
- 1977년에는 국무총리의 지시에 의거 그 해 각 기관 단체별로 육성하는 농업인단체의 일원화를 기하여 농사개량구락부가 새마을영농회로, 생활개선구락부가 생활개선부로 통합, 개칭되었음
- 1978년에는 기계이양 시범단지 88개소를 설치하고, 홍보용 교재로 농촌진흥사업, 녹색혁명의 발자취 등을 슬라이드 제작, 본격 활용하였음

2.2.3. 1980년대

□ 추진체계

- 1985년 12월을 기점으로 농촌지도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도공무원 7,976명에 대하여 지도관과 지도사별로 단일 호봉제를 실시하였음

<표 3-1>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조정 내역(1986년 1월 현재)

구분	종전								개정		
	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지도관	지도사
계	7,976	9	161	240	1,678	2,362	1,657	1,869	7,976	413	7,563
중앙	102	-	12	35	38	15	2	-	102	50	52
도원	226	9	8	26	120	59	1	3	226	43	183
시군	3,328	-	141	179	702	1,248	737	321	3,328	320	3,008
지소	4,320	-	-	-	818	1,040	917	1,545	4,320	-	4,320

- 1989년은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대변혁을 가져온 해임
 - 군단위 농촌지도소에 과를 신설하고 지소를 통하는 등 농촌지도기구의 전면적 개편을 단행하였음
 - 농촌여건의 변화와 농업인의 지도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 치중한 것에서 탈피하여 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 경제작물에 대한 지도와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체제로 전환하게 됨
- 1989년 4월, 전국 읍·면에 설치되어 있던 1,461개 읍·면 지소를 특별시 및 군 농촌지도소로 통폐합하고 동년 11월에는 도농촌진흥원에 생활지도를 신설하고 군 농촌지도소에는 기술담당관을 폐지하였음

□ 지도방법

- 1980년대에는 식량작물 및 소득작목에 관한 품종비교전시포를 설치하여 농

업인이 비교 관찰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강화, 특히 농가소득 작목개발에 지도의 초점을 두기 시작함

- 또한 각종 표본과 시청각자료 등을 확보하여 전시와 상담지도에 힘을 쏟은 시기임
- 1982년에는 4,769명의 농촌지도자를 명예지도사로 위촉하여 협력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회원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음
- 1983년부터는 복합영농기술보급의 확산을 위하여 복합영농시범지역을 지정, 지도하였는데, 이는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였음
- 앞서 언급하였듯이, 1989년은 한국 농촌지도사업 추진체제에 대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지도방법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를 겪음
 -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이 식량의 자금자족을 위한 증산중심의 조도사업에 치중한 데서 탈피하여 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 농가소득이 높은 경제작물에 대한 지도에 역점을 두었음
 - 아울러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체제로 전환해 기반을 확고히 하였음

2.2.4. 1990년대

□ 추진체계

- 1991년 2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설치 및 연구·지도직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농촌진흥기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 직할시와 도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각각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됨
 - 급작스런 지소 철폐로 인한 농민 소외감을 경감시키고 전문지도와 일선 지도의 조화로운 추진을 위해 읍·면 지소에 1명씩의 중견지도사를 배치하여 상담소를 운영하였고, 1992년에는 이를 직제화하면서 농촌지도소

의 직제를 12개의 계에서 8~9개 계로 축소하였음

- 1994년부터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 대책이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1994년은 한국 농촌지도사업 체계의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한 해였음
 - 1994년 3월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둘 경우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동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농촌진흥공무원 179명을 제외한 9,996명에 대하여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7년 1월 1일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화시대를 위한 법령개정 및 제정이 진행되었음
- 지방직으로 전환 후 시·군 농촌지도소에 여러 가지 조직적 변화가 생김
 - 과의 명칭 개정과 수적 감소, 일부 시에서 행정과의 통합, 천안과 금산 등 일부 시에서 배, 포도, 인삼 등의 연구실을 신설하기도 하였음
- 1998년 8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이 단행되어 농촌진흥원을 시험연구기능과 기술보급기능으로 특성화함
 - 농촌지도소는 본청이 일반 농업행정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여 기술개발·보급 중심으로 특성화하는 지침이 마련됨
- 1998년 8월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농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특성화하기 위하여 도 단위의 농촌진흥원은 농업기술원으로, 시·군 단위의 농촌지도소는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을 개정하였음
- 지금까지 살펴본 농촌지도 공무원의 지방조직 개편상의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 3-2>와 같으며, 1·2차 지방농촌지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및 기구의 변화는 다음<표 3-3>와 같음

<표 3-2> 지방조직 개편 추진과정

일자	제목	주요내용
1998. 6. 9	지방조직개혁의 기본방향 시달	• 농촌진흥원, 지도소의 시험연구기능은 특성화, 기타 지도기능은 본청기구와 통폐합 일원화 • 광역시, 일반시의 농촌지도소는 단계적으로 인접 지역에 흡수 통합
1998. 6. 18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	• 농촌진흥원: 시험연구기능과 기술개발보급기능의 특성화, 본청의 일반 농업관련 조직과의 기능 일원화 • 농촌지도소: 본청의 일반 농업행정 조직과 기능 일반화, 기술 개발보급 중심으로 지역 특성화
1998. 7. 14	지방조직개편지침 보완사항 시달	• 지도직은 지역특화 농업의 급격한 위축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축 • 가급적 군의 경우 농촌지도소 중심으로 통합이 바람직
1998. 8. 20	차관회의	• 관련법령 즉석 안건으로 처리
1998. 8. 25	국무회의	• 관계법령 원안 의결
1998. 8. 28	기구정원규정 개정 시행지침 시달	• 농촌진흥기구의 명칭 개정 -농촌진흥원 → 농업기술원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 • 도원 국가직 27명 존치(도당 3명)
1998. 8. 31	관련법령 공포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75호) • 지방자치단체의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5876호)

<표 3-3> 1·2차 지방 농촌지도조직 개편결과

구분	개편 전	1차조정 후(1998)	2차조정 후(1999)	비고
정원	계	6,699	5,460	△1,617명(24%)
	지도관	565	466	△110명(19.5%)
	지도사	6,134	4,994	△1,507명(24.6%)
기구	농업기술센터	161	157	△4개소(2.5%)
	농업인 상담소	1,429	534	△902개소(63.1%)
	지구지소	11	36	△2개소(18.2%)

□ 지도방법

- 1994년부터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화 대책이 강구되고 아울러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부응한 기술농업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증연구와 기술보급 및 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 개발센터로 육성하기 시작하였음
 - 1995년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의거 시·군 단위의 농업관련기관·단체 간 협력체계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단위의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과학기술 개발과 효율적 보급, 지역농업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한편, 지역농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여 지역농업개발 과제를 선정, 개발하게끔 하였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관·단체와의 협력을 도모하였음
- 1996년 농촌지도 공무원의 지방화가 이루어져 지도공무원 정원 18%(1,240명)가 감소하고 각급 기관별 구조조정으로 기구도 축소되었음
 - 1998년에 농업기술분야의 전문기술 지도활동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기구의 명칭을 개정, 특히 일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였음
 - 한편, 지도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지방화에 따른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기술지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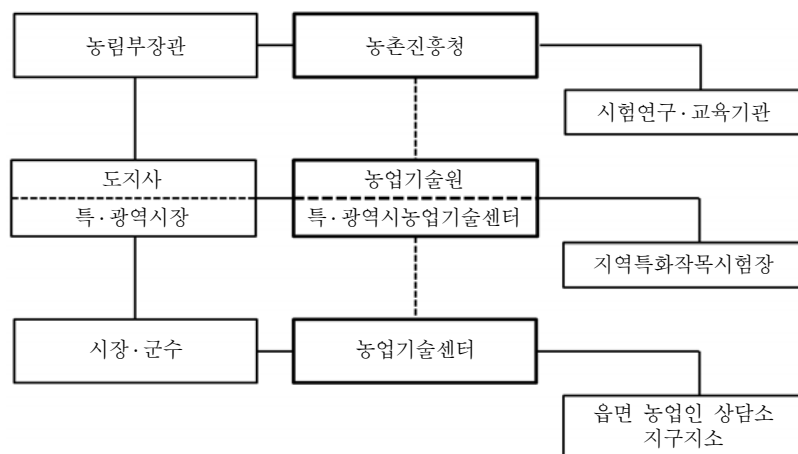
2.2.5. 2000년대 이후

□ 추진체계

- 2000년 2단계 2차 구조조정과 2001년도 3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157개로 유지하였으나 농업인 상담소는 456개소로 감축되었고 농촌지도인력은 2001년 4,863명으로 3회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총 1,836명이 감축되었음

- 2003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기술센터가 증평군과 계룡시의 개청으로 증가하였음
 - 아울러 2004년 1월에는 안산시농업기술보급소가 농업기술센터로 승격되어 전국의 농업기술센터는 160개로 늘어났음
-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고 농촌진흥청이 발족된 이래 농촌지도사업 체계와 관련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기별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와 같은 변화과정을 통해 확립된 현재의 농촌지도의 추진체계는 <그림 3-3>과 같음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체계는 중앙단위에 농림부 소속의 독립적 외청인 농촌진흥청, 도단위에 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 시·군 단위는 시장·군수 소속의 시군농업기술센터(읍면농업인상담소)가 구성된 체계로서, 1962년 농촌진흥법이 제정되고 농촌진흥청이 발족된 이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기술과 소득원을 지역의 농업·농촌현장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가공·설계하여 보급하는 체계임

<그림 3-3> 농촌지도의 추진체계



자료: 농촌진흥청, 2007, 9.49

- 또한 지역농업을 기술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 등 지역농업의 성장동력원을 개발, 발굴,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농업·농촌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도방법

- 지방화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농촌지도인력의 감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농촌지도기관에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여 정부의 실업난 해소에 기여함과 동시에 첨단농업기술의 신속한 농가보급과 농촌현장의 애로기술을 조기에 해결하게 되었음
 - 대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 및 지역농업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공공근로사업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변경, 추진하였음
- 2001년 말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인력감축과 행정업무의 수행 등으로 약화된 현장 농촌지도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중앙의 모든 전문인력 1,481명을 전공분야, 출신지 등을 고려하여 157개 반으로 편성하여 시·군컨설팅지원반을 운영하였음
 - 시·군컨설팅 지원반은 농업인의 기술·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의 운영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기술을 직접 현장에 접목하여 실용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당면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사례를 수집, 확산, 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 2002년부터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문지도연구회, 벼 생육상황, 병해충발생상황, 향토음식, 농촌생활정보, 농촌전통 테마마을 등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새로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으며, 분야별 홈페이지를 확충하고 있음
-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과학시설과 장비확보, 농업인 시범사업과 지역특화작목 개발사업, 현장애로기술 개발사업, 농산물부가가치 향상사업, 수출

작목의 육성사업,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업인 조직육성사업 등에도 기술과 예산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성과제고를 도모하고 있음

2.3. 농촌지도사업의 인력 및 예산의 변화

□ 인력 확보

- 농촌지도공무원의 임용제도는 그 임무의 전문성을 고려, 1957년 공포된 농사교도법 제6조에 의거 제도적으로 확립되었음
- 농사원에서는 1957년 9월 농사교도공무원 자격검정시험을 처음으로 시행하여 348명을 선발하였으며, 중앙에 42명, 도농사원에 139명, 시·군교도소에 167명을 배치하였음
- 1961년에는 농사교도원이 1,444명으로 늘어났으며 그 중 63명은 중앙에, 151명은 도원에, 그리고 시·군에 1,230명이 배치되었는데, 학력은 47%가 전문학교 이상의 졸업자였음
 - 한편, 지역사회개발사업을 보면, 1958년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가 발족되어 경기도 광주군 등 5개의 12개 부락을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도요원 25명을 선발하여 배치하였음
 - 그 후 시범부락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 지도원의 수도 늘어 1961년에는 389명에 달하였음
- 농사교도사업과 지역사회개발사업, 그리고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 이후의 농촌지도사업의 인력은 다음 <표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차 증가되어 왔으며, 일선 지도인력의 신장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음
 - 1961년까지는 대략 1,000명이었다가 1962년 농촌지도체계가 일원화 이후 3,000명으로 늘었고, 1965년부터 식량증산 7개년계획이 착수되면서 6,500명이 넘었고 가장 많은 때는 1981년부터 1991년까지로 7,979명을 유지하였음

<표 3-4> 농촌지도인력 추세

단위: 인

연도	계	중앙	도	시군			비고
				소계	본소	지소	
1957	952	82	177	693	693	-	-지소 설치
1960	1,192	82	155	955	955	-	
1962	3,173	75	180	2,918	2,918	-	
1964	4,790	71	210	4,509	2,017	2,492	-통일증산요원 1,642명 포함 (1972년 이후 채용) -통일증산요원 정규화 1,095명
1965	6,534	72	242	6,220	2,683	3,537	
1970	6,360	73	236	6,051	2,882	3,169	
1975	7,626	82	226	7,318	2,667	4,651	-지소폐지(지구지소 289, 시장 담소 109) -연구직 이체 915명 -제주도원 1명 감축 -연구직 이체 89명 -도농통합 121명 감축 -중앙 1명 감축 -중앙 3명 감축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1차 구조조정 -2단계 2차 구조조정 -2단계 3차 구조조정 -신설센터 14명 증원
1977	7,628	84	226	7,318	2,667	4,651	
1980	7,980	106	226	7,648	2,997	4,651	
1981	7,979	105	226	7,648	2,997	4,651	
1983	7,979	105	226	7,648	3,183	4,465	
1984	7,979	105	226	7,648	3,198	4,450	
1985	7,979	105	226	7,648	3,198	4,320	
1987	7,979	105	226	7,648	3,229	4,419	
1988	7,979	105	226	7,648	3,274	4,374	
1989	7,979	105	226	7,648	7,250	398	
1990	7,979	105	290	7,584	7,295	289	-농촌지원국 1개과 신설 -농촌지원국 1명 증원 -기술지원국 10명 증원
1991	7,979	105	290	7,584	7,290	294	
1992	7,964	105	290	6,669	6,375	294	
1993	7,063	105	289	6,669	6,375	294	
1995	6,843	95	289	6,459	6,346	113	
1996	6,842	94	289	6,459	6,395	64	
1997	6,839	91	289	6,459	6,399	60	
1998	5,545	85	241	5,219	5,159	60	
1999	5,153	71	234	4,848	4,821	27	
2000	5,032	71	235	4,726	4,700	26	
2001	4,863	71	226	4,566	4,548	18	
2002	4,728	71	228	4,429	4,411	18	
2003	4,738	71	227	4,440	4,393	47	
2004	4,901	71	240	4,590	4,528	62	
2005	4,906	71	241	4,594	4,514	80	
2006	4,919	80	242	4,597	4,516	81	
2007	4,885	81	247	4,557	4,461	96	
2008	4,742	91	239	4,412	4,555	96	
2009	4,613	91	232	4,290	3,471	819	
2010	4,497	88	234	4,263			

자료: 농촌진흥청

- 그 후 정부차원의 구조조정과 지방화 등으로 인력이 감소하여 2009년 현재는 4,497명으로 감소하였음
- 농촌지도공무원의 임용제도는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 이후 별도의 규정 없이 공무원임용령에 포함되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특별채용의 경우에 한하여 농과계 학교 출신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었음
 - 신규 임용자는 고졸 출신이 많아져 1965년 48%를 점하던 대졸 중견지도원들의 수는 약 1,000명이 줄어 1977년에는 25%로 감소하였음
 - 하지만 2004년 현재 4년제 대졸이상은 71%에 달하고 있음
- 한편, 농촌지도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경주해 왔음
 - 농촌진흥청은 1977년 4월 “농촌지도인력 전문·특기화 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4급 이하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화와 특기화를 촉진함으로써, 자질향상과 지도능력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음
 - 1984년에는 ‘농촌지도인력 전문특기화 규정’훈령을 개정하였고, 1989년에는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특기화 규정을 재개정하여 모든 지도사가 담당업무 관련 1개 분야의 전문특기와 부특기를 갖도록 제도화하였음
 - 이밖에도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982년부터 1989년까지 대학졸업자를 특별 채용하였고, 신규지도사의 실기능력 향상을 위하여 1985년에는 시험장, 연구소에서 20주간의 장기연수교육을 시도하였으며, 1988년부터는 30대의 대졸 지도사를 대상으로 2년간의 시험장, 연구소 장기과견연수를 3기에 걸쳐 1992년까지 실시한 바 있음
 - 전문지도연구회는 1998년 3월에 27개 연구회에 764명을 결성하였으며, 1999년에는 42개 연구회 1,648명으로 조직을 확대하였음
 - 또한, 농촌지도공무원에 대한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케 하여 전문지도 능력의 향상과 자공의 고취를 꾀하였음
 -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관리자의 전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장에 대한 연례적인 해외연수를 1968년부터 실시하였고, 2001년에는 21세기 지식·농업시대의 우수한 지도공무원을 선발하고 시상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림으로써, 사기진작과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촌지도대상’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예산 운영

○ 농촌지도사업의 예산 운영은 크게 다섯 가지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예산 운영의 다섯 기간은 농촌진흥청 발족 이전(1962년 이전), 정규 농촌지도사업의 초창기(1962~1970년), 녹색혁명 성취와 농가소득의 내실화기(1971~1980년), 농촌지도사업 전환 및 수입개방 대응기(1981~1990년), 그리고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1991년 이후)임

○ 농촌진흥청 발족 이전(1962년 이전)

-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된 농사교도사업이나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초기에는 그 재원을 주로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였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개원할 때까지 농촌지도사업비의 주요 재원은 경제개발특별회계였고, 예산집행계획은 미국과 협의를 거쳐야만 했으며, 국내예산은 지방비 없이 전적으로 국비에만 의존하였음
- 1962년 농촌진흥청이 발족하면서 경제개발특별회계의 비중이 줄기 시작하였으며, 지방비가 농촌진흥사업에 상당부분 투입되었음

○ 정규 농촌지도사업의 초창기(1962~1970년)

- 1960년대에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의 조성기로 식량작물의 품종 육성과 재배법개선에 심혈을 기울였음
- 농촌지도사업은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농업인에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토양개량사업, 식량작물 전시사업 등에 역점을 둠
- 1963년부터 1976년까지 경제개발특별회계와 일반회계 등 2개의 회계에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는 일반행정비와 관리비가 편성되었고 농촌지도사업비는 연구사업비와 함께 주로 경제개발특별회계에 편성되었음
- 농촌지도사업비는 1964년에 280,514백만 원으로 매년 18~20% 증액되

었으며, 식량증산을 위한 일선 농촌지도시설, 농업인 훈련시설, 지도 장비 보강, 농토배양, 식량작물 전시사업 등에 1957년부터 1970년까지 매년 평균 26% 정도씩 증액되었음

○ 녹색혁명 성취와 농가소득의 내실화기(1971~1980년)

- 1970년부터 1980년까지는 농촌진흥사업에 있어서 식량증산을 위한 녹색혁명 성취기로, 1969년에 개발한 통일벼를 1971년부터 농가에 시범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통일벼 재배기술 보급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음
-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농촌지도 사업비는 1964년에 비하여 1980년에 약 26배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비의 비중은 같은 기간 47%에서 78%로 크게 증가하였음

○ 농촌지도사업 전환 및 수입개방 대응기(1981~1990년)

- 198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의 신장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와 국내적으로는 도농 간 소득격차, 농촌노동력의 절대부족 등 전환기 농업에 부응할 수 있는 지도연구체제로 전환하였음
- 이를 위해 첨단기술 및 성장 가능한 작목의 개발과 기술보급분야에 대한 예산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되었음
- 아울러 1989년부터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역점을 두어 국비 및 지방비 보조와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부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였음

○ 농산물 수입개방화 시대(1991년 이후)

- 1990년대에 접어들어 이제까지 완만한 증가를 보이던 농촌진흥분야의 예산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의한 WTO 체제 출범에 따라, 기술만이 생존할 수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농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 물결에 대응하고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작목별로 기술적 대응방안을 세우고 농업기술 혁신을 통한 개방화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농촌지도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 1991년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31%가 증가되었고, 1995년에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예산편성으로 국비 35%가 증가, 지도사업 전체 예산도 54%라는 대폭적인 증가추세가 이어지다가 1997년도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로 증가율은 6%로 둔화되었음
- 1999년도에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과학영농서비스강화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 및 실증시험포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였음
- 2003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폐지로 인하여 2002년도에 20억 원이던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감액되었으나 이를 일반사업으로 전환,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음

<표 3-5> 중앙과 지방의 농촌지도사업비 부담

단위: 백만 원

연도	합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계
1963	190	190(100.0)	-	-	-
1964	528	281(54.2)	27(5.2)	220(41.6)	247(46.8)
1965	589	284(48.2)	49(8.3)	256(43.5)	305(51.8)
1966	685	228(33.3)	93(13.6)	364(53.1)	457(88.7)
1967	937	312(33.3)	145(15.4)	480(51.3)	625(66.7)
1968	1,115	442(39.6)	148(13.3)	525(47.1)	673(60.4)
1969	1,685	544(32.3)	307(18.2)	834(49.5)	1,141(67.7)
1970	1,671	593(35.5)	274(16.4)	804(49.5)	1,078(64.5)
1971	2,521	830(32.9)	381(15.2)	804(48.1)	1,691(67.1)
1972	2,417	403(16.7)	366(15.2)	1,310(51.9)	2,014(83.3)
1973	3,172	1,033(32.6)	366(11.6)	1,648(68.1)	2,139(67.4)
1974	4,357	1,602(36.8)	442(10.1)	1,773(55.8)	2,755(63.2)
1975	6,313	2,526(40.0)	511(8.1)	2,313(53.1)	3,787(60.0)
1976	8,386	3,563(42.5)	560(6.7)	3,276(51.9)	4,823(57.5)
1977	8,341	1,949(23.4)	571(6.8)	4,263(50.8)	6,392(76.6)

1978	10,187	2,527(24.8)	480(4.7)	7,180(70.5)	7,660(75.2)
1979	12,215	2,499(20.5)	962(7.9)	8,754(71.6)	9,716(79.5)
1980	13,661	2,913(21.3)	1,085(8.0)	9,663(70.7)	10,748(78.5)
1981	17,523	2,781(15.9)	2,023(11.5)	12,719(72.6)	14,742(84.1)
1982	21,893	4,541(20.8)	1,628(7.4)	15,724(71.8)	17,352(79.2)
1983	21,932	4,132(18.8)	1,396(6.4)	16,404(74.8)	17,800(81.2)
1984	25,558	4,077(16.0)	1,724(6.7)	19,757(77.3)	21,481(84.0)
1985	26,747	4,895(18.3)	1,482(5.5)	20,370(76.2)	21,852(81.7)
1986	35,374	4,819(13.6)	1,992(5.6)	28,563(80.8)	30,555(86.4)
1987	43,426	6,228(14.3)	3,795(8.7)	33,403(77.0)	37,198(85.7)
1988	51,279	6,731(13.1)	4,887(9.5)	39,661(77.4)	44,548(86.9)
1989	69,173	7,759(11.2)	8,653(12.5)	52,761(76.3)	61,414(88.8)
1990	86,183	8,797(9.9)	10,537(11.8)	69,849(78.3)	60,368(90.1)
1991	112,735	11,897(10.6)	12,838(11.4)	88,000(78.0)	100,838(89.4)
1992	144,647	13,216(9.1)	15,811(10.9)	115,620(80.0)	131,431(90.8)
1993	112,386	15,812(14.0)	14,338(12.8)	82,236(73.2)	96,574(86.0)
1994	159,693	18,338(11.5)	28,131(17.6)	113,224(70.9)	141,355(88.5)
1995	246,898	92,604(37.5)	31,560(12.8)	122,734(49.7)	154,294(62.5)
1996	268,234	90,453(33.7)	39,188(14.6)	138,593(51.7)	177,781(66.3)
1997	284,636	94,954(33.4)	43,625(15.3)	146,057(51.3)	189,682(66.6)
1998	263,918	82,177(31.2)	36,816(13.9)	144,925(54.9)	181,741(68.0)
1999	258,615	91,173(35.3)	36,681(14.2)	130,761(50.5)	167,442(64.7)
2000	258,672	86,426(33.4)	31,516(12.2)	140,730(54.4)	172,246(66.6)
2001	448,475	78,229(17.4)	39,437(8.8)	330,809(73.8)	370,246(82.6)
2002	489,988	65,266(13.3)	71,108(14.5)	353,614(72.2)	424,722(86.7)
2003	438,610	73,384(16.7)	46,733(10.7)	318,493(72.6)	365,226(83.3)
2004	438,610	73,384(16.7)	-	-	365,226(83.3)
2005	308,032	82,099(26.7)	-	-	225,933(73.3)
2006	376,126	80,081(21.3)	-	-	296,045(78.7)
2007	458,165	83,041(18.1)	-	-	375,124(81.9)
2008	467,140	89,741(19.2)	-	-	377,399(80.8)
2009	480,166	96,254(20.0)	-	-	383,912(80.0)
2010	582,910	116,582(20.0)	-	-	466,328(80.0)

자료: 농촌진흥청

주: 농업경영 및 농기계 훈련분야 지도사업 예산이 포함된 금액임
최근 농업행정과 통합시·군 증가로 지방비 예산 산정이 어려움

3. 주요 추진내용별 발달과정

3.1.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주된 목표였으며, 농업기술의 보급을 위한 교육은 농가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농업인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교육 방안이 되어왔음
 - 따라서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지도사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사업이었음
- 여기서는 한국 농업기술보급사업의 발전과정을 시기에 따라 총 여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함

3.1.1. 기술보급사업 초창기(1957~1961년)

- 기술보급사업 초창기에는 토양개량과 비료효과 전시 등 개량기술의 적용을 통해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며, 강제적 독려식 지도가 아닌, 책자 배부, 강습회, 현장 평가회 등의 농민참여형 방법으로 농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 맥류와 콩에 대하여 석회시용을 통한 토양개량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맥류전시포와 대두전시포를 연차별로 증설하여 석회시용 효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킴
 - 벼농사 개량사업으로는 종자 갱신을 위한 품종전시와 보온절충못자리에 의한 건묘육성, 그리고 보온밭못자리 등이 권장되었음
 - 우량품종전시포와 보온절충못자리 전시포는 매년 증설되어 1958년에 우량품종전시포는 6~9%의 증수효과를 거두었으며, 보온절충못자리 전시포는 25%의 증수 가능성을 실증하였음

- 또한 유안 전충시비전시포는 8% 증수효과를 나타냈으며, 지력배양을 위한 가을갈이와 객토 등의 기술이 보급·권장되었음
- 감자, 고구마에 대한 인산, 칼리 비료전시포와 채소 품종전시포를 농가 포장에 만들어 실물로 지도하고 새로운 농약의 사용법을 연시 지도함
- 효과적인 개간법과 토양보전은 식량생산 기반확충에 중요한 일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 다양한 지도활동이 이루어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음
 - 1959년에는 등고선 초생대에 의한 개간전시포를 1,500개소 설치하여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두과작물을 심어 지력배양 방법을 지도하였음
 - 1960년에는 경사도 10%가 넘는 곳에 82개소의 전시포를 설치, 표토 유실을 90%이상 방지하면서도 43% 이상의 작물을 증수하는 성과를 거둠
- 용지용수사업으로는 시·군별 1개소씩의 연료림 조성과 유휴지의 계단식개간이 이루어졌으며, 키다리병 방제와 깜부기병 방제를 위한 종자소독 연시 지도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둠
 - 그 외 유독성 농약의 사용법, 돼지의 거세법, 토굴사일로 축조법 등 연시지도는 과학적인 이론을 기초로 한 친절한 지도방법이 독농가층의 신임을 받게되어 농사개량사업의 발판을 하나하나 굳혀 가는데 좋은 계기가 됨
- 영농기술, 비료 상식, 농약 사용법 등 단편적이지만 새로운 영농지식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부락순회 야간교육의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는 훗날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화하여 운영한 농사개량구락부의 모태가 되었음
- 농사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는 1957년 7월 농사원이 발족되었으며, 전담부서가 중앙 및 도 농사원에 신설, 전담인력이 배치되었으나 기술적 차원에서 사업 수행에 부족한 점이 많았음
 - 따라서 초기에는 미 고문단을 중심으로 지도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교육행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기술과목 외에도 지도사업의 원리와 기본이념, 지도방법 등 주로 기초 소양교육에 치중하였음
- 훈련방법으로서는 ‘한 번에 한 과제’ 원칙이 철칙처럼 지켜졌고, 학급원은

20명 이내로 실습을 원칙으로 하였음

- 교육은 실기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교재는 열악한 수준이었으나, 강사는 해당 교재를 토대로 차근차근 강의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실기를 연시 하였으며, 연시 후에는 4~5명이 조를 구성하여 실기를 반복 연습하고, 강사진은 이에 대한 지적 및 사후 평가를 수행하였음
 - 이러한 실기에 치중한 집중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들은 선진기술을 몸소 체득하였으며, 철저한 실기교육이 축적됨으로서 전 지도원의 자질 또한 크게 향상되었음
- 기술보급사업 초창기는 전술한 사회적 인식 부족, 열악한 사업수행 여건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철저한 지도사업 교육과 기술훈련을 통해 육성된 지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에 힘입어, 효과적인 기술보급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농사개량사업의 거점을 확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3.1.2. 기술보급사업 기반구축기(1962~1970년)

- 1962년 농촌진흥청으로 농촌지도기능이 통합됨으로서 농사개량사업은 그 범위가 넓어짐
- 벼농사에 있어서는 종래의 단요인 기술전시포 대신, 각종 증수요인을 종합한 다수확 전시포사업이 196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개별재배 방식에서 집단재배 방식이 보급되면서 큰 성과를 거둠
 - 1965년부터는 건답직파, 고랭지 조기재배, 중부 1모작지의 조식재배, 남부 2모작지 만식에 대비한 조파육묘, 습답 및 근부패답에 사점전진식 이앙법이 권장됨
 - 1966년부터는 지역별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단요인과 복합요인을 투입한 다수확재배 전시를 하다가 1968년에 미곡증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이미 일본에서 그 효과가 실증된 수도집단재배단지를 전국에 500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개별재배를 해 오던 농민들이 생산협동을 하게 된 효시가 됨

- 벼 집단재배는 단계별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성실히 운영되어 5ha 규모의 단지수량은 전년 대비 23.3%의 증수를 가져왔고 종자소독, 묘판 설치, 이앙, 병해충방제 등 기간 농작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경영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둠
- 집단재배는 품종과 재배기술을 통일하고 공동작업을 함으로써, 고단수로 평준화하고 생산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이 같은 방식은 기계화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됨
- 벼 병해충 발생예찰 및 방제사업은 196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년부터는 맥류에 대한 예찰도 병행함
 - 작물보호사업으로 추진된 쥐잡기 사업은 1961년부터 전시부락을 두었고 이때부터 1971년까지 연례행사로 쥐잡기사업을 함
- 토양간이검정을 통하여 산성토양개량을 위한 석회공급시책을 뒷받침하였으며, 비료전시포를 통한 3요소 균형시비의 필요성, 객토, 퇴비증시, 배수개선 등을 통한 지력증진의 필요성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음
 - 1964년에 계단식 개간지도를 개소당 40ha 규모로 전국 171개소에 한미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1975년부터 실시된 식량증산 제1차 7개년계획기간 중 39만ha의 면적을 개간(개간가능면적 50만ha)하였고, 시범포는 시범교육장으로 활용됨
- 맥류 다수확재배 전시사업은 대맥, 과맥, 밀을 함께 취급해오다가 1969년부터 3년간은 신품종 밀 보급을 위해 밀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수행함
- 1966년부터 보리의 광과재배와 이식재배, 콩의 이식적심재배법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옥수수는 1963년부터 복교잡종 옥수수가 시범 보급되기 시작함
 - 또 고구마 수원 147호와 옥수수의 복교잡종 황옥 1, 2호를 전시 지도하였고, 감자는 신품종전시사업만 계속하다가 1969년부터 경지이용도 증진을 위해 답전작 감자유아재배가 대대적으로 시범 보급됨
 - 그리고 전시방법도 1965년까지 우량품종을 중심으로 한 단요인 전시와 다수확 전시를 하다가 1966년부터는 작물별로 몇 가지씩 지역특성을 감안한 단요인과 이들 요인을 2~3개 조합한 복합요인 전시를 함

- 벼농사에 이어 맥류는 1969년부터, 콩과 옥수수는 1970년부터 집단재배 단지를 조성하여 종합적인 기술전시로 농민교육에 활용함
- 1964년부터 원예작물과 특용작물 19개 작목에 대한 재배법 전시사업을 시작함
 - 과채류에 대한 육묘법의 개량전시를 하였으며 주로 비료효과 전시를 중심으로 우량품종의 중요도와 석회시용의 효과를 인식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음
 - 과수에서도 우량품종의 전시 및 보급이 주요과제가 되었는데, 사과, 배, 복숭아, 단감의 주산지가 조성되었으며, 사과의 후지와 쓰가루, 배의 신고품종이 소비자의 선풍적인 호응 속에 급속히 보급됨
 - 과수재배기술에 있어서는 1969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기술이 포도재배에 처음 적용된 후,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과수의 장기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는 기업형태로 먼저 보급이 됨
- 특작분야에 있어서는 1959년부터 참깨를 중심으로 땅콩, 유채의 신품종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1963년 약초가 농촌진흥청 업무로 이관되면서 당귀, 길경(도라지) 등 약초와 아마, 저마, 완초, 대마, 면화 등의 특용작물의 시범사업도 추진됨
- 잠엽 관련하여서는 1962년 잠엽증산 5개년계획(1962~1976년)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뽕밭 면적 30ha의 양잠단지를 1개 지구로 묶어 2,464개 잠엽 특설지구가 설정되었으며, 상전 1단보 갖기 운동이 전개되었음
- 1967년 농업기술연구소 균이과가 신설되면서 전국 180개소의 양송이 시범사업이 실시되어 연구와 기술보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함
- 축산분야에서는 6·25전쟁 이후 황폐화된 축산기반의 재구축을 목표로 정부의 축산관련 용자가 크게 증가하였음
 -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초지법 등 각종 제도의 개발·시행에 따라 양축농가 및 4-H회원을 중심으로 한 토끼 모피가공법, 기생충 구제요령 등의 연시지도와 초식가축 사육과 청예사료작물 재배 및 담근먹이 조제법 등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기술지도가 전개됨

- 임업도 1960년대 초까지는 지도기관이 담당이었음
 - 농사원 시절부터 밤·호두·감·은행·대추 등 유실수와 오동나무·옻나무·개량포플러·아카시아 등 특수용재 나무의 보급업무를 담당함
 - 특히 1964년부터는 밤나무 흑별에 대한 내충성품종의 접목육묘방법의 지도와 접목묘 생산보급에 중점을 두다가 1966년 산림청이 발족되면서 대부분 산림청으로 업무가 이관됨
- 기술보급사업은 특히 현지 평가회, 현지 연찬회 등 사업중심의 교육기회를 많이 마련했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때부터 못자리 설치, 병해충 방제 등 주요과제별 중점지도 기간을 설정하여 지도에 집중함으로써 지도력을 과시하기도 함
- 또한 대중 접촉에 의한 지도방법으로서 시장, 기타 집회장소에서 농약사용법, 특수과제의 연시회가 활발했으며 중앙에서도 영화, 화판 등을 준비하여 지방 오지 순회교육으로 기술계몽과 지도사업 소개에 힘씀
 - 1969년부터는 집단재배의 적기작업을 위해 주간 기상전망과 주요농작업 요령을 수록한 농사정보를 매주 읍·면 단위기관과 보도기관에 배부하여 영농에 활용케 함
- 1967년에는 농사시험사업 60주년을 맞아 과거 60년간 축적된 연구결과를 총 정리하여 <농업기술지도요강>을 작물, 원예, 주산지편 등 3편으로 나누어 발간하여 지도사업의 자료로 활용케 한 것은 획기적인 업적임
 - 1968년에는 연구성과 중 긴요하고 필수적인 지도과제를 엮어 <주요농사 개량 지도과제>를 가제식으로 만들어 배부하였으며 매년의 연구결과 중에서 지도사업에 반영한 과제를 수록하였음
- 이 시기는 5·16혁명 이후 만성적인 식량부족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고 통치권자의 절대적인 관심 아래 조직과 지도 인력이 정비되고, 지도기법 면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보급시킬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게 되어 기술보급사업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3.1.3. 녹색혁명 성취기(1971~1980년)

- 녹색혁명 성취기는 통일계통 벼의 보급에 의하여 쌀 수확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녹색혁명을 이룩한 시기라 할 수 있음
 - 1971년 새로운 다수확 품종 ‘통일’(IR-667)이 처음으로 농가포장(2,750ha)에 실증시험 겸 시범재배되었고, 그 후 조생통일·영남조생·유신·밀양21, 22, 23호, 그리고 수원258, 264호, 노풍 등 신품종들이 연이어 육성·보급되면서 민족의 숙원인 식량자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함
 - 1972년부터 통일계통의 벼를 확대·보급하는 과정에서 적고현상과 심한 백엽고병, 그리고 미질의 불량 등이 발생하여 일부 행정기관과 학계의 반대가 일어났으며, 설상가상으로 각종 기상재해까지 발생하여 품종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였으나 지도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재배에 성공을 거둠
 - 1975년에는 3,240만 석을 생산하여 생산목표를 돌파,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였고, 1976년에는 3,620만 석, 1977년에는 4,170만 석을 생산하여 쌀 7만 M/T를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도 함
 - 1977년의 쌀 평균단수는 494kg(발벼 제외)로 세계 최고다수확 기록을 수립하면서 녹색혁명을 성취함
- 토양비료 분야에서는 석회 및 규산요구량 검정을 매년 10~20만 점씩 하여 개량제 보급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식량증산을 위해 경기·충남·전북·전남 등 4개도의 대단위 야산개발지구 에 토양개량과 작물재배지도를 위하여 1973년 6개소, 1974년 12개소에 보리와 콩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인산과 석회, 퇴비 증시로 조기에 숙전화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197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야산개발지구 에 시범포를 100개소씩 설치함
- 발작물의 경우도 신품종의 보급을 주축으로 시범사업이 이루어짐
 - 맥류의 경우, 증산을 위해 1972년부터 다시 집단재배단지를 설치하고 1976년부터는 올보리, 밀양 6호, 방사 6호 등 조숙종을 중심으로 중북부

지역에 논보리 확대시험단지를 1ha 규모로 매년 1,000~2,000개소씩 증설하였으며, 조광, 올밀 등 조숙종 밀의 신품종 보급을 통해 남부지방에서는 논재배가 가능하게 됨

- 보리의 경우, 1976년에 40년만의 최악의 가뭄과 한파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되었으며, 이는 보리농사 기술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음
 - 콩은 광교, 동북태, 강림, 봉의 등의 신품종이 보급되었고 옥수수는 1977년 처음으로 농가에 시험재배한 수원19, 20, 21호 등 단교잡종은 기존 품종대비 60%이상의 증수효과를 거두었음
 - 단교잡종의 종자를 강원도 농가포장에서 채종을 하여 농가에 보급하는데 성공하였음
 - 산간지 농민에게는 다수성 신품종 옥수수를 보급해 벼보다도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큰 호응을 받았으며 품종의 보급과 함께 재배기술의 변화도 가져옴
 - 경지이용률 제고를 위해 집중 지도했던 답전작 감자재배는 1971년부터 중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감자육아 이식재배를 전신포와 집단재배단지 등 규모를 달리하며 중점지도하였으며 1978년부터 감자연구가 원예연구소로 이관됨에 따라 시험사업도 채소작물로 이관됨
 - 고구마는 1969년 이후 시험사업을 중단하였다가 1978년 신품종 신미와 황미가 육성되면서 전국에 100개소(개소당 1ha)의 시험단지를 설치하여 수원 147호를 대체하게 됨
- 1973년부터는 고추의 비닐멀칭 재배기술이 시험보급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고, 1979년부터는 고추 터널재배기술이 보급됨
- 고추 등의 비닐멀칭재배, 답 전작 감자육아재배, 완두 또는 마늘 재배, 시설원예기술 등의 보급 활동이 전개됨
- 원예작물의 경우 주산단지의 조성을 위해 새마을 소득증대 자립마을을 중심으로 시험사업을 집중 시행하였으며, 화훼에서는 일부 전업농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나 지도기관의 지도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 1970년대 초에 철제파이프를 이용한 터널형 혹은 아치형 하우스가 등장

- 하기 시작하였으나 초기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 많이 보급되지 못함
 - 특히 왜성사과 대목의 보급이 적극 권장되었으며, 과수의 포장상자는 1970년대에 들어 골판지 상자로 거의 90%이상이 대체됨
 - 왜성사과가 보급되면서 추진한 산지과수원 조성사업은 야산개발촉진정책과 맞물려 크게 확대되는 계기가 됨
- 특용작물은 참깨와 해바라기, 아주까리 시범사업도 추진되었으며, 1972년부터는 참깨와 땅콩의 비닐피복 재배기술도 보급되기 시작함
- 섬유작물은 화학섬유산업의 발달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하여 1975년 이후에는 섬유작물에 대한 지도는 거의 자취를 감춤
- 버섯의 경우 느타리버섯 원목재배에서 벗짚이용, 폐면 이용기술 등이 보급되고 1970년대 중반기에는 양송이 수출의 전성기를 이루었으나 그 후로는 쇠퇴함
- 잠엽의 경우는 시범농가와 시범포사업을 통하여 뽕 다수확시범과 생력양잠 기술보급에 중점을 둠
- 축산기술지도는 밀원식물 시범포와 인공유에 의한 한우송아지 조기육성 그리고 꿀벌진드기 구제 연시지도를 전개하였으며, 1976년부터 1,471개 초식 축산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한우비육, 규격돈 생산, 토끼사육, 닭리작 사료작물 재배, 닭근먹이 조제, 가축방역 등 과학적인 사양기술보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농업기계화시책이 시행되었으며, 농업기계화 시범단지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함
 - 최초의 농업기계화 시범단지는 1970년, 경북 월성군에 1개소 30ha규모로 설치되었으며, 트랙터·동력방제기·바인더·콤바인 각 1대를 투입하여 일선공직자 632명의 교육장으로 활용됨
 - 시범단지는 1971년에 3개소에서 1972년에는 19개소로 확대 설치되었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과 순회 이동수리반을 편성하여 농기계 운전 조작법에 대한 교육과 수리교육을 하였음
 - 시범단지의 교육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1972년부터 1974년까지

- 지 전 시·군에 농기계 훈련장이 설치되어 훈련장비가 비치되었으며 순회수리가 실시되었음
- 그 이후 농기계 사용이 일반화되고 농작업이 기계화되면서 이 사업은 더욱 확대되어 농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되었음
 - 1975년, 동력이앙기가 처음으로 보급되었으며, 1979년에는 130개소에 소형기계화 시범사업이 전개됨
- 1973년부터는 영농질의 카드(엽서 형태)를 만들어 전국의 농촌지도자, 자원지도자, 새마을지도자, 학습단체회장 등에게 배부하여, 질의가 오면 중앙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고 그 내용을 해당 시군지도소에 통보하였는데 첫 해의 질의자 수는 2,187명에 달하였음
- 그리고 매년 질의응답 내용을 분류, 정리하여 농민상담집으로 발간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는데, 이 같은 제도는 그 후 20여 년간 지속됨
- 이 시기의 기술보급 사업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 통일된 보급에 지나치게 집중된 경향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신품종 보급을 통한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는 등 벼농사의 황금기를 이룰 수 있었으나, 벼농사를 제외한 타 작물, 원예, 축산 등의 분야에서의 사업은 침체되었음

3.1.4. 백색혁명과 생력기계화 시기(1981~1990년)

- 1980년대 양적 경제 성장전략과 산업화의 추세에 따라 이농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기계의 보급이 확산되었으며,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농업생산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음
-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노동력의 타 분야 산업으로의 유출로 농번기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이 심화되었음
 - 노임 상승으로 농업기계화와 시설자동화 등 생력화 기술보급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벼농사를 중심으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중대형 농기계가 급속도로 보급됨

- 한편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식품소비행태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농업 생산도 다품목 소량생산 형태로 전환되고, 농업소득원의 확대를 위한 축산결합, 소득작목인 채소와 과일류의 도입이 강조됨
 - 자급영농에서 상업농으로의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으며, 비닐피복, 비닐터널, 비닐하우스 등을 통한 채소류의 연중생산 및 공급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다양한 채소와 과실이 공급됨
 - 1980년 7,114ha 정도의 시설면적이 10년 사이 3배 이상이 늘어나 1990년에는 23,698ha로 확대되어 이 시기를 백색혁명을 이룩한 시기라고 부르기도 함
- 또한 녹색혁명 이후 벼농사의 연속풍년으로 증산분위기는 점차 퇴조하고, 1980년대 들면서는 품질을 위주로 한 동진·오대·화성 등의 품종이 생산의 주를 이룸
- 산업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노임상승에 따라 농가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생력재배기술 쪽으로 전환되었으며, 모든 기계를 이용한 벼농사가 이루어짐.
 - 1989년 남부 4개도에서는 육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어린모 이용기술로 각 1개소씩 2,3ha에 걸친 시범재배에 성공하여 1990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함
 - 1970년대 초반부터 벼농사의 김매기를 대신할 제초제가 농가에 보급되기는 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1년생 잡초를 중심으로 이앙 후 처리방법이 일반화 됨
 - 일년생 잡초가 적어지고 다년생 잡초나 숙근성 잡초의 분포가 늘어나면서 생육 중 처리를 추가로 하는 방제체계가 확립되고, 1980년대 중반부터는 일년생과 다년생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농약이 개발됨
- 보리는 1984년 찰보리가 육성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밀은 1979년부터 신품종 시범단지산을 중심으로 수매가 시작되어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했으나 1984년부터 수매가 중단되어 1980년대 후반에 ‘우리밀살리기운동’이 전개되었음

- 콩과 옥수수, 고구마 등도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품종의 보급과 제초제 안전사용, 파종기계를 이용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이 지도사업의 주된 과제가 됨
- 채소의 비닐멀칭 재배기술은 계속 확대되어 고추·마늘·양파 등에서 일반화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표준화된 하우스가 널리 보급됨
 - 또한 새초 공동육묘사업이 실시되어 채소 육묘공장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음
- 과수에 있어서는 품질이 우수한 신품종의 보급과 함께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특수 착색봉지의 보급, 반사필름 깔기, 점적관수 시설, 여름 전정기술 등의 품질향상 기술이 중점적으로 보급됨
 - 1981년 처음 국산화된 SS방제기를 중심으로 농약살포횟수를 줄이려는 기술지도와 청정재배 등 생력재배기술 보급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 과수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과는 1987년부터, 배는 1988년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지역까지 수출대상국을 넓혀나가며 수출 과수 생산지도에 주력함
- 1984년부터는 농촌지도소에 조직배양실, 1988년에는 토양검정실이 설치되었으며, 조직배양을 통한 구근류의 무병종구 생산기술이 보급되면서 난과 같은 화훼생산지도에도 눈을 돌리게 됨
- 특용작물에서는 참깨와 땅콩의 신품종과 유공비닐피복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1986년부터 전국다수확왕 시상제도를 만들어 외국산 참깨와 땅콩의 수입개방에 대비함
 - 참깨와 땅콩의 경우, 강력한 증산시책이 추진되어 참깨는 1988년 자급을 달성하였고 땅콩도 1987년에 자급률이 113%를 이루었으나 그 이후 증산시책의 퇴조로 자급률이 다시 하락하였음
- 버섯은 느타리버섯, 잠업은 밀식빵발조성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잠업주산지 지도에 힘을 기울였으나 잠업농가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를 막을 수는 없었음
-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는 1985년 이전까지 증식생산 위주로, 그 이후는 상

업적 전업농 육성을 위한 경영비절감 측면에서 중점지도가 이루어졌음

- 주요내용은 전기목책을 이용한 방목기술 특히 한국과 영국, 독일, 뉴질랜드와 초지기술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상주하면서 시범초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
 - 특히 겉뿌림 초지조성법을 보급하여 산지초지 조성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음
 - 또한 한우와 샤로레 교잡우 생산, 돼지 3원교잡종 이용, 양질조사료 중심의 소 사육기술을 보급하였으며 후반기부터는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화시설을 양축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함
- 농산물 총생산액 중에서 각 부문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식량작물의 경우는 1961년 84%를 차지했으나 1990년에는 42%로 감소한 반면, 원예작물은 같은 기간 중 4%에서 27%로, 축산은 5%에서 22%로 증가함

<표 3-6> 농산물 생산액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총생산액	식량작물	원예작물 ¹⁾	특용작물 ²⁾	축산	기타 ³⁾
1961	2,478	2,081	109	56	134	98
1970	7,891	4,328	1,338	276	1,177	772
1980	64,151	28,573	16,964	3,159	12,273	3,182
1990	177,281	73,994	48,713	11,261	39,214	4,098
1990년 비중	(100%)	(42%)	(27%)	(6%)	(22%)	(2%)

자료 : 통계청

주 : 1) 1990년 이후 원예작물에 화훼류 포함

2) 특용작물에는 약용, 전매작물 및 버섯 포함

3) 기타는 벼짚, 누에고치

3.1.5. 품질고급화 및 다양화 시기(1991~2000년)

- 1990년대는 국제화·세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체

제하에서 농산물 개방화가 이루어져 농업분야에 무한경쟁 구도가 등장함

- 1993년 12월, UR협상에서 국산 쌀은 10년간 관세화 유예조치를 받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농산물은 모두 개방되었으며,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구조개선사업(1992~1998년)과 농어촌특별세사업(1994~2004년) 등을 시행하였음
 - 농산물은 품질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토대로 고가상품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수입 농산물과 당당히 경쟁하게 되었음
 - 벼생산 관련해서는, 1991년 장려품종에서 통일계 17품종이 제외되어 통일계 품종이 농가포장에서 사라지게 되었으며, 1992년에 농가보급품종은 완전히 일반계 양질품종으로 전환됨
- 재배기술면에서는 완전기계화를 이룬 상태에서 새로 개발된 직파기를 이용, 직파와 이앙방법이 다양화되면서 벼농사가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됨
- 건답직파와 담수직파, 무경운직파 등 다양한 형태의 직파재배기술이 보급되어 1995년 117천ha까지 확대되었으나 그 후 크게 확대되지 않았고, 1995년부터는 무경운 기계이앙재배도 시범적으로 보급됨
 -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이란 명분으로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 등 유기농업기법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통하여 질소 시비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작물별 시비기준도 조정됨
- 보리는 찰성 신품종 보리가 계속 육성 보급되고, 쌀과 함께 밥을 지어도 잘 퍼지는 보리가 육성 보급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밀은 ‘우리 밀살리기운동’의 영향으로 1996년 2,800ha까지 계약재배로 면적이 늘었다가 2000년도에는 1,000ha 정도로 다시 면적이 감소하였음
- 콩은 다양해진 소비자의 수요에 맞추어 나물콩·밥밀콩 등 다양한 품종이 개발·보급되었으며, 옥수수도 알곡용 옥수수보다는 사료용과 간식용으로 찰옥수수와 단옥수수의 재배가 주를 이루고 지방화되면서 지역특산물로 육성되어 특화됨

- 고구마도 전분함량이 높은 식용 밤고구마에서 증미·검니 등 가공용 품종과 특히 고구마의 색이 자색과 황색이 나는 유색품종들이 육성·보급되고, 이들을 이용한 건강식품들이 개발됨
- 원예작물 분야에서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1989년부터 지역 특화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특화시범사업을 통하여 주산지 특화작목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의 보급에 주력함
 - 채소의 경우는 1990년대에 들어 농가보급형 자동화하우스 표준설계서를 보급하였고, 점적관수기술, 유통질감을 위한 하우스 내 물주머니 설치, 간이 비가림시설 등이 보급되었으며, 1989년부터 시작된 지역특화시범사업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품질경쟁력을 높이려는 기술보급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짐
- 쌀이 남아돌면서 논에도 일부 과수 식재가 허용되고, 과실은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함
 - 과수산업은 1980년~1990년대를 거치면서 재배규모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룸
 - 새 기술로는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 특수봉지씌우기, 반필름피복, 농가형 저온저장시설, 선과기, 과수원의 점적관수시설, 축열 물주머니 보급, 시설하우스의 지중난방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보온시설의 보급, 배 밀식 Y자수형 과수원 조성, 포도 간이비가림 시설재배, 인공수분과 머리뿔가위벌의 이용기술, 착색봉지 씌우기, 문자사과 생산기술 등 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보급이 중점과제로 추진됨
 - 저온저장고는 농가단위에서 1991년에는 1,038동(16,605평)이 있었으나 2000년에는 6,183동(137,943평)으로 확대되었고 2000년에는 과수의 수출액이 4천514불로 확대됨
- 특작분야 중 버섯의 경우는 팽이버섯·애느타리·버들송이·잎새느타리·큰느타리 등 식용버섯과 영지버섯·상황버섯·아가리쿠스 등의 약용버섯이 개발되어 보급되었고, 시설 자동화, 배지제조의 기계화 등 신기술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음

- 잠업에서는 애누에 인공사료 사육기술이 보급되었으나 점점 사육농가가 줄어들 후반기에는 섬유생산보다는 동충하초, 누에가루 등 건강식품 생산을 위주로 생산체제가 전환됨
 - 화훼류도 백합·선인장·장미·국화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어나서 주요 수작목으로 성장하게 됨
- 축산업은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을 위해 고품질축산물 생산체제가 유행하게 되었으며, 축종별로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가축질병 최소화,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급이 중점과제로 추진됨
 - 특히 한우 일관사육, 한우 고급육생산, 낙농 협업단지육성, 돼지 수출단지 및 전업농 육성, 오메가 계란 생산, 양질조사료 생산 등에 대한 시범사업추진과, 등지방축정, 초음파 임신진단기의 보급 등 과학적임은 물론 질적으로 한 단계 높아진 기술지도가 이루어짐
 - 한편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이 활성화되어 구제역, 돼지 콜레라 등이 창궐, 가축방역이 문제가 되었으나 철저한 방역기술지도 전개로 조기종식됨으로 인하여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음
- 국가적인 농정목표가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면 지방정부의 농정목표는 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더욱 관심이 높음
 - 특히 1997년 정부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일선 농촌지도기관이 지방화되고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작목의 육성은 더욱 가속도를 받게 됨
 - 따라서 벼농사를 하던 논이 급속도로 밭으로 용도를 바뀌면서 과수나 채소 등 소득작물 재배 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게 됨

3.1.6. 친환경농업 도입시기(2001년 이후)

-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화·개방화의 물결은 더욱 거세지고 정보화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의 발달로 이를 농업과 접목을 시도하는 노력이 강

화되었다. 빈번히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지속농업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음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소비자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거나 아예 쓰지 않는 무공해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농법의 지도가 농정시책으로 대두됨
- 유기농업은 1970년대 소수의 생산자단체에 의해 전개된 유기농업운동을 필두로 1992년 유기농업발전기획단이 농림수산부에 설치되면서 점차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19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수산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 제정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통해 활성화되었음
- 2001년에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어 논농업 직접지불제를 835천ha(진흥지역 564천ha, 비진흥지역 271천ha)로 확대되었고, 진흥지역은 25만 원/ha, 비진흥지역은 20만 원/ha씩의 보조금을 지급함
- 2002년에는 단위면적당 보조금이 배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벼농사 전체에 대해 직접지불액을 60만 원/ha으로 늘리고 별도로 변동지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손실을 정부차원에서 보완해주기 시작함
- 2002년부터 벼농사에서 ‘질소비료 50% 줄여주기 운동’이 전개되고 비료와 농약 절감을 위하여 벼농사에서는 오리농법·우렁이농법·쌀겨농법·식초농법 등이 일부 지역별로 보급됨
 - 시장에서는 각 지역들의 브랜드 쌀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어서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혼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음
- 2005년 양질미의 기준을 정한 최고쌀(Top Rice)생산품 시범단지를 전국 19개 단지 1,665ha에 설치하고 엄격한 심사 후 합격품만 유통시키는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양질미의 과학적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를 마련함
 - 쌀의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 완전미 95% 이상, 질소 7kg/10a 이하 등의 기준임
- 밭작물에서도 겨울철 보리를 재배하여 사료로 이용하는 총체보리재배, 과수

원에 호밀을 재배하여 토양을 보전하는 기술, 천적을 이용한 콩의 해충방제와 최소경운 콩재배 등이 친환경농업기술로 보급

- 과수에서는 2000년부터 성페로몬을 이용한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는데 방제횟수를 3회 정도 줄이는 성과를 거둠
- 초생재배기술도 새롭게 친환경농법으로 평가되면서 다시 지도과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해충방제 시범사업이 딸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친환경농업의 조류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의가 계층마다 다른바, 계층 간의 견해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과학적인 방법의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하였음

3.2. 농촌자원개발 및 생활개선

3.2.1. 농촌생활자원사업

- 농촌생활자원사업은 농업인 계몽·학습지도, 새로운 기술보급, 환경조성, 인적자원개발, 생활상담 등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반적인 기술지원과 관련 지식과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를 지원하는 사회교육사업임
- 농촌생활지원사업은 농정방향과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요의 변화 등 시대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수행을 담당하였음
 - 1957년~2003년까지 생활개선사업(Home Economics Services), 2004년부터는 농촌생활자원사업(Rural Living &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s)으로 명칭을 전환하였으며, 지도 대상도 농촌여성 중심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노인으로 확대, 물적자원으로 농업과 농촌의 고유자원을 포함함

- 사업의 기능을 농촌, 농업인들의 의·식·주생활 개선과 농촌여성의 경제 활동 중심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농업인의 농산물가공 기술력 향상, 소비자농업 육성, 농촌자원의 가치창출, 농촌가족의 지역 사회유지·역량개발 등으로 확대함
 - 추진방법도 소규모 시범사업과 표준화된 교육중심에서 재정적·물량적 대규모사업을 도입하고 민·관·학·연 등 관련단체와 협력, 네트워크화하며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함
- 본 소절에서는 시기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온 농촌생활자원사업의 발전 과정을 총 8단계의 발전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사업 태동기(1950년대 후반)

- 우리나라에서 체계적인 농촌생활자원(구 생활개선사업) 지도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1957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생활개선사업의 태동은 1957년 농사교도법인 법률 제435호가 공포(2월 12일)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됨
 - 농사교도법의 목적은 농업의 개량발달에 필요한 시범연구를 하고 농사 및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농민에게 지도함으로써 농산물을 증산하고 생활향상을 기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농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지식과 기술의 교도보급’ ‘토양 개량 및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지도’ ‘협동조직체의 운영방법 지도’ ‘농촌청소년의 교양지도’ ‘농촌가정 생활 향상지도’ ‘종사공무원의 양성’ 등임
 - 농사원 교도국에는 교도과(기획, 공보, 훈련), 기술보급과(농사), 청소년과 외에 새로이 농촌가정과를 둬으로써, 농촌부녀자 대상 가정교도 사업을 새로 착수하게 함
- 태동기의 농촌생활자원사업은 지도이념도 확립하지 못하고 활동체제도 미약하여 본격적인 생활개선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생활개선사업은 농사원 발족을 계기로 처음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 1958년 4월에는 도 농사원(2명씩)과 73개소의 시군 농사교도소(2군에 1명 정도)에 축탁 가정교도원 91명을 훈련 배치함으로써 이 사업이 태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음

(2) 사업 초창기(1958~1961년)

- 농촌생활자원사업의 초창기는 6·25사변 직후라고 볼 수 있음
 - 당시 생활개선사업은 사회 및 경제가 불안정하고, 식량이 극도로 부족하여 빈곤으로부터 탈피하고 파괴와 혼란으로부터 안정을 되찾는다는 성격이 짙었음
 - 전국적으로 사회복원의 움직임이 일자, 새 삶에 대한 의욕과 새 지식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 또한 증가했으며, 농사교도원은 도처에서 농민들로부터 크게 환영을 받았음
-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주택, 영양 및 의생활 농촌보건위생 등 농촌생활 개선을 위해 농가주부 대상으로 실행되었음
 - 그러나 각 시군별로 가정교도원이 미 배치된 관계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으며 농촌의 제반 생활실정 또한 본 사업추진에 제약을 주고 있어 점진적으로 농가주부에 제시된 과제를 택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가정생활개선구락부를 조직·운영하여 농가 주부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도록 하였음
 - 현장에서 추진한 과제의 세부내용(1959년의 경우)을 열거해 보면, 의생활 개선으로 농작업복 만들기, 바구니 앞치마 만들기, 편물 지도, 점퍼 스커트 만들기, 아동 활동복 만들기, 폐물 이용 침구개량, 계절에 따른 옷 보관법, 색옷 장려, 잠옷·속치마·팬티 만들기, 기초재봉·수예, 아기 옷 만들기, 저고리·블라우스·스커트 만들기, 베갯잇·손수건·방석 커버 만들기, 각반, 수반·기저귀 커버 만들기, 아기장 만들기, 아동 옷장 만들기, 남자용 셔츠(남방셔츠), 세탁기술 보급(털옷 세탁법), 우비 만들기, 아기양말·모자뜨기 등이 있음
 - 식생활개선으로 분식장려(대용식장려), 단백질섭취(콩음식), 개량메주

만들기, 감자고추장, 영양채소 채배, 영양채소 요리법, 이유기 아기음식, 토끼고기 요리, 채소 저장, 고구마 요리, 옥수수시루떡, 여름철 식품관리, 고구마·감자·계란 저장, 빵만들기 등을 주과제로 채택·지도함

- 보건·위생사업으로 하절기 해충구제, 기생충구제, 임산부의 영양과 위생관념장려, 유아의 질병과 예방에 관한 상식, 우물상식, 파리·모기·쥐 잡기, 일광소독과 증열소독, 응급 구급법, 특별위생, 행주소독개량 등을 지도함
 - 주생활개선으로 밥상덮개 만들기, 개수대 및 조리대 만들기, 찬장 만들기, 세탁시설, 아궁이개량, 우물개량, 변소개량, 농기구장 설치, 파리장, 행주걸이, 부엌정리, 가정의 민주화와 환경정리, 주택정리, 변소뚜껑 제작, 사용 등을 지도함
 - 또한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비누제조, 가축관리, 가정원예, 가정공예, 표고채배, 양계·양돈·토끼 기르기, 채소 채배, 편물을 부업으로 지도하였으며, 기타 과제로 생활개선구락부 육성, 가계부기록 지도, 미신타파, 재래인습 타파, 의례간소화, 장난감 만들기 등이었음
- 농사원 개원 후 초기 생활개선 사업은 사업의 구조와 성격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고 지방에 따라 추진상황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가정교도원이 담당할 수 있는 구락부 절대 수라든지 연간 과제 지도량, 각 과제가 지녀야 할 강도 등 사업량의 판단 기준이 미흡하였음
 - 비록 초기의 생활개선사업은 그 기반이 약했지만, 농가생활의 현실에서 우리나라 문제를 조사, 정리,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도과제를 선정 수행하는 등 자구적 노력을 통해 농촌생활개선사업의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농촌생활개선사업 초창기 말엽인 1961년부터는 전시 농가를 선정, 거점농가로 활용하여 의식주생활에 관하여 손쉬운 개량과제 위주로 추진되었음
- 그러나 경험이 부족한 가정교도원과 일반 부녀자들은 남편의 이해와 협력이 부족한 조건에서 단기간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음

(3) 농촌진흥청 발족 후 사업기(1962~1970년)

- 국민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공업화 경제전략으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실시되었으며, 정부는 강력한 중농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였음
 - 농업소득 증대를 목표로 법률 1962년에 농촌진흥청직제를 공포함
 - 농촌지도체계 일원화와 대 농촌진흥사업의 확충 강화를 목적으로 1962년 4월에 농촌진흥청이 발족하면서 종전의 농촌가정과를 생활개선과로 개칭
- 1962년에는 생활개선 전시 농가의 호응이 크게 증가하여 각 시군에 10호씩 총 3,368호를 설치하였고 생활개선과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찬회와 평가회 개최를 늘리는 등 지도대상을 확대하고 지도과제의 다양화를 꾀하였음
- 1964년에는 농업증산의 필요에 의해, 일선 농촌지도력 강화를 위하여 지도사 증원이 이루어졌으며, 읍면에 지소를 신설하였음
 - 전국 400개 지소가 설치되고 신규 지도사 2,010명, 생활지도사 140명이 증원되어 군당 2명, 시당 1명씩 배치되었으며 임시직 지도사 전원을 정규화로 조치함
 - 생활개선 과제는 생산과 직결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농황색채소의 계획재배를 통한 구강염 해소, 가축사육으로 부족한 영양소의 보충, 단백질 식품의 증산, 식품의 조리·가공·보존에 대한 기술을 지도 등이 이에 속함
- 생활개선사업을 위한 공식적인 연구기관이 부재하였으나, 1963년에는 전문가 20명을 과제지도위원으로 구성, 의식주 등 분야별 과제를 심의 검토 후 실험을 통하여 보급을 결정하였음
- 1965년에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부녀자 부업지도 강화를 위해 생활지도사에 대한 2개월간의 장기훈련을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농촌연료 해결과 산림녹화를 위한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중앙에 2개소, 지방에 40개소 설치하여 전시사업에 착수함

- 1967년부터는 농가부업 기술지도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부업단지에는 전담 지도사를 상주시켜 기술훈련을 강화하였고 농촌연료문제 해결을 위해 메탄가스 이용시설을 보급지도함
- 1968년 3월에는 한국 정부와 UNICEF 및 FAO 공동으로, 1968년부터 3년 6개월간 한국에서 응용영양사업을 전개한다는 협정문에 조인하였으며, 1968년 2월, 응용영양사업 담당지도요원 11명을 채용하여 중앙 및 각 도 정부에 배치하였음
- 1962년, 흉작에 따른 식량난으로,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을 위한 농가소득 증진 사업과 이를 위한 탁아소 설치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농번기 탁아소의 개소 수는 크게 증가
 - 1963년에 농번기 탁아소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전국 139개소에 145명의 보조가 배치되어 탁아 인원은 15,060명에 달했으며, 1969년에는 2,827개소, 보조 2,699명, 탁아 인원 103,979명으로 크게 증가함
 -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부업기술을 중점과제로 한 농촌여성 학습조직체인 생활개선구락부 육성을 통한 집단지도에 주력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는 농촌여성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부업제품의 생산기술 보급 및 증진에 주력하였음

(4) 새마을운동기(1971~1979년)

- 1971년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생활개선사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음
 -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 추진한 새마을운동은 1971년에 전국 33,267개 행정 이·동을 대상으로 10대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개선사업(지붕,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등)이 중점과제로 채택됨
- 1971년부터의 생활개선사업은 환경개선사업이 새마을운동의 중점과제로 등장함으로서 거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 지금까지 생활개선구락부의 육성이나 전시농가의 설치 또는 탁아소의 운영 등 여러 가지 생활개선과제를 실천하여 왔으나, 1971년에는 각 지

역 응용영양시범부락을 중심으로 각종 영양개선 중점과제를 투입함으로써 인근부락에의 파급을 촉진하였음

- 이에 따라 생활지도사들은 지역중점지도와 생활개선구락부의 육성지도 그리고 일반지도를 복합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종래 생활개선구락부 육성지도에만 치중했던 때와 비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음
- 1977년에는 아시아지역 식량영양정책 연찬, 국제회의와 국내 아동영양전문가회의를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였음
 -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이 설립되었으며, 이를 통해 영양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가정 전문가를 위한 특별훈련을 실행하기 위해 연구조사과에서는 영양연구, 조리법, 식품처리,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훈련과에서는 생활지도공무원과 부너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
- 1973년부터 전국 34,665 마을이 참여하여 주거분야에서는 지붕개량, 표준주택건립, 노변주택개량, 하수구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문화복지시설에서는 간이급수, 메탄가스시설, 공동우물, 목욕탕, 빨래터 설치 등의 과제가 연차적으로 추진됨
- 1975년부터 농업노동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중앙·도·시군단위 생활지도사와 실수로 농가주부 738명에게 농기계(경운기, 양수기, 분무기 등)조작 및 사용방법 등 훈련을 실시함
- 1970년대의 생활개선지도는 농촌영양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었는데 1968년부터 1981년까지 1,847개소의 영양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하였음
 - 또한 과학적인 조리, 가공·저장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당시 농촌지도소), 도 농업기술원(당시 농촌진흥원)에 단체급식장을 지원하여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감자요리, 토끼요리 등의 교육을 실시함
 - 식량자급을 위해 개발된 신품종 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시식회를 개최하는 등 식생활 지도에 UNICEF와의 협력사업으로 응용영양개선 시범마을, 아동영양 시범마을의 육성 등 균형식 섭취와 어린이 영양지도

를 위한 식생활 개선에 주력하였음

- 1962년에 시군 및 읍면 연합회를 조직한 생활개선구락부를, 1975년부터는 자립·자조·기초마을로 분류하여 육성하는 등 집단지도에 중점을 두었음
 -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 전국연합회장 연찬회를 개최하여 중점과제에 대한 기술훈련, 지식 습득으로 지도자로서의 능력 향상을 하도록 하여 생활개선구락부 및 인근 마을에 전달하는 등 파급효과를 올렸음
 - 마을 단위로 난립된 농민조직을 정비하고 새마을운동의 통일적 실천을 위한다는 취지 아래 1977년 7월 생활개선구락부, 부녀교실, 새마을부녀회, 가족계획어머니회 등의 부녀단체가 ‘새마을부녀회’ 조직에 통합되어 생활개선사업, 교양사업, 가족계획사업, 저축사업 등 농촌여성을 위한 통합적인 활동조직체제가 마련되었으며 부녀회장과 새마을청소녀회 여부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됨

(5) 농산물 개방화 시대의 농촌생활개선사업(1980~1989년)

- 1980년대에는 대내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었고 농업분야에서는 쌀 자급을 달성하였음
 - 농촌생활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농촌가정 경영자, 농업경영 참여자 및 의사결정자, 학습조직활동 참여, 지역사회 참여자 등 그 역할이 다양화되어 농촌에서도 생활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에 대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함
 -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 부담을 덜고 농가 부업의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부업개량이나 주방기구 개선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을 실행에 옮기게 되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1983년부터 2002년까지 총 17만여호가 부업을 입식으로 바꾸게 되었고 가사노동도 20~40%를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음
- 우리 국민의 식생활이 전반적으로 서구화되어 성인병이 증가하고 쌀의 재고량이 느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쌀을 중심으로 각종 채소를 부식으로 곁들이는 한국형 식생활 정착과 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두었음

- 농번기 탁아소 설치지도는 1980년대에 인기가 극에 달한 시기였음
 - 1960년경부터 4-H회와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나 1963년부터 생활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으로 확대·추진하였고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에 회관이 확보되어 탁아소의 기반조성이 되면서 내실 있게 운영되었음
 - 범국가적으로 육영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각급단위에서 추진하였던 유아교육을 통폐합하여 1982년 2월부터 본 사업을 내무부로 이관하였음
- 의생활분야에서는 환경문제가 범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이고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을 교육함
- 생활개선과제를 한 마을에 종합적으로 투입하여 시범효과를 올리고자 1983년부터 읍면당 1개소씩 생활개선종합시범마을을 지정, 3년간 육성하여 마을주민 화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기를 조성함
 - 첫해에 마을당 5호의 생활개선실천농가를 정하여 3년 후 마무리 될 때는 15농가가 생활개선과제를 앞서 실천하고 주변에도 파급하도록 함
 - 2000년까지 6차에 걸쳐 8,180개소를 육성하여 화목한 가정,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농가단위 과제를 실천하고 근검절약하고 건강한 마을 만들기, 농촌문화 전승하기, 녹지공간 조성, 환경보전 실천 등 마을단위 실천과제를 이수토록 하였고 2001년도부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음
- 농촌진흥사업은 그동안 농업과 농촌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진흥사업 본연의 임무인 농민의 복지증진과 도·농 간 균형발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전의 농업증산위주의 사업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지방 농촌진흥기구의 직제를 대폭적으로 개편함
 - 1989년 농촌진흥사업 대전환계획에 의거 읍·면 지소를 군 농촌지도소로 통폐합하여 지방화 시대에 발맞춘 지역생활개선사업을 특색 있게 수행하게 되었음
 - 시군단위 농촌지도소는 개발계 내 1~2명이 생활개선을 담당하고 있었

으나 특·직할시 및 군 농촌지도소에 생활개선계가 신설되어 시군당 4~5명, 일반시에는 2명씩 배치되어 시군에는 총 674명으로 확대되는 등 생활지도 기능이 대폭 보강되었음

- 생활개선사업의 벤치마킹으로 일본 국제협력사업(JICA)에서 1983년부터 1987년까지 생활개선분야 전문가 5명이 파견되어 3~4개월간 머물면서 농부증과 피로방지법(1983년), 농촌여성 역할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지도방안(1987년), 농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조사와 대책(1989년)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6) 지방화 시대의 농촌생활개선사업(1990~1999년)

- 세계화와 지방화 시대에 농촌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증대와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식 아래 생활환경 개선과 생활경영의 합리화 등을 통한 생활전반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였음
 - 이를 위해서 농촌생활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연구의 뒷받침을 하고자 농촌지도사 618명을 상계활용(연구직 578, 행정직 12, 기능직 28명)하고, 농촌영양개선연수원의 기능보강을 위해 30명이 증원되었고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에는 농업연구직(농촌생활직류)이 4명 증원되어 중앙에는 59명(생활개선과 14명, 농촌영양개선연수원 45명)을 배치하게 됨
- 1997년 1월에는 지방화 시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도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6,696명)하고 지방지구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으로 기관화하여 지방화 시대 지역실정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게 하였음
-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생활개선지도사업의 대상이 많이 확대되었고 지도내용도 농민건강, 생활환경, 생활경영 등 종합적인 내용으로 확대·전환됨
 - 특히 농촌여성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에 생활개선사업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행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지위향상과 삶의 의욕을 불어넣어 주기 위하여 농촌여성들

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등을 추진함

- 1990년도부터 전국 5개소의 시범지역을 정하여 지원하였는데, 여성의 솜씨를 활용하여 한과, 장류, 농산물 가공 등 농산가공품과 모시, 명주 등 비농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토록 지원함
 - 2003년까지 총 169개소의 국비지원사업장을 육성하였으며 매년 사업장 대표와 관계공무원이 모여 연찬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 방향, 정보교환, 생산제품 소개 등 보다 성과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경주함
 - 이 사업을 통하여 농촌여성들에게 저축통장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당히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1마을 1사업 1여성사장’을 육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 농민의 건강관리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면서 농작업 환경개선 과제를 보급하였는데, 지방사업으로 농작업환경을 개선함
- 인체에 부담을 주는 비닐하우스 안팎의 온도 차이에서 오는 영향을 덜기 위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농촌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자나무 주변 공터 등을 정비하여 간단한 운동기구나 의자 등을 설치하여 마을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활용토록 함

(7) 지식정보화 시대의 농촌생활개선사업(2000년 이후)

- 2000년대 들어 지구화·정보화 시대가 진전되면서 농업인의 요구와 기술수요가 다양화되었고 농촌경제의 주체로서 여성의 역할과 기여도가 증가됨
-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인식하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발굴하고 소득자원화 하는 일을 사업으로 추진함
- 이와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 하나는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농산물 가공기술 향상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농업의 작업환경 개선, 농업인 건강관리, 친환경 화장실 설치

등 친환경적인 농촌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쌀 중심 한국형 식생활 정착지도, 여성농업인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조직활동 지원, 노인생활 시범마을육성을 통하여 노인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함
 - 특히 2002년부터 농촌의 전통지식, 생활풍습을 테마로 발굴·전승하고 체험과 학습의 장을 마련하는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사업을 시작하였음
 - 이를 통해 마을 공동체의 부활과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
- 이 기간 동안의 주요 제도적 변화로는 2002년 3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 개정령에 의하여 기술지원국장과 지도기획과장 직위에 생활지도관을 포함하였음
- 2003년 1월에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생활기술과(생활기술·가정경영·식품개발팀)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의 전통식품팀이 신설되기도 함
 - 한편, 1979년도부터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추진하던 생활지도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기능이 2004년 1월에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로 이관됨

3.2.2. 지역사회개발

(1) 초창기의 지역사회개발 활동

- 지역사회개발은 일정한 지역 내의 주민이 자신들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회개발 활동의 과정임. 주민들은 공동 또는 개개인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집단적 또는 개별적 계획을 수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외부의 용역이나 물자를 지원받아 실천함.
- 대부분의 신생 개발도상국들이 서구의 원조 또는 민간단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개발사업을 도입한 것처럼, 한국도 1957년 6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지역사회개발 한미합동 실무반을 구성하여 사업조직과 계획에 착수하였음

- 1958년 1월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지역사회개발 요강을 채택하고 본격적인 사업활동을 개시함
- 1958년 9월, 지역사회개발위원회의 정식 발족 후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고, 초창기에는 시범부락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시범부락에서 실시한 사업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 즉, 대부분 주민참여에 의한 자체자원으로 실시하는 자조사업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초창기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경험을 쌓기도 전에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사업기구와 추진방법 및 내용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농촌진흥청에 통합된 후 지역개발은 물론 식량생산과 농사개량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다른 부처의 균형상 대폭 삭감되었음
 - 그러나 농촌진흥청으로 통합된 후 지도원은 새 기구의 사업으로 안정된 기반과 제도속 에서 충실히 추진되어 있음

(2)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전개

- 1962년 4월 농촌진흥법에 의하여 통합된 농사교도사업과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새로운 농촌진흥 시책에 따라서 시범농촌건설사업 계획을 세워 자연부락 단위의 주재지도 개발방식을 지양하고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6~10개 부락 단위의 농촌진흥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도하였음
 - 1964년, 새로운 농사개량기술을 포함한 종합개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인 종합지도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농촌지도사업과 통합된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초기에는 청소년 사업까지 포함하여 사회지도과에서 추진하였음. 그러나 1965년 5월, 지역사회개발과가 농촌근대화사업의 보다 강력한 추진을 해 시범농촌건설사업에서 얻어진 경험과 성과를 각 지도원이 분담하여 전 지역에 적용하였음
 - 한편,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거점 농가 중점지도를 통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음

며, 부락 자조개발 6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농가별 경영조사 실시 및 자조 개발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 1967년에는 종전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농한기 없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농림부 주관 하에 새로 정착된 부업단지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 기술훈련과 단지의 운영·지도에 주력하였음
 - 1968년의 농촌지도사업 쇄신책에 의하여 1969년부터는 이전의 지역분담 순회지도방식과 더불어 지리적, 경제적 여건이 동일한 이·동을 단위로, 농촌지도사가 부락에 입주하여 집중지도하는 거점지역육성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1972년까지 농촌근대화 작업의 주축을 이뤘음
- 1971년 착수된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이념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음
 - 새마을운동은 다양한 자조사업을 성실히 추진해 나갔으며, 새마을운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비로소 전국 농촌에 뿌리내리게 되었음
- 1973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추진된 보조사업은, 농촌소득의 원천이 될 유희자원을 소득화 하여 새로운 생산지역을 조성, 확대시킬 수 있는 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음
 - 이 사업은 원료생산 및 자원확보가 용이하고 소득증대와 직결되며 지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매년 높은 수익을 올렸음

(3)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관련사업

-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관련사업으로는 농촌 시범주택건설 전시, 3강 유역 개발지도, 메탄가스 이용지도, 농촌부업 기술지도, 농촌 가족계획 협력사업 등이 있음
- 한국의 농가주택을 영농활동과 문화생활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기 위하여 농촌 시범주택건설 전시사업을 실시하였음
 - 1969년 농촌진흥청에서 현상응모하였으며, 이러한 시도는 한국 농촌의

- 주택개량 및 취락 구조 개선사업의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정부는 농업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1968년부터 국제개발사업(UNDP)과 공동으로 3강 유역(안성천·동진강·상주천)에서 경지정리, 소류지, 하천공사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였음
 - 한국의 농촌연료는 대부분 농산 부산물이나 임산물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논이나 밭의 밑거름이 될 퇴비재료를 땔감으로 이용하였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산림녹화와 지력증진, 농가 주부들의 노동절감 뿐 아니라 농촌 에너지자원을 절감하기 위하여 가축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연료의 이용을 농가에 권장, 보급하기 시작하였음
 - 메탄가스 시범보급으로 남부지방은 9개월, 중부지방은 7개월간 농가취사의 대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지역사회 인적, 물적 유희자원을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수산부 주관으로 1967년부터 조성된 농촌부업단지에 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부업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단지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전국부업경진회도 개최하였음
 - 농촌지역 가족계획은 물량 생산중대 못지않은 농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지도사업으로서 부분적으로 이에 관여하였음
 - 사업추진은 1978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을 지도하는 주재 지도사에 대해서는 1주간의 가족계획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4)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종결

-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칭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1988년 이후 추진된 지역농업개발 시범사업이 큰 흐름을 주도하였고, 1993년까지는 주재지도사제도를 통한 사업추진이라는 기본형태나 사업내용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
 - 그러나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지방자율이라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면서 전통적인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종결의 길을 걷게 됨

- 1995년부터 시·군 자율 운영으로 조치된 이후 1998년부터는 주재지역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 모두 없어졌고, 업무를 주관하던 사업관리계의 명칭도 능력지원팀으로 변경하면서, 지방화 이후 새롭게 개발된 전문지도연구회 육성을 비롯한 지도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체제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음

3.2.3. 농업인 조직체 육성

(1) 4-H 육성

- 4-H운동은 농촌 청소년들이 장차 농촌을 지키고 가꾸어 나갈 훌륭한 농업인으로서 한편으로는 보다 나은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쌓아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제2세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교육 과정이며 사회개발 운동임
 - 지육(Head) : 머리를 명석하게 하여 올바른 판단과 계획능력을 기름
 - 덕육(Heart) : 덕성을 함양하고 진실과 겸손으로 인격을 도야하여 더불어 살아감
 - 노육(Hands) : 근로와 봉사를 통해 쓸모 있는 기능을 기르며 밝은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
 - 체육(Health) : 건강을 증진하여 질병을 물리치고 능률을 증진하며 생활을 즐겁게 함
- 4-H운동은 위 네 가지의 실천이념에 따라 마을이나 지역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 어려서부터 새로운 영농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을 개선, 향상케 하며 사회적인 협동생활의 훈련을 쌓도록 함으로써, 보다 잘사는 영농인,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어 지역사회개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역군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4-H운동의 발달과정

- 한국에서의 4-H운동은 외국원조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미국 민간원조단체인 한미재단에 의한 한국 4-H구락부 지원은 1953년부터 1979년까지 26년간에 걸쳐 이루어졌음
- 한국에서 4-H운동은 미국의 4-H구락부 운동을 경기도에 도입한 것이 시초임
 -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계기로 4-H구락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가졌지만, 1950년 6·25사변으로 뜻을 이루어지 못하다가 1952년에 광복 후 처음으로 4-H구락부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1952년 10월 한국정부는 농촌지도요원 제도를 마련, 농사보급회를 두는 한편 그 해 12월에 4-H구락부 운동을 농림부 교도사업의 일환으로 채택하였음
 - 한국 4-H운동에 있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1957년 2월 농사원이 발족되면서 4-H사업을 전담할 청소년계가 신설되었다는 점임
-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시 중앙은 청소년계가 폐지되는 한편 직원 수도 1/3로 줄었으나 시군 농촌지도소 밑에 3~4개 읍·면 단위로 410개의 지소를 설치하고 일선 지도인력을 증원하여 농사기술보급을 비롯한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육성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4-H구락부 지도는 활기를 띠게 됨
 - 한편, 농촌청소년 지도사업은 조직 면에서 크게 증가(1960년 7,477→1965년 27,911)하고 사업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크게 신장하게 되자 1965년 4월 청소년계를 부활시켜 청소년업무를 전담케 하였음
 - 1965년에는 1개 읍면에 등록된 4-H구락부 수는 평균 20개 내외로서 지도원 1인당 10개 구락부와 200~300명의 지도대상 부원을 가지게 되었음
 - 이와 동시에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1965년 4-H 특기지도사가 다시 부활되어 지소에 배치된 일선지도사들의 지역분담제에 의한 단위 4-H구락부 지도에 필요한 뒷받침과 아울러 민간 협조단체의 육성, 자원지도자의 확보와 읍면 및 시군 단위 4-H연합회의 지도 등이 전개되었음

○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4-H운동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 또한 겪게 됨

- 왜냐하면, 새마을운동과 4-H운동은 정신과 목적이 같기 때문에 쉽게 동화될 수 있어 4-H활동은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의 선도 실천체로 활동하게 되었음
- 새마을운동의 전개에 따른 4-H운동의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72년부터 4-H구락부 명칭을 새마을4-H구락부로 개칭하였고, 전 새마을에 4-H회가 조직되었으며 새마을지도자를 4-H지도자로 추대하여 일체감을 달성하기도 하였음
- 과학영농기술을 실천하는 소득증대과제에 역점을 두고 쌀·보리·콩 등의 다수확 경진과 경지고도 이용과제와 유휴지 활용과제, 그리고 회원마다 축산과제를 이수하도록 하여 복합영농에 역점을 두게 되었음
- 교육훈련분야에 있어서는 애농·애향심 고취와 지·덕·노·체 이념과 새마을정신 생활화에 중점을 두었고, 특히 1970년대 생산층 청장년의 이농에 대비하여 영농의 기계화를 촉진할 농기계훈련과 농촌을 지키고 가꾸며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영농후계자 양성에 역점을 두게 되었음

○ 1970년대 중반이후 4-H운동은 전환기를 맞게 됨

- 이 시기에 농촌청소년들의 이농이 급증하고 영농후계자의 확보와 육성이 농정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마을 4-H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음
- 조직의 명칭을 ‘새마을청소년회’로 변경하게 되었음
- 회원의 자격연령을 높이고 이원적인 조직체계를 도입하였는데, 회원연령은 26세까지 높였으며, 청소년층 회원은 이동 새마을청소년회로, 연장층 회원은 읍·면 새마을청소년회로 개편하고 지도방향과 과제활동을 각기 특성에 맞도록 재정립하였음
- 영농과제자금을 확대·지원하였으며, 융자조건은 소액의 단기성 자금으로 중기성 자금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지원규모도 확대하였음
- 민간의 후원 또한 강화하였으며, 1979년 2월 한국 4-H연맹을 ‘한국새마

을청소년위원회'로 개칭하고 명실상부한 4-H 민간후원기능을 담당하게 하였음

-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농촌인구가 격감하고 농업의 전문화·산업화·개방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농산물 수입개방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4-H 운동도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됨
 - 1991년 1월 4-H회의 조직체계를 종래의 지역중심체제에서 기능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생4-H회와 영농4-H회 및 특수4-H회로 개편하고 학생 4-H는 농촌개발과 민주국민으로서의 소양함양에, 영농4-H회는 유능한 농업후계자로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농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게 되었음
 - 2001년 4-H의 회원 연령은 9~29세로 확대하였으며, 4-H회원 대상 교육 훈련은 국제화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청년지도자 교육, 4-H과제를 영농4-H회원 교육을 통하여 농업전문기술과 경영방법 중심으로 교육이 강화되었음

□ 조직 및 회원 수의 변화

- 1950년 이전까지는 1,900개의 조직에 5만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였으나, 1957년 2월, 농사교도법이 공포되고 농사원이 발족되면서 1958년에는 3,700개의 조직에 14만 명이, 1961년도에는 7,800개의 조직에 30만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등 급성장함
- 1960년대에는 조직 수가 2만 7천 개에서 3만 개 사이를 유지하고 회원 수도 60~70만 명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는 공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조직 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회원 수는 1973년에 68만8천 명을 최고로 하여 매년 줄어들었으며, 1979년에는 49만8천 명까지 줄어들기도 하였음
 - 그러나 1979년에 4-H회의 지도업무가 강화되면서 1980년에는 회원 수가 60만8천 명으로 증가하였고, 1986년에는 3만4천 개의 조직에 약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기도 하였음

- 이후 농촌지역 거주자가 계속 줄어들면서 2008년 현재 2,108개의 조직에 6만8천여 명의 정예회원이 활동하고 있음

(2) 농촌지도자회의 활성화 및 육성

□ 농촌지도자의 태동

- 1957년, 농사원이 발족되면서 4-H구락부 활동은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되었으며,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자원지도자들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 자원지도자들은 농촌근대화의 기수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의 선각자로서 농어민의 협동심과 자조정신을 키워왔음
- 농촌지도사업의 농민적 주체기반이 된 자원지도자들은 연합회나 협의체 또는 친목 조직단체들을 자생적으로 조성하기 시작하였음
 - 농촌 자원지도자들이 계통적인 연합회조직을 구성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음

□ 농촌지도자의 주요 역할

- 새마을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故박정희 대통령이 제창한 운동으로, 근면·자조·협동정신을 통해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간다는 의식을 고취시켜 마을단위의 개발을 장려한 국가적 정책이었음
 -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주민의 자발적이며 자조적인 협동노력에 의해서 주민 스스로가 생활태도와 정신자세를 근대화하고 혁신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환경을 발전·개선해 나가는 민간주도의 지역사회 개발운동이며 사회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음
 -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정착에는 수많은 자원지도자와 농민학습단체 회원의 헌신적인 봉사와 노력이 뒷받침되었음
- 농촌지도자가 농촌지도사업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함
 - 농촌지도사업은 보다 많은 사람이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위사람들과의 협동공익을 위한 사회조직과 운영에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임

-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갖춘 농촌지도사의 배출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농촌지도사의 배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근대적인 농촌지도가 시작된 이래 농촌지도자는 하향식의 지도방법을 탈피하여 농민 간의 수평적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농촌지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농촌지도자들은 학습단체의 조직과 운영, 단체 구성원들의 협동 영농활동을 통하여 각종 시범사업 등을 주도함으로써 부락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음
- 농촌지도자는 농업인과 지도공무원 간의 협동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농촌지도사업에서의 농업기술은 관이 주도한 측면이 많았으나, 농촌지도자들은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농민들이 기술을 축적하고, 실용화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농촌지도자들의 생활 터전이 농촌인 만큼 농업인들과의 빠르고 신속한 의사소통은 직업적인 지도자보다는 훨씬 높은 지도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였음
- 농촌지도자는 농업인의 학습조직 구축·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음
- 1950년대 한국에서 농업인에 대한 교육적 지도사업이 착수된 이래, 농업인의 농업기술과 생활개선에 관한 지식 향상과 태도 변화, 자체 지도력 배양을 위한 집단학습 활동을 조장은 가장 중요한 지도사업 전략의 하나로 되어왔으며, 이러한 방법은 제한된 지도인력으로 많은 농업인을 접촉, 지도하는데 효과적이었음
 - 농촌 자원지도자들은 영농자들의 농사개량구락부, 농촌부녀자들의 생활개선구락부, 청소년 4-H구락부 등의 조직과 운영지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특히 대부분의 자원지도자들은 스스로 농사개량구락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신의 역량을 높이면서 집단활동지도와 봉사 등의 노력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의 학습조직 운영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 각급 농촌지도자연합회는 회원 및 비회원이라도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누구에게나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를 널리 보급해 왔으며, 주요 교육으로 독농가 현지분야별 전문교육, 시군회장단 연찬회, 식량증산 추진산업, 후계세대 육성지도, 소득작목 기술연찬회 등을 실시하여 왔음
- 1970년 농촌지도자중앙회 창립을 계기로 중앙회를 비롯한 시·군단위 연합회별로 각종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음
 - 농촌지도자중앙회 창립 이후 최근까지 추진해 온 주요사업으로는 농촌 순회지도사업, 영농기술공개강좌, 농촌지도자 분야별 교육훈련, 주거환경개선 돕기운동추진, 과학영농기술보급, 농촌환경정화운동, 농촌지도자 정보화교육, 고품질농산물 생산교육 등이 있음
- 해외 농업연수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교육훈련 중 하나였음
 - 해외 농업연수는 중앙 및 도단위, 시·군 자체단위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외 농업연수를 마친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새로운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농업 관련기관·연구소 등을 비교 연구하여 한국에 적합하게 적용시켜오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현지 농업분야의 홍보자료를 수집, 귀국 후 소재지의 각종 연찬회 및 교육행사 등에 출강하여 영농기술과 국제농업 동향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

(3) 농업경영인 육성

- 1970년대부터 농어촌 청소년의 이농현상이 급증하여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는 물론 농촌 노임의 상승, 농업생산성 향상의 둔화, 농가경제의 침체를

초래하고 또 다시 농촌 청소년의 영농정착을 기피하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1970년대 후반부터 4-H육성사업을 토대로 한 획기적인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

-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은 1978년 4-H회원인 새마을청년을 중심으로 지원되어오던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을 통합하여 1980년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의 제정과 더불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됨
 - 농업인 후계자 육성기금은 기부 또는 증여재산을 주 재원으로 하고 정부, 정부투자기관, 단체, 개인 및 기타 기금 등으로 운영되었음
 - 기금은 주로 국공채와 유가증권 매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증식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을 용자지원하고 있음
-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은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정된 농업인 후계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및 기술진단지도, 생산물 판매알선, 해외연수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도를 병행하였음
 - 특히 농어민후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한 활동사례를 널리 홍보하여 농촌에의 정착의욕을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한 전통농업인후계자대회를 매년 개최하였음
- 1987년 12월에는 후계자들 스스로가 전국농어민후계자 연합회를 결성하였음
 - 이러한 단체생활을 통하여 형성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1991년 3월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였고, 정부도 이들의 친목도모와 단체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함으로써, 농어민후계자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었음
 - 1992년 2월에 사단법인 한국농어민후계자중앙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97년에는 농업인연합회를 별도 독립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한편, 우수한 농업인 후계자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993년 12월에 병역법을 개정하여 농업인 후계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포함시켜 보충역으로 편입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도 함께 병행하였음

- 또한, 농업계 대학 출신자 및 우수 농업인 후계자를 지역농업의 선도로 육성하기 위해서 1994년도에 선도개척농 육성사업도 실시하였음

(4)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97년도에 농촌지도직의 지방화에 따라 지도인력의 감축 등 현장지도 기능이 약화되어 시·군 농업기술센터 단위의 종전 대 농업인 지도방법이 개별지도에서 집단지도로 전환되었음
 - 이에 따라 농업인의 다양한 기술 수요, 특히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과 지역 농가의 특성에 적용 가능한 현장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였음
- 품목별 농업인 조직은 기존의 농협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과 중복되고, 운영의 미흡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9년부터는 품목별 농업인조직을 기술 우위의 연구모임으로 개편하여 육성해 오고 있음
 - 이를 통해 동일작목재배 농가의 친목단체 성격의 농업인 조직체를 새로운 기술보급 핵심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 조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개별 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하고자 하였음
 - 그와 함께 특산품목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조직 내, 그리고 회원 간 정보교환, 협력강화, 현장교육, 선진농장견학, 연찬회 등 자율적 조직활동을 권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전문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할 수 있었음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연구모임운영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화된 체계정비를 위하여 전국단위 모임은 세계농업기술상 수상 농업인, 신지식 농업인, 기술이 고도화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연구·지도공무원과 연계하여 전국단위로 모임을 결성, 추진하고 있음
 - 도 단위로 특화된 품목별 선도농업인 모임을 조직하고 농업기술원 및 소속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지도공무원과 연계하여 품목별 농업 연구모임을 연구·지도공무원 복수책임제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태세

를 확립·추진하고 있음

- 군 단위에서는 지역 내 대표주산작목을 중심으로 조직을 10개 내외로 운영하고 품목별 농업인조직을 생산기술 중심의 연구모임으로 육성하여 선도농업인의 기술수요에 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음
- 한편 1전문지도사 1연구모임 책임지원제를 운영하고 있음
- 전문지도사는 정례모임 주관, 각종 정보제공 및 관련 행정처리 등을 담당하며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지도연구회원을 우선 선정, 지원함. 담당 지도사는 분기별 1회 이상 연구모임을 갖도록 하며, 품목별 지역특성에 따라 적절히 조정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각급 단위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설계 심의회, 중간평가회 및 종합결과 평가회에 농업인 연구모임 회원들을 참여시켜 농업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토록 추진하고 있음

2.3. 농업인 교육 및 육성

- 우리나라의 농업인교육 및 육성관련활동은 크게 농업인교육, 농기계교육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운영으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으며, 교육 분야는 교육내용과 대상 및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세부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2.3.1. 농업인 교육

□ 동계농민교육

- 동계교육은 시기상 다음 해의 농작을 계획하는 겨울철 농민들의 농작계획을 돕고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시행하며, 하계교육은 주요작물의 재배, 생육시기인 여름철에 영농현장을 찾아, 당면한 영농기술교육을 통해 보다 나은 작황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하였음

- 동계교육은 농촌의 빈곤추방을 위한 시책중 하나로 1961년부터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시작하였으며, 농한기 동안 새해의 영농을 설계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음
 - 당초에는 농한기 농업인들의 도박과 음주 등의 폐습을 바로잡고, 농가 부업지도와 문맹퇴치를 위한 공교육으로 시작되었음
 - 초기에는 교육체계를 갖추지 못한 좌담식 교육에 불과하였으나 1964년에는 농민훈련지침을 제정하였고 1969년부터는 정식 농업인교육과정으로 개편하여 전국의 시군농촌지도소(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초기 동계교육은 식량난 해결을 위한 식량자급달성에 중점을 두어 벼·보리 등 단지농업인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소득작목 중심의 과학영농교육으로 성격이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겨울철 농민교육 때 농산물개방화 대응기술과 작목별 전문기술 위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자율성을 높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공민교육을 목적으로 시작하여 1972년에는 동계농민교육으로, 1973년에는 겨울철 새마을영농교육으로 개칭, 새마을정신과 농업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 1975년에는 동계 새마을영농기술교육, 1982년에는 겨울영농교육, 1990년에는 겨울농민교육 등 교육내용과 명칭의 변경이 거듭되다가 1995년에 새해 영농설계교육으로, 2009년부터는 농업특성화 기술교육, 2010년 12월부터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77년 소득작목재배농가를 포함하여 종합반과 전문반 2개 과정으로 추진하다가 1984년부터는 식량작물(종합반), 복합영농반, 소득작목반(전문반), 생활개선반 등으로 교육과정을 세분하여 실시하였음
 - 1992년도에는 종합반, 전문반, 생활개선반 외에 농민후계자반과 4-H반을 추가하여 추진한 결과, 과정의 세분화로 교육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동일인이 2~3개 과정에 참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1993년부터는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과정을 대폭 축소 개선

하여 실시하였음

<표 3-7> 농업인 교육대상의 변천과정

연도별	교육 대상
1969~1976	영농주·학습구락부 회원, 벼·보리·콩 집단단지 회원, 특수사업단지 회원, 자조 및 기초마을지도자, 4-H 및 생활개선구락부 회원
1977~1980	벼·보리·콩 집단재배단지 회원, 자조 및 기초마을지도자, 4-H 및 생활개선구락부 회원
1981~1982	수도재배 전농가, 소득작목 재배농가, 저위생산지역 농가, 학습단체회원, 공동방제단 임원
1983~1988	식량작물반 - 재배 전농가 및 부녀영농주 복합영농반 - 복합영농 및 주산지역 농민, 시범마을 전농가, 교육희망자 생활개선반 - 실천요원, 후계자부인, 교육희망 농가 부녀자
1989~1991	종합반 - 식량작물 및 소득작목 기술교육 희망 농가 전문반 -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희망 농가 생활개선반 - 생활개선 낙후마을 및 교육희망 농가 부녀자
1992	위 교육과정에 2개 과정을 추가하여 농민후계자, 4-H반 신규설정
1993~1995	영농종사자 중 필요에 의한 교육희망 농민
1996~2004	품목조직, 주산지 농업인 및 교육참여 희망 농업인 시군별 자체계획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과정 설정 및 인원책정
2005~현재	품목별기술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여성농업인, 일반인 논농업직접지불제 보조금 대상자 등

○ 겨울농민교육은 1969년 정규과정으로 설정한 후 현재까지 겨울철 짧은 기간동안 일시에 많은 농업인을 교육하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지닌 교육으로서 종합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가장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 교육으로 평가되고 있음

- 여타의 농업인 교육과는 달리 행정, 농협, 교육청, 농촌지도사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 등과 같은 유관기관단체와 많은 농업인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되고, 농업 전반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음

<표 3-8> 연도별 겨울농민 교육실적

단위: 천 명

연도별	계	단지 임원	일반농업인						
			종합반 (식량작물)	전문반 (소득작물)	생 활 개선반	4-H반	후계자반	강사 요원	
'69	2,945	76	-	-	-	-	-	34	
'70~74	13,534	470	-	-	-	-	-	125	
'75~79	13,239	1,141	4,776	2,312	-	-	-	43	
'80~84	11,556	-	8,342	3,185	-	-	-	30	
'85~89	11,886	-	6,157	4,755	974	-	-	28	
'90~92	3,400	-	2,045	890	446	-	-	15	
'93~95	2,137	-	1,723		406	5	6	13	
'96~00	3,181	-	2,667		513	-	-	15	
'01~06	3,233	-	2,891		440	-	-	15	

	계	식량 작물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작물	축산	기타	농촌 생활	소비자 농업
'07	435	203	62	51	2	13	19	37	48	-
'08	406	195	53	46	2	18	19	28	44	-
'09	396	186	63	49	2	11	20	27	38	1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주: 93년부터 종합반과 전문반을 영농기술반으로 통합운영

□ 하계농민교육

- 하계농민교육은 주요작물의 재배 및 생육시기인 여름철에 영농현장을 찾아 당면 영농기술에 대해 대화·대답, 포장지도 및 실기습득 등을 통한 신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농업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안정농사와 농가소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 교육임
 - 6~8월 3개월에 걸쳐 영농작업현장을 찾아 휴식시간을 이용해 모정, 나무그늘, 작업 포장 등 교육에 편리한 장소에 모여 주요작물의 생육단계

별 관리요령, 재배기술, 농약안전사용요령, 주요 농정지식을 교육하는 형태로 추진되었음

- 하계교육은 초기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영농 신기술 보급 위주로 종합적인 농촌지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1989년 일선 농촌지도체제 개편을 통해 시군별 지도반을 편성하여 주요 농작업 시기에 포장중심 현지지도를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 하계농민교육은 애초 여름철 현지포장순회지도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명문화를 통해 겨울농민교육과 같은 차원의 체계적 교육으로 발전되었음. 이후 1994년부터 당면과제 현장교육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체사업으로 추진되어, 2001년 현재 273,845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음

□ 연중 및 상설교육

- 연중교육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목표로 수행된 개방화 대응교육이 있었음
 - 1978년부터 영농기술의 혁신으로 식량증산을 통한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군 단위별로 시작되어 점차 소득작목 교육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연중교육을 실시하여 왔음
 - 그러나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여 참석 농업인을 위한 교재, 급식 등의 지급에 문제가 있어 크게 발전하지 못했으나, 1991년부터 일부 국비(연간 총 130백만 원)를 지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음
- 교육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주산, 성장품목 중 희망품목을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농업의 조기 수용과 실천에 이바지하였음
 - 1995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는 품목별 상설교육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표 3-9> 농산물 수입개방화 대응 연중 교육실적

단위: 명

연도	1978~1979	1980~1984	1985~1989	1990~1995
인원	169,011	278,972	270,382	1,037,871

- 상설교육은 1995년부터 지역별 주력품목에 대해 시행되었으며, 품목별 농업인조직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습활동 증진과 전문기술 및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생산, 경영, 가공, 소비 등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 및 기술향상,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 육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사업은 3~12월중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여건과 농업인의 희망시기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 선도농가 농장, 주산단지 등의 장소에서 품목별 농업인 중심으로 3~4품목에 1일간씩 3~4회 실시해왔음

<표 3-10> 주력 농산물 품목별 상설교육 실적

연도	1995~1999	2000~2004	비고
인원(명)	420,602	356,931	품목별 연 3~4회 실시

- 상설교육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지역농업 개발계획에 의한 지역특산품목 육성과 농가소득원의 다원화를 추구하고, 지역 특산품목의 브랜드화와 농산물유통을 개선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해왔음

2.3.2. 농업인력 육성교육

□ 농민후계자 육성교육

- 농민후계자 육성교육은 1970년대의 공업화·도시화로 인한 농촌노동력의 급속한 유출,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자화의 심화 등 여러 가지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농업정책으로 농촌발전을 주도할 인력육성을 위해 실시한 사업임

- 1981~1982년까지는 농촌진흥청 및 산하시험장, 연구소를 활용하여 전일 합숙의 형태로 실시했고, 1983년부터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농촌진흥청을 활용하여 실시하다가 교육기관의 이원화와 일부 교과목의 중복 등의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1988년부터 새마을운동중앙본부의 정신교육과정을 농촌진흥청의 영농기술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하게 되었음
- 교육 대상인원이 1992년부터 연간 1만 명 정도로 대폭 늘어나면서 교육을 지방기관으로 이양,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주관 하에 실시하게 되었음
 - 2001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교육 사업은 종료하고, 농림부 주관으로 행정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음

<표 3-11> 농민후계자 교육 실적

연도	1981~1986	1987~1989	1990~1994	1995~1999	2000
인원(명)	29,069	11,839	48,142	46,348	5,038

□ 농촌지도자 교육

- 농가부업단지로 선정된 부락 등 일부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완초, 앙고라, 인조진주 가공 등의 기술을 완전 실기위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단기로 제공하던 것이 농촌지도자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음
 - 1962년부터는 중앙 및 도 단위에서 거점 농가를 대상으로 식량증산과 지역종합개발을 위한 자조적 집단학습구락부 육성을 위해 자원지도자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69년부터는 시군 농촌지도소까지 확대하여 단기교육으로 추진되었음
- 교육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종래의 학습단체 지도자 중심에서 새마을지도자, 4-H지도자, 생활개선지도자, 독농가 등으로 교육대상이 확대되었으나, 1972년도에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으로 전환하여 추진됨

- 농촌지도자 교육은 1962년부터 1973년까지 823,957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훗날 새마을운동을 주도하는 지도자들의 다수를 배출하여 농촌지도자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음

□ 전문농업인 교육

- WTO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전문농업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전문농업인 교육이 추진되었음
 - 정부는 전업농가 10만 호 육성을 목표로, 전업농 경영규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을 1인당 5천만 원씩 장기 저리로 지원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1992년에 수혜자 대상 전업농교육과정을 개설함
 - 전업농육성자금을 지원받는 농업인은 의무 전업농교육을 이수해야 했으나, 2000년도부터는 전업농육성자금 지원 수혜자 의무교육 규정이 철폐되었으며, 교육명칭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변경되어 진행되고 있음
 -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전업농육성자금 수혜자가 급증하여 쌀, 축산 분야는 시·군 단위에서 2일간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기타 분야는 중앙 단위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중앙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초기 교육은 전업농에 대한 사명감 고취와 사업방향 제시를 위한 시책 및 정신교육과 작목별 전문기술을 중심으로 5일간 합숙교육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종, 채소, 화훼, 과수, 축산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주요작목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정, 희망하는 교육을 실시하였음
- 전문농업인 교육은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음

<표 3-12> 연도별 전문농업인 교육실적

구분	계	1992~1996	1997~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교육기간	2~5일	2~5일	2~3일	2~3일	2~3일	2~3일	2~3일	2~3일	2~3일
계	85,850	34,358	34,031	7,898	7,573	499	520	466	495
경종	67,846	22,758	30,967	7,128	6,968	-	-	-	55
채소	3,779	1,901	1,199	296	148	104	58	47	26
과수	3,165	991	1,006	257	252	315	182	84	78
화훼	1,108	376	464	90	62	42	105	57	22
특작	1,485	738	495	127	63	38	-	-	24
축산	7,751	7,594	-	-	-	-	72	85	-
기타	80	-	-	-	80	-	103	193	270

□ 귀농인 교육

- IMF 경제위기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젊고 유능한 도시의 실업자들을 농업분야에 유치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자금을 지원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귀농인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음
- 영농 창업자금을 받은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지제도, 농지구입 요령, 농업정보 활용법 등 귀농에 필요한 각종 영농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현지견학, 귀농인 성공사례 발표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였음
- 경제위기 극복 후,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귀농인력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수요도 급감하였으며, 귀농인 교육은 자연스럽게 소멸되었음
- 1997년부터 4년간 실시된 귀농인 영농교육은 비록 한시적으로 운영된 교육이었지만, 귀농인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에 큰 도움을 주었음

<표 3-13> 연도별 귀농인 교육실적

연도	계	1997	1998	1999	2000
인원(명)	951	82	275	423	171

□ 영농지도원 교육

- 영농지도원 교육은 농업인 서비스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농협의 업무협력 방안의 일환으로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까지 계속하여 실시되었음
- 농협중앙회에서는 중앙 및 도 단위 연수원에서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강사 중 농촌진흥공무원의 비중이 높아 자체교육보다는 위탁교육의 효과가 커, 농촌진흥청에서는 위탁교육으로 방법을 전환하여 추진하였음
- 교육 대상은 농협중앙회 회원농협에서 영농지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었으며, 교육과정은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말 회원농협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청(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과 상호 협의 하에 편성하였음
- 교육내용은 품종특성,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시비 및 토양관리 등 작목별 재배 핵심기술에 대한 강의와 현장견학 및 실습 그리고 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음
- 교육에 소요되는 교재대, 강사료, 숙식비 등 모든 비용은 교육생이 부담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교육비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지정받아 노동부의 감독 하에 교육을 실시해 왔음
- 교육은 농촌진흥청 및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하 시험장 및 연구소의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졌고 작목별 시험장, 연구소 전문가들이 강사로 출강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
 - 연차별 교육이 종료된 후에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중앙회 관계관, 출강 강사, 교육수료생 대표 등이 모여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후 협의를 통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도감 등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음
- 영농지도원 교육은 농협 임직원들의 영농지도 능력을 함양하고 농업인 대상 서비스기반을 강화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농협과 농업인들 간 유대 강화에 크게 공헌하였음

<표 3-14> 연도별 농협 영농지도원 교육실적

연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과정수	63	13	20	9	11	10
인원(명)	1,316	251	376	236	258	195

2.3.3. 전문기술 교육

□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 농촌진흥법 및 영농기술훈련 규정에 의거한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종래의 중앙 및 지방단위 농촌지도기관에서 실시하여 온 영농지도자교육과 작목별 전문 기술교육을 통합하여 개선·발전시킨 교육과정임
-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에서 출발하였는데, 이는 경제개발계획과 새마을운동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음
 - 1974년 9월 농촌진흥기관에서는 영농기술훈련규정을 제정하고 획기적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새소득 작목기술의 개발 및 교육에 역점을 두게 되었음
- 교육은 주산지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청 산하 시범연구기관의 시설과 연구진을 활용, 기술교육의 형태로 2~10주간씩 실시되었으나,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교육대상자가 농민후계자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에는 다시 일반농업인으로 환원되었음
 - 이는 후계자 인원의 증가에 따른 사전교육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 때문이었음
-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수료자는 3,809명, 영농지도자 31,245명을 배출하여 수료 농업인들이 모든 농산물의 소득화를 통해 상업농 또는 전업농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전국 곳곳에 작목별 주산단지가 조성되는 등 큰 성과를 거

두게 되었으며, 각도 농촌진흥원(농민교육원)까지 국비 보조사업으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전술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이 1989년도에 전환되어 시작된 교육이며,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의 연장선상에서 농가소득원을 소득작목 및 농외소득 중심으로 전환하여, 새기술 실천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고 수입 개방화에 대응한 지역 농촌의 핵심지도자를 육성하고자 수행하였음
 - 1983년부터는 2개의 과정을 통합한 영농지도자 작목별 전문교육과정을 설정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자중앙회 공동주관으로 교육을 실시, 1989년부터 이를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으로 개칭하고 보다 세분화된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과정을 설치·운영하였음
- 초기 작목별 전문기술교육 대상자는 지역별 주산지 또는 학습단체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책정했으나, 1989년부터는 교육희망 작목에 대해 3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는 자 중 새로운 전문기술습득을 희망하거나, 농업계 학교 졸업자로서 농촌 정착의지가 굳은 20세 이상의 후계 영농주, 복지농촌건설에 앞장서 새 농촌을 이끌어갈 농촌지도자를 우선하였음
 - 교육 희망작목과 시기 등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완전히 희망농업인 대상으로 상향식 교육을 추진하여 교육성과를 극대화하도록 하였음
-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음
 - 초창기의 농촌지도자 교육은 51시간 중 35%가 지도력 배양을 위한 일반과목으로 추진하고 기술과목은 교육내용의 전문성보다는 수도작·전작·특작·원예·병해충 등 다양성과 포괄적인 내용에 중점을 두었음
 - 1983년부터 실시한 영농지도자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전문기술과목에 중점을 두고 여러 작목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작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음
-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은 국내 농업인들이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주체적 기제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문기술을 보급하는 주된 교

육 창구로서 기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표 3-15>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실적

연도	계	1989~1994	1995~1999	2000~2004
인원(명)	12,723	5,273	4,170	3,280

□ 농업인 정보화교육

- 21세기 지식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화 활용능력 배양으로 전산을 이용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과학영농에 의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영농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 교육사업임
- 2001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처음 시작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자체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 각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음

<표 3-16> 농업인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연도	계	2001	2002	2003	2004
인원(명)	92,509	22,912	26,603	22,227	20,767

2.3.4. 농기계 교육훈련

□ 태동 및 초기 교육

- 1958년 이후 정부의 농기계 보급계획 수립을 시초로 하여 1962년부터 활성화된 병해충 방제 공동작업의 기계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도 기계화의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농기계의 개발·보급과 농업인력 부족의 심화에 따라 농기계에 관한 교육훈련의 수요

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기계화영농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던 1962년부터 시·군 농촌지도소 (1998년 농업기술센터로 개칭)에서 4-H 농공훈련이 시작되었으며, 1963년부터 농촌지도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의 조작훈련이 시작되었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기계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1960년부터 9개년에 걸쳐 4-H회원 4-H 농공훈련장을 개편하여 1969년부터 중앙농업기계훈련소를 설치하였으며, 이곳에서 중견4-H 회원을 대상으로 농기계훈련을 시작하였음
 - 1969년, 농업진흥청 훈령을 제정하여 중앙농업기계훈련소를 설치하였고 도단위에서는 각도 농촌진흥원 산하기관으로 농민교육원이 설치 운영되었으며, 동력경운기, 동력방제기, 원동기 및 양수기 등에 대한 조작기술과 포장작업기술 및 운영관리 기술훈련을 실시하였음
 - 각 도에는 농민교육원과 4-H 연수농장을, 그리고 시군단위에는 농민훈련소를 각각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농촌지도공무원과 농기계교관요원에 대한 전문기술훈련은 중앙에서 전담 실시하였음
 - 또한 농촌청소년과 실수요자에 대한 기본실습훈련은 도 및 시군 등 지방단위에서 실시하여 지금까지 289만 명의 농민에게 농기계교육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의 농업기계화사업시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제도적으로는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1972~1976년)을 토대로 농업기계의 보급이 본격화되었으며, 다양한 교육대상의 다양한 훈련장을 개설 및 증설하여 농기계 교육훈련이 실시됨
 - 시군단위에서 농촌청소년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목공과 토공중심의 훈련을 실시하던 50개소의 농업훈련장을 시작으로, 농업기계훈련을 위한 100개소의 농공훈련소가 증설되었음
 - 1974년에는 다시 41개소를 증설하여 도합 141개소로 확장되었고, 2008년 현재 145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공훈련소가 각 시·군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음

- 교육 내용으로는 동력경운기, 동력방제기, 원동기 및 양수기 등의 소유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1주간씩 조작기술훈련을 실시하거나 농기계교관요원 및 전문농촌 지도사들의 경우는 농기계수리 지도자반을 편성하여 농기계 정비수리 및 사용 교육을 지도하고 있음
- 각급 단위의 훈련소는 훈련참가 농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제반 합숙시설과 훈련장비 등을 확보하였으며, 훈련의 내실을 기하고자 전체 농업기계훈련기관에 트랙터, 콤파인을 비롯하여 신기종을 중심으로 훈련용 기대를 지원 확충함으로써 체계적 훈련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상당 수준 보유하게 되었음

□ 기술협력을 통한 농기계 훈련

- 농업기계훈련은 정밀한 기술훈련을 필요로 하므로 훈련시설의 보강과 유능한 기술요원을 양성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정부는 1972년 6월, 영국정부와 농업기계 기술협력사업을 체결하고 5년간에 걸쳐 한영기술협력사업을 추진하였음

<표 3-17> 한·영 농기계 기술협력사업에 의한 장비지원 내용

기종명	도입대수		활용부서(대)				비고
	종	대	중앙	각도	농공이용 연구소	제주축산 사업	
계	231	3,485	1,242	2,052	151	40	
차륜	3	13	-	9	3	1	
트랙터	4	26	6	18	1	1	
트랙터작업기	35	111	27	67	3	14	
트랙터파종기	5	5	1	-	1	3	
트랙터양수기	1	1	1	-	-	-	
교육용 엔진모형	1	1	1	-	-	-	
랜드마스터 경운기	1	4	4	-	-	-	
랜드마스터 작업기	11	17	17	-	-	-	
공작기구	8	52	8	40	1	3	
작업기구	47	169	86	69	12	2	
메탄가스용구	5	29	-	-	29	-	
수공구	110	3,057	1,091	1,849	101	16	

- 한영기술협력사업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농용트랙터 26대를 비롯 농기계 순회수리·지도를 위한 차량 13대 및 각종 작업기와 공작농구 231종 3,485점을 영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중앙 및 각도의 훈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각급 단위 농민훈련장의 장비도 한층 보강되었음
- 한·영 농기계 기술협력사업은 영국 출신의 농기계전문가에 의한 면밀한 훈련과 새로운 교수기법의 이전을 통해 도 및 시군 농공훈련소의 농기계 교관요원의 지도역량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우리나라의 농기계훈련 역량을 제고하는 계기를 제공하였음

□ 실수요자 대상의 농업기계 훈련

- 실제 농기계를 사용하는 실수요자들이 변화함에 따라 농기계 교육과정은 구체적인 수요자를 겨냥한 특별교육 형태로도 진행되었으며, 부녀자 교육, 잠재 수요자 모집 훈련, 안전사용 및 보수교육, 기계화 영농단 교육훈련이 여기에 속함
- 부녀자 농기계 교육은 농업노동력의 부녀자화에 따른 교육 시책으로, 1975년부터 3개년간 도단위에서 부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임
 -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동력경운기, 동력방제기, 원동기 및 양수기 등의 운전조작 기술을 1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음
 - 197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훈련과정으로 전환하여 승용기종의 이앙기, 콤바인, 소형트랙터 및 관리기에 대하여 2일간 마을단위 순회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농기계 잠재수요자모집 교육은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1972~1976년)의 시행으로 농업기계가 확대 보급됨에 따라 농업기계 생산업체의 교육만으로는 농기계교육훈련 수요를 확충하기가 곤란하여 1972년부터 보급기대의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집하여 실시한 실수요자 교육 사업임
 - 이 교육훈련과정에서는 동력경운기를 비롯한 각종 동력농업기계의 신규구입 실수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시군단위에서 2일간씩 조작기술과 보

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였음

- 기계화영농단 훈련교육은 1981년 마을단위 소규모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으로 조직된 새마을기계화영농단(1985년부터 기계화영농단으로 개칭되었음)을 대상으로 추진된 교육사업이며, 1991년까지 전국 32,964개소에 달하는 기계화영농단의 핵심 운영요원을 양성하였음
 - 벼농사 일관기계화영농을 목표로, 이앙기, 수확기 및 건조기에 대한 농기계 훈련을 도단위에서 실시하였으며, 기계화영농단에 대한 농기계 훈련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1981년에 연간 2,000여 명 시키던 훈련을 1989년부터 1994년도까지 매년 4,500여 명 수준으로 확충하였음
 - 1989년부터 4개년에 걸쳐 마을당 1개소(전국 4만 개소) 육성목표로 기계화영농단의 농업기계 취급요원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별로 1주간의 훈련과정을 통해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기술 및 자가정비 수리 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음
- 농기계 안전사용 보수훈련은 농업기계의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매년 농기계 운전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점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실사용자 및 수요자의 안전을 위해 1983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임
 - 도로주행성 기종(동력경운기, 트랙터 등) 보유 농가를 대상으로 시군 단위에서 1일간에 걸쳐 도로교통법규와 농기계 안전사용법 훈련으로, 농기계 교통사고 방지 및 농업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목표로 함

2.3.5. 농업전문학교의 설립 및 운영

□ 학교설립 과정과 배경

- 1994년 1월 31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발족한 농어촌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는 농업발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농업전문학교의 설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다양한 전문

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학교 설립에 대한 각계의 구체적 의견을 청취하였음

- 농업인과 농업계 고교의 교사들은 대체로 전문학교 설립에 찬성한 반면, 농과계 대학 교수들은 반대하였는데, 농고→농전→농대의 농업교육 체계상 농전의 병목현상이 심화되어 있고, 학문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4년제 농과계 대학의 특성상 현장실무능력위주의 농업전문기술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이 부재하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논리였음. 따라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전문대학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농과대학을 지원하여 농업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반대자들의 주장이었음
- 농발위는 전술한 공식적 여론수렴과정 외에 농업 농촌현장을 방문하는 등 여러 형태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농수산계 고교 개편 및 전문대학 설치방안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음
- 한국농업전문학교는 1994년 6월, 농어촌관련 모든 정부부처가 참여한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농발위가 정부에 건의한 각종 농정시책을 검토하여 수용하기로 확정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설립이 결정되었음
 - 당시 확정된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은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하기 위한 당시 농정의 기본시책이었으며, 이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대 핵심시책 중의 하나인 우리 농어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전문적 가족단위의 전업농어가 15만 호 육성시책이 해당 설립 전략에 포함되었음
 - 농수산 전문기술대학(농업 3, 수산 1, 임업 1)을 설치하고, 도별로 1~2개의 자영 농수산고교를 육성하며, 졸업생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로 우선 선정 및 병역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 전략의 주된 내용임
- 1994년 9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세부실천계획이 확정·발표되었고, 그 세부실천계획 중 전문학교의 설치에 관한 시책이 포함되어 있었음

- 해당 시책은 농촌진흥청·산림청·수산청 산하 기술전문학교를 신설하되, 설립 규정을 제정하고, 2년제 전문학교로 설립하며, 시설 및 교수요원은 기존 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함
- 또한 농촌진흥청 산하 농업기술전문학교는 1996년도 개교를 목표로, 나머지 산림청과 수산청 산하의 전문학교들은 1997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령화, 농업전문대학의 병목현상과 대학교육을 통한 농업인력 양성의 둔화 및 사양화, 농수산교육과 농어업인력 육성정책의 연계 미흡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필요에 의해 결정된 시책임
- 1995년 7월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14742호)」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설치령에서는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위상을 제시하였음
 - 첫째,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교육법에 의거 교육부 장관의 관할 아래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교임
 - 둘째, 한국농업전문학교는 농촌진흥청 소속의 학교임
 - 셋째,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사관학교와 유사한 특성을 가졌는데, 즉 한국농업전문학교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연한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농업 또는 그 관련분야에서 종사할 조건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하고, 필요한 경비를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음
- 1997년 3월, 한국농업전문학교 준공 및 개교식 겸 제1회 입학식이 개최되었음

□ 학교의 운영조직 및 제도

- 한국농업전문학교는 개교 후 2차례에 걸쳐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고, 학교 설치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예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

한 3년제 정규교육과 기존농업인의 신기술 연수훈련을 병행하는 농업분야 종합교육기관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 농촌진흥청은 이 무렵에 연구 및 지도관이 정년 2~3년 전에 퇴임하면 본청 및 산하기관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정년보다 1~2년 더 연장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이른바 기술자문위원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전문학교 교수진의 임용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수진을 유지하였음
- 2001년 3월 12일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아 2002년 10월 개소 후 2005년 8월, 24개 업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 전국 창업보육센터(290개소) 등급평가에서 A등급 판정을 받고 벤처창업경연대회(농림부 개최) 입상업체(최우수상 2, 우수상 2, 장려상 1)로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음

□ 교육과정

- 교육과정의 주요특성은 1학년의 학과별 ‘통합교과’와 ‘공통 및 분야별농기계 코스교육’ 2학년 ‘국내외 장기현장실습’ 3학년 ‘작목별 전문교과’와 ‘창업세미나’ 1·3학년이 함께 수강하는 ‘외래특강’ 등의 교과로, 기존의 농업계 전문대학 및 대학에서는 편성 운영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특성화되었다는 점임
 - 2학년 장기 현장실습은 1년간을 국내외의 선진농장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장주의 지도하에 생산 및 경영을 체험하도록 하는 교과로서 독일 등 선진국의 마이스터 농장 실습제도와 유사하였음
 - 장기 현장실습의 목적은 첫째, 학교에서 배운 기본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선진농장의 생산 및 경영기술을 선별적으로 배우고 나아가 선진농장 경영주의 성공 및 실패의 경험과 강인한 생활철학의 산지식을 배우도록 함 둘째, 선진 농장실습의 경험을 주기적으로 쌓아 3학년 전문교과를 이수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함
 - 3학년의 작목별 전문교과는 수업을 학과별로 하지 않고 전공 작목별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전공심화 교과였으며, 창업세미나는 졸업 후 영농에 종사하기 시작하여 전업경영주로 정착할 때까지의 장·단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발표·심사를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실용적인 교과로 진행되었음

- 또한 10개월 이상의 해외 장기현장실습을 실시하였으며, 1998년도에 최초로 일본 북해도 낙농농장 2곳으로 2명을 파견하였고, 1999년도에 일본과 미국의 선진농장에 각각 10여 명을, 2000년도에는 일본·미국·캐나다에 각각 10여 명을, 2001년도부터 일본·미국·캐나다·호주 및 뉴질랜드·중국·이스라엘 등 경쟁대상국 및 선진농업국에 매년 50명 내외를 선발하여 10개월 이상 실습파견을 시켰으며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총 278명이 연수하였음
- 한국농업전문학교의 교과과정은 매년 조금씩 변경되었으나,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틀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부분적인 신설학교로서 급변하는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잦은 변동이 있었음은 불가피하였다고 할 수 있음
 - 학과별 통합교과는 주당 수업을 조금씩 줄여서 2001년도부터는 8시간으로 운영하였으며, 농업과학기초, 작물보호와 같은 교과들을 추가로 편성하여 운영하였음
 - 축산학과 및 특용작물학과에서는 통합교과를 1학년 1학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1학년 2학기부터 축종별 또는 작목별 전공심화교과를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음

□ 졸업생 영농정착 성과

- 한국농업전문학교는 졸업생의 자가영농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음
 - 졸업생 전원에게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병역미필의 졸업생에 대해서는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우대해 병역특례를 적용받도록 하였음
 - 재학 중 영농기반이 상실되어 자가영농을 시작할 수 없는 졸업생에 대

해서는 선진농장에 일정기간 취업을 허용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자금을 알선해 주기도 하였음

- 더불어 졸업생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등의 다양한 사후적 노력을 통해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영농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음
 - 졸업생은 농촌진흥청훈령으로 되어 있는 「학비지원조건 이행과 상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7월중에 학비지원조건 이행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을 받아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졸업생지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 어려운 졸업생들에게 선진농장 취업 및 해외연수 등을 허용하고, 허용한 기간 동안 지원학비의 상환을 유예조치하였음
 - 교수 및 관계직원들은 수시로 인터넷, 전화 및 농장방문 등을 통하여 졸업생 추수지도를 연중 실시해 농업인 후계자 육성자금 등을 지원받도록 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며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1999년도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관련업무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현장의 지도교수로 위촉하여 국내 장기현장실습 농장 및 졸업생 농장지도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2001년도부터는 우수 졸업생의 성공사례집을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도부터는 교직원 1인당 2~4개 시군을 담당하여 입시홍보는 물론 졸업생 추수지도에 집중하도록 하는 교직원별 시군 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졸업생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정책은 졸업생들의 영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2005년도 9월 말에는 졸업생 95.1%가 영농에 종사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음

<표 3-18>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종사 현황

단위: 명, %

졸업 연도	졸업생 (A)	영농 이행 (B)	영농 유예 (C)	이행종료		학비 상환	유예 신청 등	면제 (E)	영농종사율	
				영농(D)	비영농				(B+D)/ (A-E)	(B+D)/ (A-C-E)
2000	209	1	4	124	47	30	0	3	60.7	61.9
2001	208	7	8	138	27	26	0	2	70.4	73.2
2002	223	106	8	71	16	14	5	3	80.5	83.5
2003	217	126	16	35	10	19	6	5	75.9	82.1
2004	187	133	9	23	5	13	2	2	84.3	88.6
2005	207	174	10	-	-	12	7	4	85.7	90.2
2006	193	169	14	-	-	6	2	2	88.5	95.5
2007	193	171	13	-	-	1	6	2	89.5	96.1
2008	220	200	16	-	-	1	2	1	91.3	98.5
2009	223	199	15	-	-	0	7	2	90.0	96.6
2010	207	186	11	-	-	0	10	0	89.9	94.9
계	2,287	1,472	124	391	105 ¹⁾	122	47	26 ²⁾	82.4 ³⁾	87.2 ⁴⁾

자료: 한국농수산대학

주: 1) 비영농 : 의무영농이행 종료자 496명 중 영농 미종사 83명 및 미과약 22명

2) 면제 26명 : 사망 21, 국가유공자 2, 장애 3명

3) 전체 졸업생 중 영농종사율 82.4%

4) 영농유예자를 제외한 졸업생 영농종사율 : 87.2%

제4 장

한국농촌지도사업의 성과와 교훈

1. 성과

1.1.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능력 확충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최대 성과는 농업생산성 향상과 생산능력 확충으로 특히 쌀생산증대를 통해 식량 부족현상을 해결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의 쌀생산은 1950년대 연간 1,500만 석 수준에 머물렀으나 꾸준한 농지개량과 생산기술 보급 등의 농촌지도사업에 힘입어 1960년대에는 2,500만 석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 식량증산을 위한 노력은 1962년 농촌진흥청 발족으로 농촌지도사업이 체계화되면서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식량증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통일형 다수성품종벼의 보급과 대폭적인 지도인력의 증원이라고 할 수 있음
- 통일벼로 대표되는 우수 품종보급은 농업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1971년 농가포장 2,750ha에 8,451농가가 참여하여 실증 시험재배를 시작한 통일벼는 500.9kg/10a의 생산량을 보여 당시 평균 생산량 330kg/10a 보다 월등히 높은 생산성을 보였음

- 이후 통일벼의 단점이 보완되고 통일계 품종 재배가 확대되면서 1974년에는 전체 논 면적의 15%에서 통일계 품종이 재배되었으며, 1975년에는 3,240만석이 생산되어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하였음
- 통일벼 등 신품종의 대면적 시범 겸 채종집단재배에 의한 대량보급은 원원종 → 원종 → 보급종으로 갱신되는 3년 1기의 기존 종자증식 단계를 대폭 단축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품종개량을 통한 증산과 함께 수리시설, 경지정리 등 토지기반 정비사업 또한 급속히 추진되면서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1991년까지 1,200천ha 수준이 유지되었음
- 10a당 생산단수도 증가하여 통일계 품종이 전체 논 면적의 54%로 확대 보급되면서 494kg/10a의 생산단수를 보인 1977년 쌀 총생산량이 4,000만 석을 돌파, 녹색혁명을 성취하였음
- 1980년대에는 통일계 품종의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수량이 높은 일반계 신품종 보급으로 식량자급은 지속되었음

<표 4-1> 쌀생산 추이

년도	1960	1970	1975	1980	1990	2000	2005
재배면적(천ha)	1,121	1,203	1,218	1,233	1,255	1,072	966
단수(kg/10a)	272	327	383	288	451	497	490
생산량(천 톤)	3,047	3,939	4,669	3,550	5,606	5,390	4,741

- 1980년 후반부터는 쌀 자급이 지속되는 한편, 국가경제 발전으로 국민생활이 윤택해져 쌀 소비는 양보다 질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신품종 육성보급 및 재배기술 또한 양질의 쌀 위주로 전환되어 1970년대 육성·보급된 품종 중 일반계는 5종으로 17%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에는 61개 육성보급 품종 중 일반계가 46개로 75%를 차지하게 됨
 - 1987년 이후부터는 통일계 신품종 육성이 중단되었으며 1991년에는 장

려품종 중에서 통일계 17품종은 제외되었음

- 1992년에는 미질이 떨어지는 일반계 11품종이 장려품종에서 폐기됨으로서 농가보급품종은 양질품종으로 정착되었음

<표 4-2> 시기별 통일형 품종 수량

구 분	시 기	평균쌀수량(kg/10a)	수량범위(kg/10a)
온대형 품종	1962~1965	377	370~385
	1966~1970	389	370~385
	1971~1975	468	370~385
	1976~1980	434	370~385
	1981~1985	491	431~528
	1986~1990	502	478~534
	1991~1995	511	445~711
통일계 품종	1972~1975	491	449~554
	1976~1980	510	439~581
	1981~1986	562	496~605

자료: 농진청, 이질현 외, 2001, p.88에서 재인용

- 우수품종 보급과 함께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과 기계화 생력 재배기술의 보급은 농업생산 능력 확충의 주요 요인임
 - 벼 재배를 위한 재배기술 보급은 모기르기, 모내기, 수확조제 및 가공 등 분야에 각종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되었음
 - 특히 육묘기술에서 보온절충못자리의 보급은 벼의 조식재배를 가능하게 하고 고랭지의 벼농사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 1991년부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어린모 공동육묘장의 설치는 논에 못자리를 하지 않고 벼농사 시행하는 형태로의 전환을 가져와 육묘 비용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 ‘제2의 녹색혁명’으로 평가받음
- 산업화에 따라 1965년 1,581만 명(전체 인구의 55%)이었던 농촌 인구는 1991년 607만 명(전체의 14%)으로 감소하였고 노령화·부녀화가 심화되면서 생력재배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어린모기계이앙, 콤바인에 의한 수확작업

등 기계화 생력재배기술의 보급도 확대되었음

- 어린모기계이앙은 1990년 17천ha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3년만인 1992년 395ha에 확대보급되어 총 육묘비용 560억 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고 345만 명에 해당하는 농촌 일손부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되어 통일벼 개발보급 이후 최대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1990년대 후반기부터는 다양한 생력이앙방법이 개발·보급되어 2000년대 들어서는 어린모 이앙은 감소추세임

<표 4-3> 어린모 이앙 보급실적

단위: 천ha

연 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재배면적	17	396	523	302	200	164	147

자료: 농림부(1990~2002 모내기실적)

- 벼 수확의 경우 1975년 콤바인 56대가 공급된 이후 1980년 1,211대, 1990년 43,954대, 2000년 86,982대가 공급되어 약 98% 정도가 콤바인에 의한 수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표 4-4> 벼베기 기계화율

연 도	1986	1987	1988	1989	1990	2000
기계화율	18.2%	49.3%	61.5%	70.3%	80.1%	98.0%

○ 이상과 같이 신품종 개발, 재배기술 보급, 기계화 생력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 능력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농업생산 향상은 다음과 같이 평가 받고 있음

- 통일벼 보급에 따른 쌀 증산은 농가소득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였음
- 1972년 연간 429천 원 수준의 농가소득은 1976년 1,156천 원으로 증대되었고 이 과정에서 통일벼 생산에 의한 소득 증가액 비율은 11~14%로 평가되고 있음

- 농가소득의 증가는 구매력향상으로 이어져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었고, 주식의 자급달성으로 양곡도입에 따른 외화지출을 절약하여 경제개발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됨
- 신품종 보급의 성공은 정부시책에 대한 농민의 신뢰도 강화 계기가 되었으며 생산 증대로 나타난 가시적 성과는 과학영농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음
- 또한 집단재배방식의 성공으로 영농형태가 개별영농에서 협동영농으로 변화하였고 농기계 공동이용 등 협동생산체계 구축에도 큰 영향을 주었음

1.2. 영양개선사업을 통한 농촌의 빈곤 완화 및 극복

- 1950년대 한국 농촌은 식량의 절대부족으로 식생활 개선사업을 통한 농가의 영양개선이 농촌지도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음
 - 농사원 발족 후 식생활 개선사업은 주로 영양관련 신지식과 농촌에서 구득하기 쉬운 재료를 이용한 조리법의 지도였음
 - 주요 지도내용은 주식을 대신할 수 있는 분식 개발, 콩음식 소비를 통한 단백질 섭취, 영양채소 재배 등이었음
- 1962년 발족된 농촌진흥청은 지속되는 식량부족에 대응하여 쌀소비 절약을 위한 분식장려, 대용식 및 혼식 보급 등을 통해 농촌 빈곤 완화 노력을 경주하였음
 - 압맥기의 활용법, 텃밭에서 영양식품을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고구마 소비촉진을 위한 전시사업을 실시하였음
- 1967년 7월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협력을 얻어 추진된 응용영양사업(ANP, Applied Nutrition Program)은 예산과 전문인력, 기구 및 차량 등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농촌 식생활 및 영양개선, 빈곤 완화에 큰 기여를 하였음

- 응용영양사업은 우리나라의 곡물위주 식사형태를 개선하고, 영양식품의 증산, 식량의 자급, 국민의 체위향상을 목표로 약 20여 년에 걸쳐 추진되었음
- 농민 식생활 및 영양개선에 대한 응용영양사업의 농촌 기여가 높이 평가되어 UNICEF와 농촌진흥청은 2~4차 연장사업 협정을 체결하였음
 - 1974년부터 1981년까지 총 1,847개의 마을이 육성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음
 - 1978년 4차 연장사업부터는 아동 영양개선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응용영양 시범마을은 지방에 이관, 자체 운영토록 하고 아동영양 시범마을을 육성하였으며, 1982~1986년에는 농촌영양개선사업 제5차 5개년계획에 의거 아동영양 지도마을을 UNICEF지원으로 육성, 외자 320천 달러, 내자 583백만 원을 투자하였음
 - 1986년 12월 UNICEF지원으로 아동영양 시범마을 지도는 종료되었으나 1987년부터는 국내 재원으로 아동영양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11개 신규마을 선정, 아동 급식시설 마련 및 어린이 보충식 급식에 주력하였음
 - 1989년까지 육성한 아동영양지도 마을은 총 88개로 이유보충식과 취학전 아동의 공동급식을 주로 지도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지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유도하였음
- 한편 재래식 취사 급식 때 발생하는 식품낭비를 방지하고 과학적 설비와 기구개량을 통한 철저한 위생관리 및 균형된 영양공급을 목표로 1974년부터 조리실 겸 단체급식장이 운영되었음
 - 중앙에서는 새마을 지도자연수원과 농촌진흥청 농민훈련과 급식장, 지방에서는 각도의 4-H연수농장 및 시군 농촌지도소의 50인 이상 급식장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었음
 - 단체급식장 설치운영은 훈련생들의 영양교육 훈련장으로 활용되었고, 국민식생활 개선의 전시장으로도 활용되어 식량자급달성에 기여하였음
 - 국비지원은 1974년 개소당 40만 원, 1977년부터 80만 원이 지원되었고, 1984년에는 1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1984년까지 총 192개소가 설치되었음

<표 4-5> 응용영양개선사업 실적

구분	1965~70 (본 사업)	1971~73 (1차연장)	1974~76 (2차연장)	1977 (3차연장)	1978~81 (4차연장)
1. 시범마을 육성					
○ 응용영양 시범마을	171개소	276개소	380개소	220개소	800개소
○ 아동영양 시범마을	-	-	-	11개소	11개소
2. 기초조사 실시					
○ 식품섭취 실태조사	16마을	46마을	27마을	10마을	20마을
○ 건강상태 조사	8마을	46마을	24마을	10마을	20마을
○ 식습관 및 금기식품 조사	26마을	46마을	-	-	-
3. 영양식품 생산					
○ 단백질식품 (대두)	8,867호	44,724호	116,684호	13,171호	148,000호
○ 단백질식품 (양계)	933호	8,487호	32,648호	17,032호	120,000호
○ 칼슘식품 (유산양)	1,657호	8,814호	7,910호	2,344호	17,000호
○ 비타민식품(녹황색채소)	17,022호	75,826호	137,753호	47,416호	138,000호
4. 영양개선의 집 운영	171개	276개	380개	220개	800개
5. 단체급식장 설치	-	7개소	39개소	50개소	33개소
6 주곡 대체식품 요리법 개발	-	감자요리 24종	고구마, 감자, 토끼요리 115종	-	-
7. 위생 우물 설치	356개	730개	-	-	-
8. 영양교육 훈련					
○ 지도요원	2,500명	4,700명	5,700명	4,700명	10,000명
○ 마을지도자	63,200명	129,200명	2,067,000명	94,000명	190,000명

자료: 농촌진흥청, 2008, 『한국농업 근현대사 제9권』, p.435

- 이 같이 한국에서는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촌의 빈곤완화를 위한 응용영양사업을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자력으로 식생활 개선이 가능한 도시민에 비해 개선이 어려웠던 저소득층 농민의 빈곤 완화 및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음

1.3. 농촌 정주기반 개선

- 농촌 정주기반 개선을 위한 노력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주민 자신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이 속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활동인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수용하여 생산지향적인 형태로 추진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음
 - 1957년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착수되어 같은 해에 지역사회 개발현장이 제정되고 1958년 12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마을의 자원 개발조성과 이를 이용한 소득개발,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음
- 이후 80년대까지는 마을 중심의 농촌개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농촌 지역개발의 범역을 중심도시와 배후농촌지역이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된 농어촌 정주생활권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종합개발이라는 광역적·포괄적 개발방식을 추진하였음
 - 1980년대 후반에는 관련부처별로 농어촌 개발수단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계획의 공간단위가 면지역으로 축소되어 전국 1,220개 면 가운데 일반농촌지역인 758개 면에서는 일반정주권 개발사업이, 산간오지의 399개면에서는 오지종합개발 사업, 그리고 53개의 도서면 지역에서는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이루어졌음
- 1990년대에 들어서는 정주생활권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각종 정주기반 개선 계획 및 사업이 이루어졌으며, 군단위로 추진되던 농촌지역 개발사업 공간단위가 면으로 축소된 ‘면단위 정주권 개발계획’이 추진됨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가장 대표적인 농촌 정주기반 개선사업이며, 면단위 계층적 정주체계의 정비를 통해 농촌주민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 농촌정주성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도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1994년 농어촌정비법 제정기반을 제공하였으

며, 농어촌의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각종 기반시설사업을 농어촌지역 개발의 종합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정주의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2000년대에는 1990년대에 추진되었던 대부분의 사업들을 유지하되, 테마 지향적인 농촌마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비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임

- 2000년에 시작된 정보화 시범마을 사업은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전자상거래 등 정보 콘텐츠를 구축하며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통해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5개 마을이 선정되었음
- 2001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전통 농촌형, 21세기 선도형, 생태녹색관광형 등 마을 유형별테마를 소재로 한 자연친화적 생활편익시설과 소득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추진되었음

<표 4-6>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사업명	'90~'94		'95 실적		합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문화마을 조성부문 -단지조성, 오피스 처리 시설	32 지구	1,025	19 지구	700	51 지구	1,725
마을기반 정비부문 -마을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도로 465km 외	1,408	도로 142km 외	393	도로 607km 외	1,801
도로정비부문 -도로, 교량, 승차장 등	도로 1,050km 외	2,272	도로 141 km 외	496	도로 1,190km	2,768
문화복지시설 부문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357 동	332	114동	110	471 동	442
농어촌산업기반 부문 -집하장, 저장고 등	73개소	464	13개소	155	86개소	619
농어촌주택 정비 부문	13,883동	1,606	3,236	535	17,119	2,141
계획수립 등	-	398	-	92	-	490
소계		6,480		1,781		8,261
합계		7,505		2,481		9,986

- 한국에서 추진된 농촌지도사업 중 하나인 농촌주거환경 조성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목적을 두었으며, 농촌 정주기반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음
- 1950년대에는 농가주택의 개량사업 및 보건위생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으며, 1960년대에는 기반시설의 확충, 개선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졌음
 - 1980년대에는 56,000여 호에 대한 농업개발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부엌 개량, 하수시설 및 작업환경 등을 위주로 하여 전통적인 농촌 가옥구조를 개량하고 재래식 주거생활의 관습을 타파하여 능률적인 작업환경을 구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
 - 1990년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농어촌발전기금으로 4만 호가 개량되었고, 입식부엌이 보급되었으며 같은 해에 이루어진 ‘고향 주거환경개선 돕기운동’을 통해서는 출향가족, 인사, 유관기관으로부터 기탁받은 총 301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여 16,608호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도 하였음
 - 1990년대 중반에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금을 지원하여 부엌과 욕실개량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루었으며, 태양열 온수급탕기 보급을 시도하였음
 - 2001년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이 시행되어 호당 280만 원씩 용자가 지원되어 183개의 농가가 수혜를 입었으며, 이후 2004년까지 공동시설로 확대 적용 및 시행됨
 - 1983년부터 2004년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총 2,923억 원의 융자금이 농가에 지원되었으며, 그 결과, 약 173,000호가 부엌과 욕실 및 다양한 주거환경 요소를 개량할 수 있었음
 -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생활개선사업의 간판사업이 되었으며, 농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며, 농작업의 효율을 도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음

1.4.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 농촌자원의 활용은 농촌산업 구조의 재편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계획에 있어 농촌지도사업에서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농촌지도사업과 연계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 녹색 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많은 농촌자원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음
 - 한편, 농산어촌 어메니티 연구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발족되어 관련지역의 어메니티 자원 개발 및 관광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함
 - 2006년을 기준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190개, 농촌전통테마마을 97개, 농산어촌체험마을 75개 등 전국 500여 개 이상의 농촌관광마을이 조성되었음
- 농촌관광의 본격적 유치를 위해 2002년 농림부는 전국 18개 마을을 녹색농촌체험 시범마을로 선정하고 공동주차장, 관광안내판, 산책로 등 기초 기반시설 보완, 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기도 하였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마을의 고유한 전통문화와 지식을 발굴하여 도시민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독특한 농촌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마을을 조성하고자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음
 - 주요 사업내용은 농업·농촌체험·판매시설, 종합안내센터, 마을환경, 숙박·편의시설 정비와 컨설팅·교육·마케팅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포함됨
 - 2002년에는 전통테마마을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리더십과정, 서비스과정 교육을 신설하여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시행되었음
 - 테마마을조성사업은 농촌의 전통문화와 지식을 테마로 발굴하여, 프로그램으로 개발함으로써 마을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의 부활과 지역사회 및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시민의 자연에 대한 관광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농촌·농업 관광에 대한 관

- 심이 증대함에 따라 다양한 농촌지역자원이 재조명되었으며,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농촌주민의 소득 개선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농림부는 2001년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 그 주요 전략으로 농촌관광을 도입한 농외소득 전략을 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 대표적인 농촌휴양자원 개발사업은 농촌지역의 휴양자원의 이용, 도농 교류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와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조성 등이 있음
- 한편,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2005년부터 ‘농촌어메니티 자원조사 사업’을 시행, 농촌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위치 정보, 내용 및 사진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및 비농업분야의 소득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1.5. 농촌지역 공동체 의식의 강화

-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농촌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학습단체를 조성하고 이들 단체들을 통한 집단적 교육방법이 주를 이뤄왔음
- 집단교육 형태에서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참여 농민들 간, 피교육자인 농민들과 교육자인 농촌지도사 간 공동체 의식의 함양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었음. 이를 위해 농촌지도사업도 오랜 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
 - 농촌지역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위해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들은 4-H 육성,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임 육성 등이 있음
- 1947년에 태동한 4-H운동은 책임과 자유를 신봉하고 지식과 기량을 개발하며, 사회공동체를 함양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원을 양산하기

위해 시작된 농촌지역 중심의 의식개혁운동이라 볼 수 있음

- 4-H운동은 청소년들을 자율적으로 조직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익히고 타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할 줄 아는 도량을 갖춘 사회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데 기여하였음
 - 타인과 함께 할 줄 아는 인성을 지닌 미래의 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는 농촌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보다 건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데 커다란 양분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임
 - 뿐만 아니라,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의 젊은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4-H운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된 농촌의 젊은 인력은 회사 등에서 동료들 간에 화목한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전 사회에 두루 미치기도 하였음
 - 한편, 1970년대 농촌의 새마을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해관계가 각기 다른 다수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4-H를 통하여 훈련된 훌륭한 인적자원이 있었기 때문임
 - 종합하면,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의한 교육을 받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실질적인 현장지도자로서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생활의 여건을 개선하는데 커다란 업적을 쌓았음
- 1950년대 중반이후 농촌지도자회는 4-H운동의 활성화와 때를 같이 하여 활성화되었으며, 농촌지도자들은 농어민의 협동심과 자조정신을 키워왔음
- 이들의 활동은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집단학습체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그 단체 구성원들의 협동적인 영농활동을 통하여 각종 시범사업 등을 주도하는 등 부락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임은, 1997년 농촌지도직의 지방화에 따라 지도방법이 개별지도에서 집단지도로 변화함에 따라 고품질농산물의 생산기술과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기술개발을 위해 태동하였음
-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은 개별 농가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한 농가소득

증대에 있으며, 회원 간 자발적인 참여와 정보교환, 협력강화 등 협동체 정신이 활동의 주요 기저로 작용하였음

- 즉, 개인이 아는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이득으로 돌아온다는 상호 부조정신이 연구모임 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
- 한국에서 농촌지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을 거듭하기까지 많은 요인들이 작용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농촌지도사업 참여자들 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자발적·적극적으로 노력한 점은 그 어떤 요인들보다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한국에서 그간 추진해온 농촌지도사업 중 상당부분은 사회운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는데, 사회운동의 성패는 공동체 의식의 수준에 의존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한국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은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 오랜 역사를 통해 한국인 특유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는 있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발현하고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향후 농촌지도사업을 펼치거나 수정하려는 많은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됨

1.6. 농업전문인 인재 양성

- 농촌지도사업은 그 어원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교육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임
 - 교육의 궁극적 목적 중 하나는 관련 제 분야의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며, 농촌지도사업의 특성상 농촌에 거주하는 일반농민들의 교육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 한국 농촌지도사업도 교육을 통한 농업전문인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거뒀음

- 교육은 다양한 분야에서 망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교육훈련, 농기계 교육훈련, 그리고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전문인 양성을 주로 고찰하였음
- 전자의 두 가지 교육훈련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농업 관련 전문인을 양성시키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을 추구하였다면,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운영을 통한 교육은 전문인 양성이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조금은 상이한 측면이 있음
-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우수한 농업전문인을 양성하였다는 점은 앞서서도 비중 있게 다뤘음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각종 교육에 있어서 특기할만한 점은, 교육목적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고 그 유형에 적합한 교육방법을 활용하였다는 것임
- 농업인 교육훈련은 농촌지도사업 초창기부터 역점사업이었으며,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등 가장 많은 공을 들여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또한 포괄적인데, 새로운 기술의 보급을 중심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협력교육의 형태로 추진한 교육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적임
- 농기계 교육훈련은 농업기계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핵심요원을 선발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전문기술훈련을 실시하여 전문 기술자를 배출하는 것이 주된 교육의 목적이었으며, 이를 통해 영농기계화시책을 추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음
 - 농기계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교육훈련시설과 장비 마련에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1982년부터 연차적으로 국고와 지방비 예산을 투입하여 보강하여온 결과 전국의 농업기계훈련기관에서는 상당수준의 훈련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게 되었음
 - 한편, 농기계 훈련교재 개발에도 많은 공을 들였으며, 농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주요 농기계 훈련교재를 각 기종별로 만화나, 도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책자, 리플릿, 패도, 슬라이드, VTR, 영화 등으로 제작하고, 이러한 교재를 대농민교육시 농기계에 흥미를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도 및 시군단위 농기계훈련용으로 보급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농업전문학교를 설립하고, 추진하였다는 것은 한국의 농촌지도사업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임
 - 농업인 교육훈련이나 농기계 교육훈련 등이 농업전문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많은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1990년대에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전문 농업인력이 부족했던 시대상황을 감안했을 때 상기의 교육방법은 일정 부분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음
 - 즉, 보다 전문적인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설립하여 전문적인 농업인을 육성해 오고 있는 점은 다른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무엇보다도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졸업한 농업 전문가의 95%이상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점은 그 교육의 효과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함
 - 전문 농업인의 양적 확보는 한국 농촌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1.7. 친환경 농업기법의 대중화

- 앞서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의 농업은 농업생산증대 시책을 통해 주곡자급은 달성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증가, 축산분뇨 과다발생 등으로 오염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환경 기반의 유지 및 보전,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 증대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증대하였음

- 한국에서 정부 차원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음
 - 1994년 농림부는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여 본격적인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1996년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음
 - 1997년 12월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⁴⁾을 제정 공포하여 친환경농업의 개념 및 목표를 명확히 하였음
- 한국에서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보급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예로는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지도, 직접지불제도의 추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등을 들 수 있음
- 농촌지도사업을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자 2004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농촌지원국에 친환경기술과를 개편하고,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에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의 연구 및 지도 기능을 강화하였음
 - 상술하면, 병해충 종합관리(IPM), 작물양분 종합관리(INM), 가축분뇨 종합관리(IWM), 첨단공학과 생물학적 기술의 통합 이용 등 최첨단 농업기술 이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주력하고 있음
 -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작물양분종합관리(INM)의 실천으로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밀토양검정실 148개소를 운영하고 일선 농협의 토양진단센터를 확충하여 정밀검정에 필요한 필지별 적정 시비량 추천으로 기술지도를 시행하였음
 - 또한 토양환경정보 웹서비스를 구축, 토양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토양환경 보전 및 지력증진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

4)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하게 하는 농업형태로 농업생산의 경제성 확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을 의미하고 있음

- 병해충 종합관리(IPM) 실천으로 전국에 병해충관찰포(1,043개소), 예찰포(151개소)를 설치, 농업인의 병해충 적기방제 유도으로 농약사용을 줄이고, 해충의 천적을 대량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음
 - 한편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험연구 내용과 유기농업 신기술을 집대성한 친환경농업 매뉴얼 발간 등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관련기관에 배부하고 있음
- 1999년부터 시행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적합한 지급요건 이행여부 검사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삭거름 시용 기술지도 자료 활용 및 농업인 교육, 영농현장 지도 및 비료적정량 시용 기술지도를 시행하고 있음

<표 4-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실적

단위: ha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실적	10,269	10,459	10,480	5,274	10,459	12,354	20,780	34,896	45,434	72,444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농업환경보전기능 증대, 농업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 친환경농산물 허위표시로부터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법적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생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 상태를 심사, 인증 여부를 통보하고 생산 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대한 인증표지 표시 후 출하토록 하고 있음
 - 2008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및 인증물량의 전체농산물에 대한 비중

은 10% 내외로 확대되었으며 면적 비중을 기준으로 전체 9.9% 가운데 저농약 6.8%, 무농약 2.4%, 유기 0.7%로 저농약 비중이 가장 크고 유기농 비중이 가장 낮았음

<표 4-8>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연 도	1999	2000	2002	2004	2006	2008	전국비중 (2008년 기준)
농가 수(호)	1,306	2,448	11,892	28,985	79,635	172,553	14.2%
면적(천ha)	0.9	2.0	11.2	39.0	74.9	174.1	9.9%
인증량(천톤)	26	35	200	466	1,128	2,188	11.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창길 외, 2009에서 재인용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은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함
 - 이는 친환경농업의 실천농가 수가 2005년 현재 3만 호를 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된 양도 2004년 현재 46만 6천 톤을 상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1.8.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대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농촌 내에서 시장적 재화와 비시장적 재화가 결합적으로 생산되는 것을 일컬음
 -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 기능이 시장적 재화라고 한다면, 비시장적 재화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 기능 이외에 국토 균형 발전, 농촌고용 증진, 환경보전, 식량안보, 전통문화 계승 발전 등과 같은 기능을 생산하거나 확대하는 것임
- 농촌지역이 생산활동뿐 아니라, 인간의 정주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원적 기능은 중요하며,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음

- 왜냐하면, 인간의 정주활동은 다양한 기능을 수반하게 되는데,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공간은 인간의 활동을 제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공간 내 거주하는 인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
- 오세익 외 2인(2004)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의 다원적 가치는 연간 28조 3,700억 원 내외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GDP의 1.4배, 재배업 GDP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농촌의 다원적기능에 따른 가치는 농업의 경제외적 효과가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임
- 농업생산 외에도 농촌지역의 다원적 가치는 농촌의 활력증진과 지역 균형발전, 환경 및 생태계 보전, 농촌의 어메니티 보전, 재해 경감 등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업을 통해 농촌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창출하고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 SOC의 유지·보전 등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
 - 농촌은 농업생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경보전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환경보전을 위한 핵심 거점지역임
 - 농촌은 녹색경관, 도시인들의 휴식 및 레크리에이션 공간 제공, 도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등 자연적, 문화적, 심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아울러 농촌은 강우 때 빗물을 저장하여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음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의 다원적기능을 확대하는데도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업생산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사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전통문화, 생활공간 등 경제적이고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차원의 시도와 노력

을 실천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임

- 앞서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에서 고찰하였던 농촌지도사업의 주요기능 및 역할 즉,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자원 개발 및 생활개선, 농업인 교육 및 육성이 농촌의 다원적기능을 확대하고 개선하는데 영향을 미쳤음
 - 농촌기술의 보급을 통해서는 농촌의 시장적 재화의 기능을, 농촌자원 개발 및 생활개선을 통해서는 농촌의 비시장적 재화의 기능을 강화시켰으며, 농업인 교육 및 육성을 통해서는 농촌의 다원적기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였다는 점 또한 큰 틀에서 농촌의 다원적기능을 제고한 측면이 있음
 - 최근에는 각종 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농촌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중요성에 홍보해 오고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더불어 시행하고 있음
- 농촌지도사업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시작한 1950년대에는 농촌의 다원적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농촌의 다원적기능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는 시점임
- 이러한 시대적 여건변화에 순응하여 한국 농촌지도사업은 농촌의 다원적기능 강화에 대해 실질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추진체계 등을 조직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되고 있음

2. 성공의 핵심요인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적 경험을 개도국에 성공적으로 전수해 주기 위해 성공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성공요인은 현상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성공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한국사례를 참고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관련 정책을 수용함에 있어 그 이해를 넓힐 뿐 아니라, 정책적 수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한국 농촌지도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정부정책, 농업기술의 도입 및 개발, 주민의 참여,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촉진시켜 주는 인프라 등이 있음
 -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떠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룩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
 - 농촌지도사업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2.1. 정부주도의 정책 발굴 및 추진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정부 주도형 정책을 추진하였다는데 있음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에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으며, 정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발굴되고 추진되었음
 -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설립, 예산과 조직의 운영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를 반증함
- 1950년 이후로 정부주도로 추진된 농촌지도사업 정책은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으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본 추진체계, 지도방법, 조직편성과 인력확충 등을 비롯하여 농촌지도사업의 주요기능 및 역할에 해당하는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자원개발 및 생활개선, 농업인 교육 및 육성 등은 모두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음
 - 주요한 정책들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 정책들까지 포함하면, 지난 60여 년 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발굴되

고 추진된 정책들은 망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정부 주도로 추진한 한국농촌지도와 관련된 정책은 한국정부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었음
 - 유럽과 미국 등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오랜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확립된 지방분권의 틀 아래에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였음
 - 이에 반해 한국은 오랜 일제 치하를 경험하고, 6·25전쟁이라는 내란을 겪으면서 지방분권의 틀이 확립되기 전에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시급히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음
- 한편, 1997년 이후부터는 지방화시대에 발맞추어 농촌지도사업의 전면적 체계의 개편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중앙정부는 각종 정책을 발굴하고 결정하며, 지방정부는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지원하는 보조적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농촌지도사업 관련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세부 요인들은 많으나, 무엇보다도 농촌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꼽을 수 있을 것임
 - 한국의 농촌은 앞서 관련통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에 필수적인 농촌인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인프라도 미흡하였음
 -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농업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적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선진사례를 분석하는 등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었음
 - 또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중요하게 고

려였을 뿐 아니라, 정책의 수용자이자 시행자인 농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 이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노력은 한국적 농촌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농촌 지도사업의 체계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2.2. 주민 참여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요인 중 중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농촌지도사업이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창발적인 조직을 통해 집행됐다는 점임
 - 4-H운동, 농촌지도자회, 농업인 연구모임, 새마을운동 등이 대표적이며, 이 같은 사회운동은 농촌지도사업이 지역사회 혹은 지역사회 내의 사회집단을 통한 시행에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국의 농촌은 전통적으로 사회집단 형태로 조직되어 왔음
 - 오랜 농촌사회의 생활이 자연적인 사회집단을 형성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것이 특징임
 - 문중계, 혼인계, 상계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개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상부상조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조직되었음
- 한국적 특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농촌지도사업을 지역 혹은 마을 단위로 추진하게 하는 등 농촌지도사업의 최종 집행자이자 수혜자인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였음
 - 1960~1970년대는 농사개량구락부·생활개선구락부·4-H구락부 등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술한 조직과 유사한 형태의 마을단위 집단을 통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한국정부의 정책이 마을단위 지역사회에 전달되지 않고 특정집단에만 혜택이 주어질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정책의 효율적 집행은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정부정책을 마을 내 조직, 더 나아가서는 농민 개개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를 도출한 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한국정부가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마을단위 조직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도록 한 점은 정책의 효율적 추진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한 것임
- 나아가, 농촌지도사업의 본질은 농민 개개인의 생활수준과 복지 향상이며, 이를 위해 농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자긍심과 참여의지를 고취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정부주도형의 농촌지도사업에 주민참여형의 추진체계가 있었기에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으며, 오늘날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고 판단됨

2.3. 선진기술 도입 및 개발

- 1950년대 이후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된 세부사업은 선진기술의 도입과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 선진 농업기술은 농업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농촌발전과 농민들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기 때문임
- 선진기술은 실천 가능성 즉, 농민들이 실제로 농업에 적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음
 - 교육을 통해 배운 최신의 선진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없다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한국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많은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독자적으로 한국적 농촌상황에 적합한 선진기술을 개발하여 오고 있음
 - 대부분의 기술들은 국내 시험연구기관에서 그 적용 가능성이 검토되었

고, 지역 단위의 연구기관에서 적응시험 및 응용연구 기관을 거쳐 개별 농가에 보급된 것이 특징적임

- 한국이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선진 농업기술을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고, 개발하는 데에는 농촌진흥청 산하의 각종 시험연구소, 지역 연구소, 지방정부에 소속된 품목별 연구소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
 - 기관들은 선진기술을 농가에서 실천 가능한 현장기술로 개발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선진기술이 농가에 보급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임
-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에서 선진기술의 개발 및 보급의 성공을 평가함에 있어 최근까지 회자되는 상징적인 사건은 통일벼 개발과 보급의 성공임
 - 통일벼 개발에 따른 농가의 쌀생산의 증대와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는 여타 선진기술의 개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커다란 사건이었음
 - 통일벼 생산에 의한 소득증가액 비율은 11~14%로 평가되고 있을 정도임
 - 아울러 2005년, 총 인구의 7.9%만이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된 데에도 통일벼의 개발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이견이 없음
- 한국은 농촌지도사업을 통해 통일벼 외에도 다양한 신품종개발에 성공하였으며, 선진재배기술을 보급하는 등 선진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힘쓴 데 힘입어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능력 확충에 큰 기여를 하였음
 - 선진기술개발의 성공은 중앙정부 주도의 농촌지도사업 정책에 농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울러 한국영농의 과학화를 촉진하고 재인식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2.4. 인프라 구축

-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은 농업기반을 튼튼히 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으면, 훌륭한 정책이 개발되고, 우수한 인력이 동원되더라도 목표달성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아니라, 성과를 달성할 수도 없기 때문임
- 한국 농촌지도사업은 생산기반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음
 - 생산기반 인프라는 농업용수, 수리시설, 농촌도로 및 정주환경, 경지정리와 같이 주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 사회적 인프라는 농업생산과 농촌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정비와 이의 시행조직 및 인력을 통칭하는 것임
- 1970년대까지 한국농촌의 생산기반은 열악했으며, 1970년도의 경지정리 비율이 1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음
 - 농촌지도사업에서 농촌의 생산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핵심적인 사업은 농촌 생활자원사업과 지역사회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두 가지 사업은 농촌의 생산기반 확충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경지정리, 하천공사 등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을 포함해서 농가 주거환경 개선, 농작업환경 개선, 농특산물 가공 관리 등 농촌 생산기반의 전 부분을 개선·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음
-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인프라 구축과 함께 사회적 인프라 확충도 필수적임
 - 앞서 많은 지면을 활용해서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이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는 충분히 살펴보았음
 - 이를 통해 한국정부가 농촌지도사업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보완해왔는지 확인이 가능함

- 농촌지도사업의 제도뿐만 아니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각종 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임
 - 이 같은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및 확충은 한국 정부가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정책들이며, 이는 현재진행형의 노력이기도 함
 - 한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농촌지도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성과를 달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한편, 사회적 인프라와 관련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농촌지도사업의 정책을 실천하는 단위인 개인과 농촌마을 내 사회집단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한국 정부는 4-H운동,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달성하였음
 - 마을 혹은 구락부 단위의 자치와 자율적 의사 결정권은 마을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한국의 농촌지역 사회가 지닌 가장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음
 - 한국정부 주도로 추진한 4-H운동, 새마을운동은 빈곤을 극복하고 농촌 발전을 이룩한 성공적인 모델로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음

제 5 장

종합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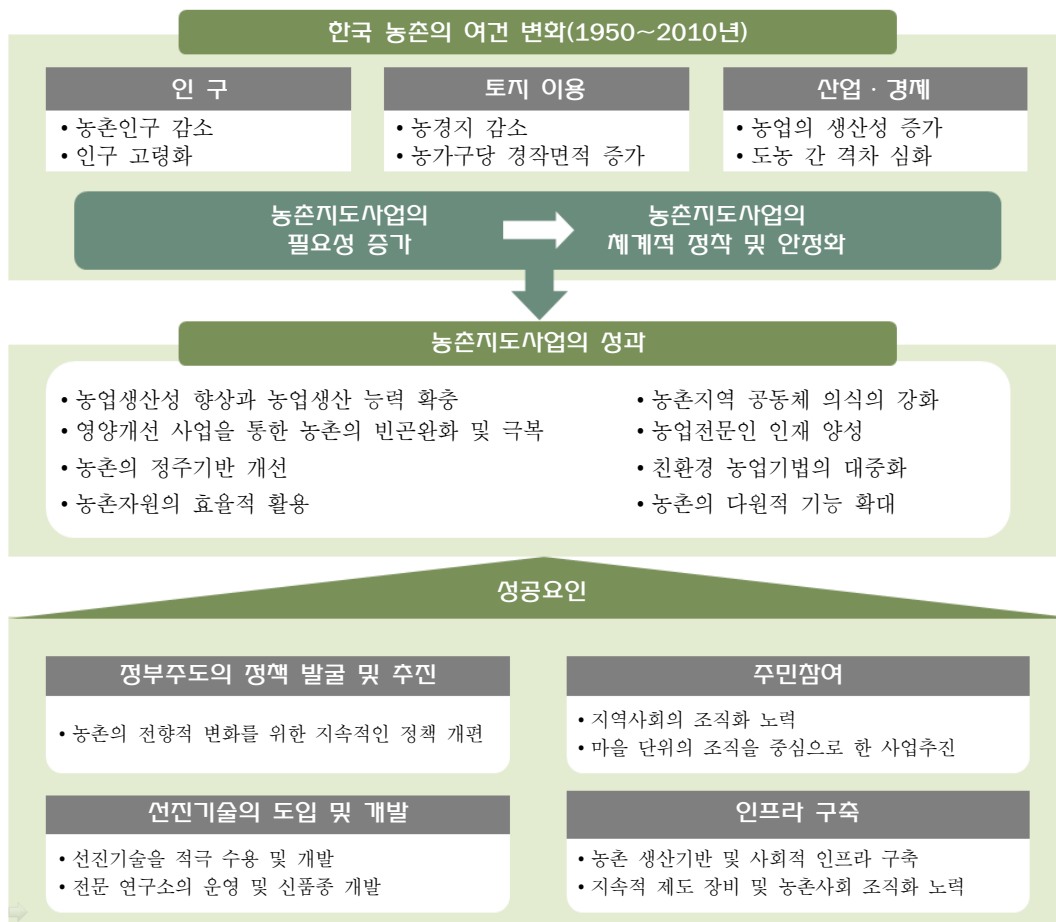
1. 연구결과 종합

- 본 연구의 목적은 195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 성과, 그리고 성공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들과는 정책적 교류를 증대시키고, 개도국들에게는 한국의 성공사례를 전수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먼저 농촌지도의 개념과 한국적 농촌지도의 특성을 고찰하는 한편, 한국 농촌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국농촌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음
 - 그리고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발달과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 즉, 추진 체계 및 지도방법, 인력확보 및 예산운영, 농업기술 보급 및 지도, 농촌 자원 개발 및 생활 개선, 농업인 교육 및 육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주요시기별로 추진실적 및 성과를 검토하였음
 - 마지막으로 상기의 검토내용을 토대로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출하고 성공요인을 제시하였음
-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그림 V-1참조>)
 - 한국의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고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촌지도사업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증대되어 왔으며, 농촌지도사업은

시대적 요구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온 한편, 효율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 왔음

- 한국은 오랜 동안 지속적·적극적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생산 능력 확충에 성공하였고, 농촌의 빈곤문제와 정주기반을 개선해 오고 있음
- 아울러,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 공동체 의식의 강화, 농업전문 인재 양성, 친환경 농업기법의 대중화, 농촌의 다원적기능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를 거뒀음

<그림 5-1> 연구결과 종합



-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에는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발굴 및 강력한 추진력이 있었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었음
- 또한, 농업 관련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보급하는 한편 선진기술을 개발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있었으며, 농촌지도사업의 저변확대와 성공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이 같이,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공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는 향후 개도국의 발전경험 공유에 기초자료로 활용가치가 높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적 참고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를 통해 한국의 국익 신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는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과와 성공요인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으나,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
 - 하나는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 혹은 내용을 검토함에 있어 일부 제약을 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료구득의 한계로 보다 폭넓은 분석과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있음
- 1950년대 이후 한국의 농촌지도사업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농촌지도사업의 성격이 광범위한 것에 기인함
 - 따라서 지난 60여 년간 한국에서 농촌지도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한 모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름
 - 더구나 타 국가들과 정책적 교류를 위해 추진된 본 연구의 특성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공사례를 고찰하는 것이 타당함
 -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외시킨 일부 내용이 일부 국가들에게는 유용하게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왜냐하면, 개별국가가 처해 있는 상황은 상이하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적 과제 혹은 추진의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러한 한계는 본 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 농촌지도사업 개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때, 수원국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의 내용이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95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한국에서 추진된 농촌지도사업의 내용은 망라적이었고, 많은 변화과정을 겪어오고 있으나, 관련자료의 구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 1990년대 이후 추진되었던 사업에 관한 자료는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으나, 1950~1980년대까지의 자료는 일부 구축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이러한 자료 구축의 한계로 본 연구에서는 일부 내용에 있어서 보다 풍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 무엇보다도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실증적인 분석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음
 - 향후 한국 농촌지도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가 보다 풍부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연구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평가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참고 문헌

- 강창용, 이용연. 2008. 「친환경 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농촌경제연구원.
- 김성일. 2007. “농촌지도사업의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진균, 박성준. 2000.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패러다임 전환과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2): 279-288.
- 김진모, 고순철, 송용섭, 이진화, 공민영, 이진영. 2009. “경기도 농촌지도사업 발전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1(1): 37-66.
- 김진화. 2007. “농촌지도사업 명칭의 이미지 및 적합성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9(1): 137-165.
- 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2009, 최근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농촌경제연구원.
- 김태호. 1996. “저발전국 농촌지도사업의 공공적 역할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3(1): 157-164.
- 농림부. 1999. 「한국농정 50년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수산식품부. 2006. 「2006~2010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 농림수산식품부. 2009.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 농촌진흥청. 2005. 「농촌지도사업 편람」.
- 농촌진흥청. 2007. 「농촌지도사업 편람」.
- 농촌진흥청. 2008. 「한국농업 근현대사: 제9권 농촌지도사업의 발전과 선도농업」.
- 박태식 외. 1989. 「농촌지도론」 서울: 향문사.
- 송기진. 2003. “농촌지도사의 지방직 이후 직무변화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를 사례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세익, 김동원, 박혜진. 2004.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여학. 1998. “행정개혁과 농촌지도사업체제 변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5(2): 187-192.
- 이질현 외. 2001. 「새로운 한국식량산업정책의 방향」. 서울대학교출판부.
- 조영철, 송용섭. 2003. “농촌지도사업 혁신방안에 대한 지방 농촌지도공무원의 인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5(4): 87-98.

- 최민호. 1995. 「농촌지도론 -농촌사회교유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 FAO and World Bank. 2000. Agricultur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ystems for rural development: strategic vision and guiding principles. Rome: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 of the United Nations.
- Van den Ban, A. W., and Hawkins, H, S.. 1996. Agricultural Extension. England: Blackwell Science.

통계청(<http://www.kostat.go.kr>)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

한국은행(www.bok.or.kr)

농림부(<http://www.mifaff.go.kr>)

KREI-KSP(지식공유사업) 시리즈 01
농촌지도 및 보급체계 구축·운영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0. 12.
발 행 2010. 12.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